

봄의 리듬을 따라
해남



THE SYLAN 2

WIND AT
YOUR BACK



ARC'TERYX

Jazmine Lowther and Martin Kern
Hardergrat
Canton of Bern, Switzerland
Photo: Carlos Blanchard



이달의 여행

040

봄의 리듬을 따라 해남

한반도 땅끝의 질푸른 바다, 두륜산을 뒤덮은 연둣빛 나무, 울돌목을 물들인 붉은 노을, 거리에 만개한 홍매화까지, 봄기운 완연한 전남 해남을 거닐었다.



표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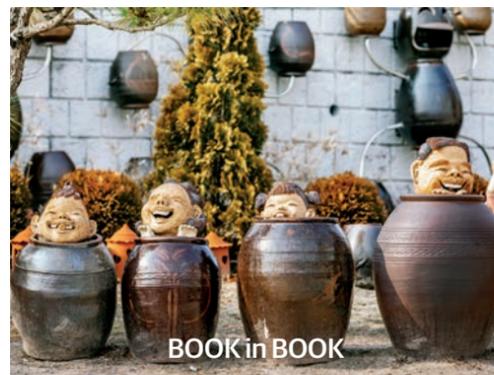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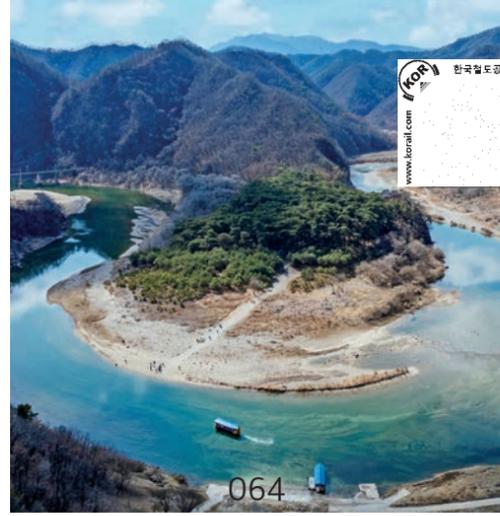
전남 해남 대흥사

해남반도 끝자락에 우뚝 솟은 두륜산, 그곳에 고즈넉이 자리한 대흥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 차(茶) 문화의 성지다. 514년(백제 무령왕 14년) 승려 아도화상이 창건했으며 초의탑과 삼층석탑,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등 수많은 문화유산을 품고 있다. 이른 아침 경내에 들어서자 방문객을 반기듯 봄별 아래 매화가 분홍빛을 밝힌다. 은은한 꽃향기가 고요한 산사에 봄기운을 더한다.

AHILO



- 016 **듣는 여행**
아침을 깨우는 소리
조계산 계곡물 소리가 한 승려의 비질 소리와 묘하게 닮았다.
- 018 **촬영지 여행**
'미쓰 흥'이라는 위장술
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흥>에서 강명희 사장의 장례 미사 장면을 서울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촬영했다.
- 020 **여행자의 공간**
반나절 유럽 기차 여행
기차를 테마로 한 레스토랑, 익스프레스 노원 바이 미라쥬를 찾았다.
- 022 **한국의 맛**
나뭇결에 스민 온기
나무를 깔고 다듬어 다양한 생활 기물을 만드는 박홍준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 024 **한국의 맛**
봄의 활력소
독특한 향과 씹새래한 맛을 지닌 '봄 산채의 제왕' 두릅이 제철을 맞았다.
- 028 **시절, 풍경**
까무룩 훌리다
봄빛 머금은 백도화, 겹벚꽃, 자목련을 카메라에 담았다.
- 034 **전국 행사 달력**
4월의 전시·공연·축제 소식
따스한 봄벌 아래 펼쳐지는 축제로 전국 곳곳이 활기를 띤다.
- 038 **<KTX매거진> 초대석**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직원에게 자부심 가득한 한국철도공사를 만들겠습니다"
김태승 제12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한국 철도의 미래를 물었다.
- 064 **여행의 발견**
단종의 한 서린 땅, 영월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 단종이 생애 마지막 낙동 동안 남긴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 080 **기차 안 세계 여행**
마츠다 부장, 권오준 셰프의 일본 미식 기차 여행
일본의 해산물 천국인 하코다테·아오모리·이와테로 여행을 떠났다.
- 114 **인터뷰**
다정함이 세상을 바꾼다
계단부서클럽의 박수빈·이대호 공동대표는 접근성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BOOK in BOOK

made in ULJU
울주를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울산 울주의 시간을 잇는 공간과 새로운 감성을 더하는 사람들을 마주했다.



탄력, 광채, 피부결까지
올인원 홈케어 디바이스

VITALIFT
RF EX

고 주 파 4 M h z R F 탐 재



▶ EH-SR86



가까운 매장찾기

문의 1588-8452
www.panasonic.co.kr

120 전시 보러갑니다

불시착한 미래

10년의 기다림 끝에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128 함께 여행

공덕동 식물유치원 원장의 하루

백수혜 작가와 함께 서울 불광동 재개발 단지에서 유기 식물을 구조했다.

136 에디터의 노트

의병의 얼굴을 만나다

전남 나주에 의병의 함성과 숨결이 깃든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개관했다.

142 한국 탐구 생활

일라이다의 수원 행궁동 나들이

튀르키예계 독일인 일라이다와 함께 경기도 수원 행궁동의 매력적인 공간을 찾았다.

150 KTX타고 도보여행

군산 구영길의 힙한 물결

전북 군산의 원도심, 구영길에 트렌디한 공간이 속속 들어섰다.

158 책 속의 무대

권력의 부질없음을 말하는 칼로막베스

극단 마방진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무협 액션극 <칼로막베스>로 돌아왔다.

162 트렌드 읽기

토크쇼의 귀환, 다시 '말'의 시대

한동안 방송에서 자취를 감췄던 토크쇼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164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4월의 소식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 반가운 작품부터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콘텐츠까지 골랐다.

176 플레이리스트

김뜻돌과 떠나는 음악 여행

싱어송라이터 김뜻돌이 치유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한 걸음씩 다가온다.

168 코레일 소식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72 열차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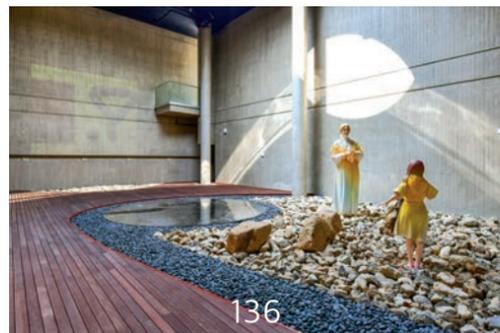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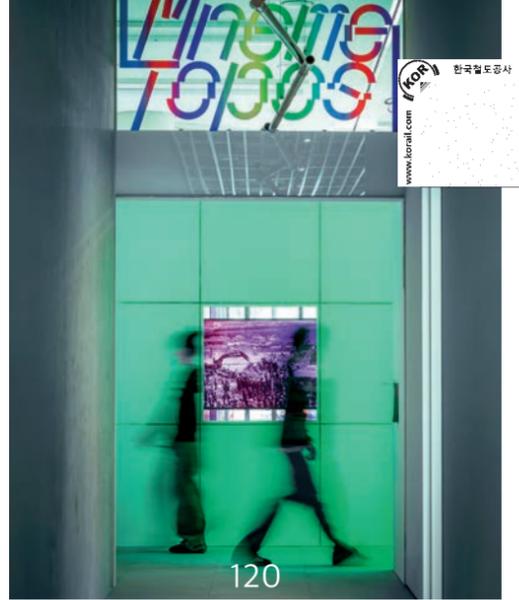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 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시아이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시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시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보이시아이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보이시아이바코드



Panasonic
Beauty

에스테티션의
섬세함을
손에 준다

EMS와 괄사의 시너지 케어

VITALIFT
KASSA



물 세척 가능



EH-SP86



가까운 매장찾기

문의 1588-8452
www.panasonic.co.kr

2026년 04월호

KTX MAGAZINE

제23권 제4호 통권 제262호
2026년 4월 1일 발행

발행인 김태승(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홍영선

편집장 최현주 kteditor@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오유리 이미선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연등회 燃燈會

2026 5.16-17

전통등전시회

5월 8일(금)~5월 25일(월)
조계사, 청계천, 봉은사

연등행렬

5월 16일 (토)
오후 7시
흥인지문~종각

대동한마당

5월 16일 (토)
오후 9시 30분
종각

전통문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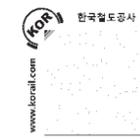
5월 17일 (일)
오전 11시~오후 7시
조계사 앞길



LOTUS LANTERN FESTIVAL

국가무형유산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간은 균일하게 흐르지 않는다

매거진을 만드는 일이 매달 만만치 않지만, 이달은 유독 숨가빴습니다. 3월호 마지막 교정 작업이 끝나고 인쇄기가 돌아가기 무섭게 일본 출장을 가고, 연이은 회의에 국내 출장,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김태승 사장의 사진 촬영까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달은 두세 배 긴 시간을 산듯한 기분입니다. 특히 마즈다 부장, 권오준 세프와 함께 간 일본 출장에서는 신칸센을 타고 헤저터널을 지나고, 스토브 열차와 고타쓰 열차 취재에 하치노헤 핫쇼쿠 센터 스케치와 심야의 요코초 탐험까지 이어져,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그날 있었던 일이 전생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방송에서 박문호 교수가 언급한 시간의 중첩과 팽창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시간의 중첩을 경험한다고, 그에 반해 많은 걸 보고 경험한 사람은 3일을 일주일로 느끼는 시간의 팽창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A와 B가 똑같이 80년을 산다 해도 그들이 체감하는 시간은 50년 또는 100년으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일본에서 지낸 5박 6일 동안 만난 사람과 공간, 음식이 매번 다른 신선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의 팽창을 가속하는 방법으로 <KTX매거진>에서 소개한 여행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이달 <KTX매거진>의 첫 목적지는 전남 해남입니다. 한국 차(茶) 문화의 성지 대흥사와 충무공 이순신이 명량대첩의 신화를 이룬 울돌목, 중생대 백악기 익룡의 발자국을 만나는 해남공룡박물관, 그리고 월채어와 유아차 이용자도 땅끝담과 스카이워크를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땅끝 꿈길랜드까지, 해남의 아름답고 흥미로운 곳을 가득 담았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1000만 관객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뜨겁게 주목받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이 영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선물을 시작으로 육지 속의 섬 같은 청령포, 단종의 유일한 친구이자 놀이터였던 관음송과 조선 왕릉 가운데 가장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영월 장릉까지, 열일곱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단종의 마지막 너달을 세심히 조명했습니다.

공덕동 식물유치원 백수혜 원장과 함께 서울 불광동 재개발 단지를 찾아가 버려진 식물을 구조했고, 계단뿌서클럽의 박수빈·이대호 공동대표를 만나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실천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그들의 다정한 활동에 귀 기울였습니다. 지난 3월, 오랜 기다림 끝에 문을 연 두 공간도 한걸음에 다녀왔습니다. 동시대 미술을 신고 서울 금천구에 '불시착'한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퍼포먼스, 개념 미술, 코딩아트를 아우르는 뉴미디어로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예술을 선보입니다. 전남 나주에 터를 잡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임진왜란과 대한제국 전후, 일제강점기에 이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 행진에 이르는 동안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지킨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생생한 전시와 영상으로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오는 4월 1일은 KTX 개통 22주년, <KTX매거진> 창간 2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2004년 4월 1일 부산역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철도. 그 안에는 <KTX매거진> 창간호도 함께였습니다. 시속 300킬로미터로 달리는 열차의 등장에 모두가 어리둥절하던 그날, 서울역에서 KTX를 맞으며 느꼈던 벅찬 감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마음 그대로 더 유익하고 더 머물고 싶은 <KTX매거진>을 만들겠습니다.

편집장 최현주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해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지난해 연말 처음으로 목포 여행을 떠났다. 그래서인지 3월호에 실린 사진이 친숙하게 느껴진다.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전망대 등 내가 다녀온 곳에 대한 정보가 빠곡한데다 매거진을 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장소까지 소개해 다시 목포 여행을 꿈꾸게 됐다.



김하늘 강원도 원주시 이화길
 '어사요, 뽀뽀의 시대' 기사를 보고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디지털 시대에 대해 재차 생각해봤다. 마침 장년층과 노인이 느끼는 디지털 문화를 연구 중이라 뽀뽀 같은 초기 디지털 디바이스와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될 때 KT 온마루에 한번 들려야겠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돌의 '물레 로고 우드 손거울'을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아이돌 물레 로고를 새겨 감성을 더한 손거울로,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합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4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KTX@bandicom.com 기간 4월 11일까지

MMCA 이건희컬렉션: 피카소 도예

PICASSO

MMCA LEE KUN-HEE COLLECTION



CERAMICS

2026.3.18.-6.28.

경남도립미술관 3층
 Gyeongnam Art Museum 3F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02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03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04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05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06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07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08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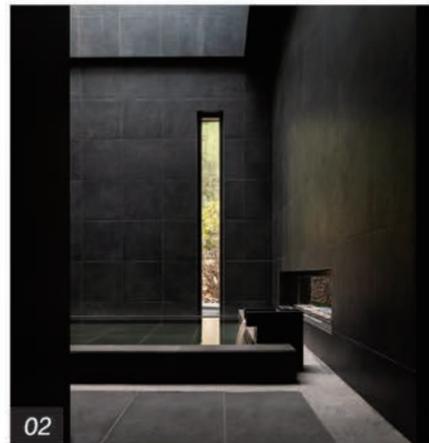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조식: 13첩 반상 한상 차림 & 석식: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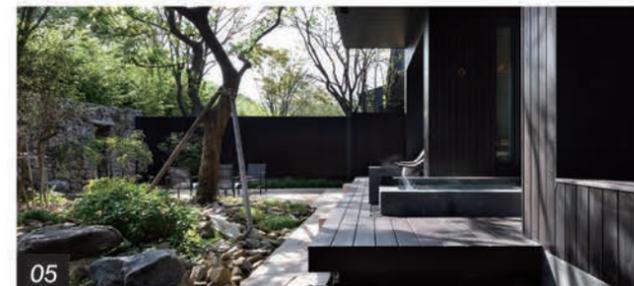
02



03



04



05



06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아침을 깨우는 소리

이른 아침 한승려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바닥을 쓴다.
조계산 계곡물 소리가 비질 소리와 묘하게 닮았다.



QR코드를 찍으면 전남 순천 송광사의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쓰 흥’이라는 위장술

여직원을 호칭할 때 이름 대신 ‘미쓰’로 통치던 세기말. 증권감독원 감독관 홍금보는 여의도 1번지라 불리는 한민증권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헤치기 위해 스무 살 말단 직원 ‘미쓰 흥’으로 위장 취업한다.



tVN 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은 엘리트 증권감독원 감독관 홍금보가 한 증권사에 스무 살 말단 사원으로 위장 취업하며 벌어지는 소동을 담은 작중우물레트로 오피스 코미디다. ‘여의도 마녀’라 불리는 홍금보 역은 배우 박신혜가 맡았다.

1997년 한민증권 비자금 수사에 착수한 증권감독원 감독관 홍금보는 ‘예뻐’라는 익명의 인물로부터 한민증권의 비리를 입증할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메일을 받는다. 직접 만나자는 제안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뜻밖에도 한민증권 사장 강명희. 한민증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 강 사장은 해외로 빼돌린 자금 내역이 담긴 증거물을 홍금보에게 건넨다. 마침내 압수 수색까지 이뤄지지만, 결정적 증거물인 비자금 회계장부를 넘기기 직전 강 사장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만다. 가족들만 참석한 채 조용히 치른 강 사장의 장례 미사 장면은 서울 중구 중림동의 약현성당에서 촬영했다. 1892년에 세운 한국 최초의 서양식 벽돌조 고딕 성당으로 붉은 벽돌과 아치형 지붕, 좁은 창 등 로마네스크 양식을 갖춰 화려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강 사장의 죽음으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홍금보에게 이제 방법은 단 하나, 직접 한민증권에 들어가 비자금 회계장부를 찾아오는 것뿐이다. 홍금보는 무려 서른다섯 살의 나이에 동생 흥장미의 도움을 받아 말단 사원으로 잠입한다. 이름 대신 ‘미쓰’라 불리며 심부름을 주 업무로 하는 홍금보는 그렇게 시대가 만든 ‘미쓰 흥’이라는 호칭 덕분에 손쉽게 위장에 성공한다. 홍금보는 강 사장 비서였던 고복희와 룸메이트가 되기 위해 서울시 미혼 여성 근로 기숙사에 입주하고, 이곳에서 한참 어린여 직원들과 부대끼며 예상치 못한 우정을 쌓아 간다. 회사 안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미쓰’들은 환상적인 팀워크로 기득권의 비리를 파헤치며 함께 성장한다. ‘각자도생’이 생존 비법이라 외치는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연대의 힘과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게 하는 작품이다.

© tVN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6년 신규회원모집

전국 20개의 호텔&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멤버십 ‘소노러스’

I. 창립혜택

4가지 유형의 혜택 중 회원이 한가지 택하실 수 있으며, 유형별로 ‘객실형’ 6년간 30%, ‘종합형’ 골프 2년간 최대 5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부형’은 워터파크 & 조식이 무료 제공됩니다.

II. 추가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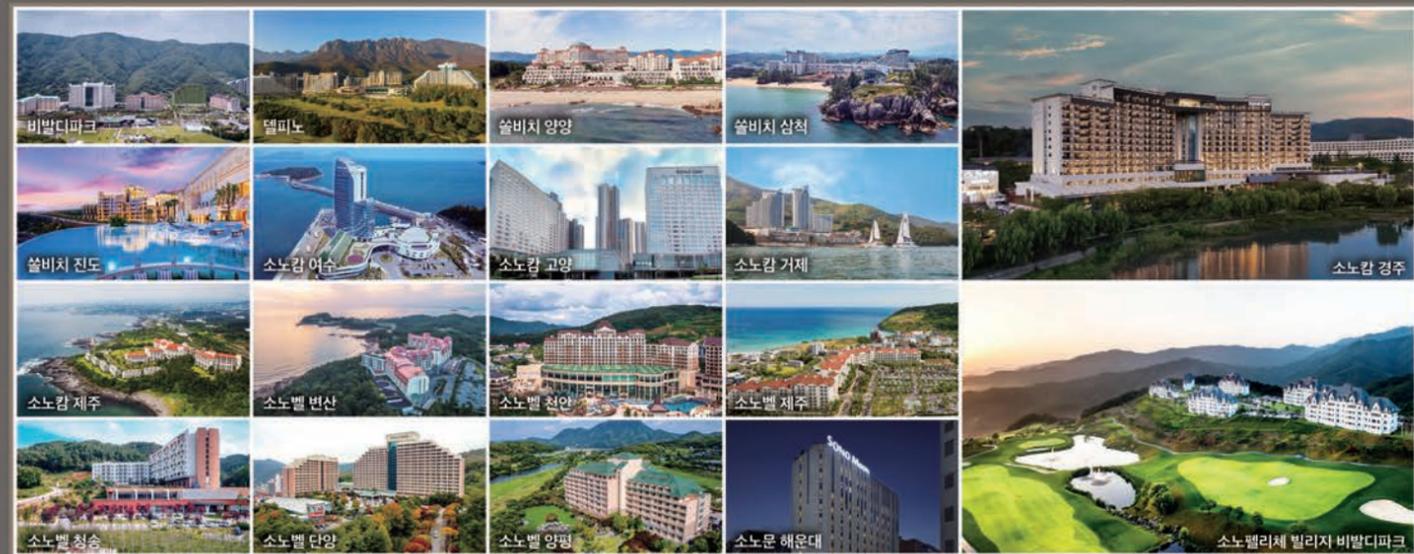
사용가능 입회금 추가할인은 회원이 객실, 골프, 워터파크, 식음 등 전국의 주요시설 이용료를 ‘사용가능 입회금’으로 결제하시면 최대 30%(A상품 기준)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II. 계속되는 비전

2025년 쓸비치 남해 그랜드오픈에 이어 ‘소노캄 경주가 같은 해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지속적인 변화와 새로움으로 무한한 가치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쓸비치 남해 2025년 7월 5일 그랜드오픈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쓸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남해 | 소노캄 고양 | 경주 | 거제 | 여수 | 제주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양평 | 천안 | 단양 | 청송 | 변산 | 제주



반나절 유럽 기차 여행

서울 화랑대 철도공원에 기차를 테마로 한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유럽풍 특급열차를 닮은 이색적인 레스토랑, 익스프레스 노원 바이 미라쥬를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화랑대 철도공원이 따스한 봄기운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텅 빈 철로와 운행을 중단한 기차를 드나들며 사진을 찍는 풍경이 곳곳에 펼쳐진다. 그중 파란색 기차가 유독 눈에 띄는데,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익스프레스 노원 바이 미라쥬다. 로컬 브랜드 미라쥬와 노원구청이 손잡고 선보인 유럽풍 특급열차 콘셉트의 레스토랑이다. 공원의 밤을 밝히는 '노원 불빛정원', 스위스와 이탈리아 풍경을 보여주는 디오라마 전시관 '노원기차마을', 미니 기차가 음료를 배달하는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경춘선 관련 자료를 모은 '화랑대 역사관' 등으로 구성된 이곳에 식사를 즐길 공간을 꾸렸다.

익스프레스 노원 바이 미라쥬에 들어서면 화려한 샵드리에가 차내를 환히 밝히고, 고풍스러운 의자와 벽지 등이 영화 세트장을 연상시킨다. 기존 무궁화호 객차를 리모델링해 주방으로 꾸몄고, 영화 세트 제작진이 설계한 열차 1량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즐긴다. 대표 메뉴는 시금치 리소토에 우삼겹을 올려 바위를 형상화한 '불암산 리소토'와 태릉의 명물 솔밭갈비를 활용한 '태릉 솔밭갈비 파스타'로 지역 특색을 살려 개발했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경양식 돈가스와 부라타 치즈를 더한 포도도로 파스타도 인기 메뉴다.

이동 약자를 위한 시설도 인상적이다. 유아차와 휠체어의 이동을 고려해 한쪽 입구에 경사로를 만들고 테이블 간격을 1미터 확보했다. 레스토랑 앞에 줄 선 사람들을 보니 마치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만 같다. 올봄에는 익스프레스 노원 바이 미라쥬를 타고 잠시 유럽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주소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08



KOEN VAN DEN BROEK : THE SKIN OF THE EARTH

쿤 반 덴 브룩 : 지구의 피부



나뭇결에 스민 온기

박홍준 작가는 나무를 깎고 다듬어 다양한 생활 기물을 만든다. 체리나무를 깎아 만든 화형(花形) 대반 위에 같은 나무로 깎아 옷칠로 마감한 찻잔 받침이 잔을 조심스레 받치고 있다. 기물 위로 빛이 스며들자 나무의 섬세한 결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차를 마시는 동안 나무의 따뜻한 기운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
심
은
의
진
주
는
곳



봄의 활력소

독특한 향과 씹새래한 맛이 나는 두릅은 예부터 '봄 산채의 제왕'으로 귀하게 여겼다. 산야에 푸릇한 새순이 돌아오는 4월 초부터 중순까지가 제철로, 경기도 가평과 전북 순창이 대표 산지로 꼽힌다.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춘곤증을 완화해 준다.



“젊음은 세포에서, 행복은 뇌에서 온다” 즐기세포와 세로토닌으로 풀어낸 몸과 마음의 회복학

청담셀의원 조찬호 원장, 이시형 박사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무엇일까. 청담셀의원의 조찬호 원장과 이시형 박사를 만나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물었다.

몸이 젊고 건강하려면 신체적 요소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관리해야 한다. 마음이 편안해야 얼굴에 생기가 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이유다. 이를 실현하는 곳이 바로 청담셀의원이다. 즐기세포를 기반으로 항노화 치료에 집중하는 조찬호 원장과 '국민 건강 주치의' 이시형 박사가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찾아 준다. 조 원장은 특히 '헬스케어 디자인'을 표방하며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맞춤 처방으로 젊음을 관리해 주는 스페셜리스트로 꼽힌다. 이시형 박사는 현재 청담셀의원 명예원장을 맡고 있다.

두 분이 함께 '헬스케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조찬호 원장 저는 즐기세포를 통해 세포 본연의 회복력을 끌어내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즐기세포로 젊음을 회복한 뒤 이를 잘 유지하려면 마음 관리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재생 속도를 결정짓는 의외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인데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세포도 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항노화 치료는 정신의학, 뇌과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시형 박사** 조 원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평생 뇌 속의 세로토닌을 연구했습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해야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이 유지됩니다. 흥미로운 건, 세로토닌이 안정된 사람은 면역력과 회복력이 함께 높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뇌 건강이 세포 건강과 연결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포 재생과 마음의 평온은 그 뿌리가 같다는 말씀이군요. 이시형 박사 맞습니다. 세로토닌은 일종의 '젊음의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세로토닌이 고갈되고, 이는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결국 노화는 뇌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요. **조찬호 원장**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개념이 '프리juvenation(Prejuvenation)'입니다. 이미 노화된 세

포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노화 징후를 늦추는 게 더 효율적이지요. 세로토닌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세포 재생력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젊음을 설계하는 길입니다.

청담셀의원이 지향하는 '헬스케어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조찬호 원장 건강검진 결과와 기능 의학 검진, 유전자 검사까지 종합해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의 건강 패턴'을 디자인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전신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피부 개선 '미셀(美Cell)', 탈모 치료 '모셀(毛Cell)', 성기능 개선 '성셀(性Cell)', 통증을 관리하는 '활셀(活Cell)'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시형 박사 요즘은 외적인 젊음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피부가 팽팽하고 체력이 좋아도 마음이 병들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신체 회복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서로의 거울이에요. 즐기세포가 몸을 되살리고, 세로토닌이 마음을 되살리는 거죠.

두 분이 함께 그리는 '젊음의 철학'이 있다면요? 조찬호 원장 젊음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포의 회복력과 마음의 평온함이 동시에 유지될 때 진정한 프리juvenation이 완성됩니다. **이시형 박사** 결국 건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 몸을 돌보는 일, 내 마음을 살피는 일, 둘 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죠. 저는 이제 의학이 기술을 넘어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웰에이징입니다.

찬란한 봄꽃의 향연 '2026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자라섬 일대가 형형색색 봄꽃의 물결로 일렁인다. 3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가 열리는 것. 가평으로 낭만적인 봄나들이를 떠나 보자.

2026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

기간 5월 23일~6월 14일
장소 경기도 가평 자라섬 일원

2026년 봄, 자라섬 남도의 넓은 들판이 양귀비, 수국, 안개초 등 봄을 상징하는 꽃으로 화려하게 물든다. 초록의 생명이 깨어나며 섬 전체가 거대한 정원으로 변하는 계절, 자라섬의 열띤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2026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이하 자라섬 꽃 페스타)가 열린다. 2020년 첫 개최 후 2025년 말 기준 3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되며 가평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자라섬 꽃 페스타는 자연과 사람, 지역민과 방문객을 하나로 이으며 관람객을 찬란한 봄의 세계로 초대한다.

축제 기간 동안 자라섬은 발길 닿는 곳마다 포토존이다. 가평의 귀여운 캐릭터 '갯평이'와 '송송이'가 반겨 주는 테마 정원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인기 만점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이 열려 꽃향기 속에 감미로운 선율을 전한다. 잔잔한 음악과 방문객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현장은 봄의 낭만이 정점으로 향한다.

축제를 더욱 흥미롭고 편하게 즐기려면 선박이나 전기차에 탑승하면 된다. 북한강 물길을 따라 달리는 '천년벚길' 선박에 오르면 자라섬과 남이섬, 가평마리나가 한눈에 담긴다. 가평레일 바이크에서 자라섬 남도까지는 전기차를 무료로 운행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강 위에서 바라보는 가평의 봄 풍경은 감동 그 자체다. 한편 축제 입장객에게는 입장료 중 일부를 가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축제장 안팎에서 지역 농산물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라섬 꽃 페스타 관계자는 "자라섬의 꽃길은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방문객이 마음을 돌보고 계절의 활력을 얻어 갈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다"라고 전했다. 꽃이 만발한 계절, 가평 자라섬은 가장 훌륭한 봄 여행지가 될 것이다.



제작 지원 가평군청

2026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

2026.5.23(토)~6.14(일)

입장 08:00~18:00 퇴장 21:00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일원



까무룩 흘러다

천진한 4월, 백도화, 겁벚꽃, 자목련에 까무룩 흘렀다.

여인의 화첩에서 튀어나온 듯한, 복숭아꽃의 하얀 아우성.

2025년 4월 초 전남 순천





동그란 발자국을 찍으며 봄비가 침병이는 오후, 겹벚꽃이 포르르그네를 탄다.

2024년 4월 중순 경북 경주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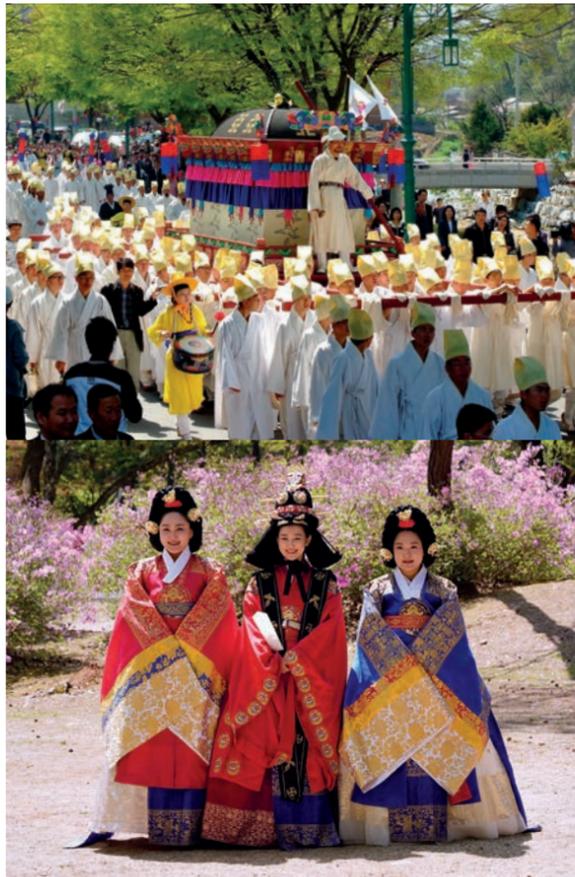


제25회 금산 보곡산골 산벚꽃 축제

금산 04.11~19

보곡산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벚꽃 자생 군락지로, 매년 4월 중순이면 넓은 산자락에 산벚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올해도 개화 시기에 맞춰 개최하는 금산 보곡산골 산벚꽃 축제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산책하면서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산꽃슬래길 줍깅 챌린지, 숲속에서 펼쳐는 작은 음악회, 산벚꽃을 모티브로 한 친환경 공예 작품 전시회 등을 진행한다. 금산터미널에서 차로 약 25분 가면 축제 장소인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에 도착한다.

장소 충남 금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일원 문의 041-750-2316



제59회 단종문화제

영월 04.24~26

단종문화제는 영월의 대표적인 향토 문화 축제다. 1일 차에는 단종이 나룻배를 타고 청령포로 들어가는 역사적 순간을 재현하고, 이머시브 뮤지컬 <단종, 1968> 공연과 함께 트로트 가수 이찬원·강문경이 개막식 무대에 오른다. 2일 차에는 단종과 충신의 넋을 기리는 단종 제향을 지내고, 3일 차에는 강원도 무형유산인 영월 최줄다리기가 이어진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와 연계한 미션 스탬프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영월역(태백선)에서 영월 동강둔치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걸린다.

장소 강원도 영월 동강둔치 일원 문의 033-375-6372



FESTIVAL



2026 영암 왕인문화축제

영암 04.04~12

왕인박사유적지는 영암 구림마을에 자리한 유적지로, 왕인이 새롭게 조명된 후 그의 자취를 복원한 곳이다. 이곳에서 일본 아스카 문화의 기반이 된 왕인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도전 정신을 계승하는 축제가 열린다. 왕인 박사의 이야기를 담은 테마 퍼레이드와 마당극이 행사의 열기를 더하고, 메인 테마인 '위대한 항해'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대형 수목 퍼포먼스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영암역(목포보성선)에서 차로 약 20분 이동하면 왕인박사유적지에 닿는다.

장소 전남 영암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문의 061-470-2347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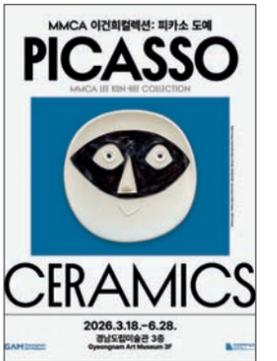


<MMCA 이견희컬렉션: 피카소 도예>

창원 03.18~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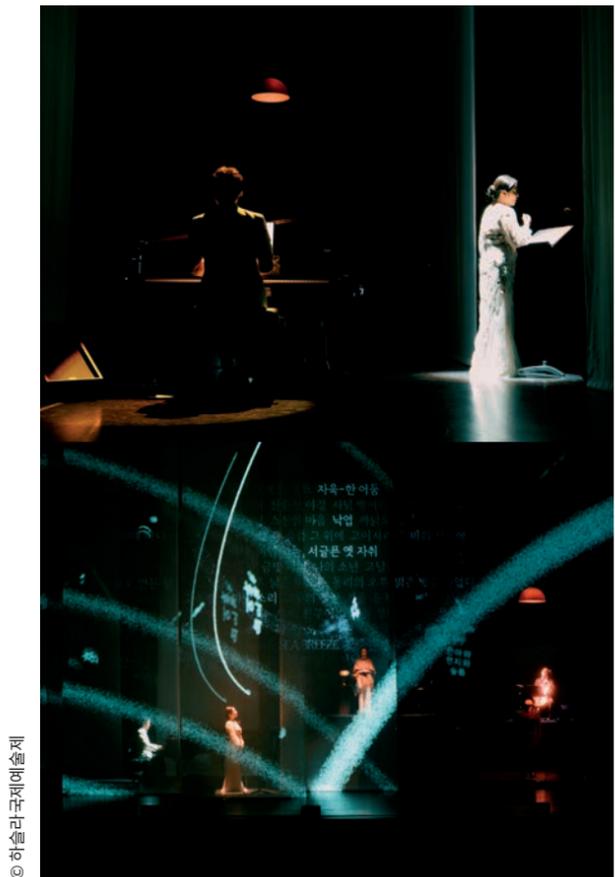
경남도립미술관이 전국 지자체 공립 미술관 중 최초로 이견희컬렉션의 피카소 도예 작품 97점을 전시한다. 도자를 통해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들며 예술적 탐구에 집중한 도예가로서의 피카소를 조명한다. 여인, 동물, 얼굴 등 그의 작업물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모티브와 스페인 출신 작가의 정체성이 담긴 투우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날 기회다. 3층 전시 홀에서는 도자를 제작하고 드로잉하는 과정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피카소를 만나다>를 상영한다.

장소 경남 창원 경남도립미술관 문의 055-254-4634



SHOW

www.local.com 한국잡음연구소



© 하슬라국제예술제



© 국립정동극장

〈추일서정: 김광균〉

서울 04.01
 제3회 하슬라국제예술제의 서막을 알리는 프리뷰 공연이 열린다. 한국 모더니즘 시문학 선구자인 김광균 시인의 대표작 8편을 바탕으로 한 타이포그래피와 김환기, 이중섭 등 그와 교류했던 동료 예술가들의 작품이 미디어 아트로 구현된다. 작곡가 최우정과 연출가 박상연이 시인의 절제된 문장을 무대 언어로 재창조해 관객이 시 속을 산책하는 듯한 무대를 연출한다. 배우 이제훈이 녹음한 김광균의 작품 '노산' 낭독이 공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한다.

장소 서울 GS아트센터
 문의 02-6954-7760



〈키리에〉

서울 03.19~04.15
 제60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연기상(유은숙)·유인촌신인연기상(백성철)의 3관왕을 거머쥐며 관객과 평단의 호응을 이끌어 낸 연극이 돌아왔다. <키리에>는 죽어서 '집'이 된 영혼의 긴 독백으로 시작한다. 30대에 과로사한 한국인 천재 여성 건축가의 의식이 깃든 공간에 삶의 끝을 소망하는 인물들이 찾아온다. 결핍과 결핍을 지닌 사람들이 타인과 교감하며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4월 24일과 25일에는 대전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라 더 많은 관객과 만난다.

장소 서울 국립정동극장 세실
 문의 02-751-1500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KOREA PUBLIC DESIGN AWARDS

2026. 3. 23. — 4. 2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민의 일상 공간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조성하는데 기여한 우수한 사업과 연구를 발굴·시상하여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publicdesign.kr에서 자세한 일정과 공모요강을 확인하세요.

publicdesign.kr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직원에게 자부심 가득한 한국철도공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김태승 제12대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안전 최우선, 통합 비전, 경영 혁신, 친환경 경영, 노사 상생 등 한국철도공사 수장으로서 전방위적 비전과 포부를 밝힌 김태승 사장에게 한국 철도의 미래를 물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강단과 연구실에서 철도 산업 발전을 고민하다 이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며칠간 잠을 설쳤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역할과 선배 철도인들이 일궈 온 100년의 성취가 제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동시에 한국철도공사가 그려 갈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배운 철도'를 넘어 '레일 위에서 숨쉬는 철도'와 함께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최근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히셨듯 '안전 문화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와 구체적 복안이 궁금합니다.

안전은 철도의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 가치입니다. 단순히 설비를 늘리고 시스템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정시 운행보다 안전 운행', '책임 추궁보다 원인 규명'이 우선시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와 로봇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진의 의사 결정으로 즉각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해 안전이 구호가 아닌 '체득된 일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KTX 이용자 입장에서 현재 고속철도 통합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통합 예매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번거로움을 없애고, 주요 노선의 좌석 공급을 늘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간선 교통망을 완성해 그 혜택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서비스 다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계신가요?

일반 철도 노선 길이가 고속철도 노선의 네 배가 넘습니다. 전국으로 뻗은 인프라를 활용해 일반 철도와 화물 철도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 노선의 KTX와 일반 노선의 무궁화호 열차 환승 또는 철도와 지역버스 간 연계 수송이 원활해진다면 실질적인 MaaS(Mobility as a Service)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산 정비창 등 철도 유휴 부지 개발에 힘쓰고, 해외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O&M) 진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취임사에서 언급하신 '에너지 트레인'이 눈에 띄입니다. 친환경 철도 구현을 위해 어떤 미래를 그리시는지요?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탄소를 덜 배출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인 에너지 절감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전국으로 나르는 에너지 트레인을 개발하고, 철도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와 자체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KTX를 타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열사를 포함해 4만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을 이끌려면 노사 화합이 필수적입니다. 본인만의 소통 철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를 넘어 경영 파트너로 봅니다. 특히 조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문제나 업무 변화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것입니다. 사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공감과 신뢰가 생깁니다. '노동 존중'을 고민하는 경영진과 '기업 경쟁력'을 고민하는 노조가 상생하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KTX매거진>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여행길과 출근길에 한국철도공사가 함께해 영광입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채찍질해 주셨던 마음도 철도에 대한 애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언젠가 KTX가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그날, 설레는 여정의 첫 승객 또한 여러분이 되도록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봄의 리듬을 따라 해남

이 계절엔 전남 해남의 색이 한층 더 깊어진다.
한반도 땅끝의 짙푸른 바다, 두륜산을 뒤덮은 연둣빛 나무,
울돌묵을 물들인 붉은 노을, 거리에 만개한 홍매화까지,
봄기운 완연한 해남을 걸었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목포역에서 목포보성선으로 갈아타면 해남역에 도착한다.

안홍범 ©

다도해를 굽어보는 두륜산

여덟개 봉우리가 굽이치는 두륜산은 조선 중기 서산대사 휴정이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을 땅'으로 점찍은 곳이다. 한국 차(茶) 문화의 성지인 대흥사를 품고 있으며, 황홀한 절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케이블카와 스릴 넘치는 카트 레이싱 등 즐길 거리도 다양해 자연의 품 안에서 하루 종일 머무르기 좋다.

호국과 차의 성지, 대흥사

해남 여행의 첫 목적지는 해남반도 끝자락에 우뚝 솟은 두륜산, 그중에서도 크고 작은 봉우리에 둘러싸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대흥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은 514년(백제 무령왕 14년) 승려 아도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대흥사로 향하는 길은 깊고 맑은 숲이 안내한다. 울창한 대숲에서 산책을 즐기다 보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눈앞에 펼쳐진다. 수목이 우거진 풍경이 늘 봄처럼 아름답다는 뜻의 '장춘동'이라 불리는 곳. 걷는 내내 청량한 물소리가 마음의 묵은때를 말끔히 씻어 준다. 해탈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용화당과 관음전이 두륜산 능선과 조화를 이룬다. 금당천을 건너 침계루를 지나면 비로소 대흥보전과 마주한다. 건물 뒤로 펼쳐진 두륜산의 능선이 부처님이 누워 있는 모습을 닮아 예로부터 길한 자리로 여긴 곳이다. 대흥보전 안에는 조선 후기에 만든 목조불과 1901년에 완성한 탱화가 있다. 대흥사는 한국 사찰 중 승탑이 가장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초의선사 부도인 초의 탑과 서산대사 탑 등 50여 개의 승탑을 비롯해 14기의 비석이 자리한다. 여기에 국보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보물 해남 대흥사 삼층석탑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어 한 바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알찬 여행이 된다. '차안에 부처의 진리와 명상의 기쁨이 있다고 여긴 초의선사는 대흥사 계곡에 일지암을 짓고 여기서 40여 년간 수행에 전념하며 차를 연구했는데, 이것이 대흥사가 한국 차 문화의 성지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다.

사찰에서의 여운을 뒤로하고 일주문을 나오는 길, 소담한 돌담 너머로 고즈넉한 한옥 한 채가 눈길을 끈다. 시원하게 뚫린 통창으로 두륜산을 감상하기 좋은 카페 유선이다. 돌담 안으로 들어서면 맑은 계곡과 함께 넓은 정원이 여행자를 반긴다. 따사로운





2



3



4



5

1 카페 유선의 시그너처 메뉴인 해풍속 아인슈페너와 어린잎으로 만든 녹차, 페이스트리에 사과잼을 더한 디저트 애플크라운. 2 한옥 구조와 모던한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룬 카페 유선. 통창 너머로 두륜산의 푸른 자연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3 두륜산 품에 안긴 대흥사는 경내 어디서나 푸릇한 자연을 만난다. 4 두륜산 고계봉 정상을 오가는 케이블카를 타면 해남읍과 월출산, 다도해가 한눈에 담긴다. 5 대흥사 곳곳에 핀 홍매화가 봄이 왔음을 알린다.

봄별이 내리쬐는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시그너처 메뉴인 해풍속 아인슈페너를 주문한다. 우유와 에스프레소, 썬크림이 층을 이룬 아인슈페너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며 씹싸름한 맛도 혀 끝에 남아 묘한 조화를 이룬다. 이곳의 또 다른 인기 메뉴는 '맑은 곳에 올라'.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아리고 고운 찻잎을 우린 녹차로 깊은 향과 건강한 맛이 여독을 기분 좋게 풀어준다.

두륜산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두륜산은 달마산, 금강산, 흑석산과 함께 해남의 4대 명산으로 꼽힌다. 해발 703미터로 가장 높은 봉우리인 가련봉을 비롯해 두륜봉, 고계봉 등 여덟 개 봉우리가 능선을 이루며 다도해와 마주하고 있다. 힘들게 산을 오르지 않고도 이 절경을 온전히 누릴 방법이 있다. 대흥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두륜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8분 만에 고계봉에 오른다. 사면이 통창이라 정상에 오르는 동안 주변 풍경을 파노라마 뷰로 즐길 수 있다. 아담한 집과 논밭이 웅기종기 모인 해남읍부터 수려한 자태의 영암 월출

산, 한반도 지도를 쏙 빼닮은 '한반도 지도 마을'을 차례로 구경하다 보면 어느덧 케이블카가 정상 부근에 닿는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밀려드는 쾌청한 공기에 고도가 높음을 실감한다. 정상까지 이어진 나무 데크를 따라 15분 정도 오르자 단숨에 시야가 트이며 고계봉 정상에 다다른다. 전망대에 서자 발아래 남도의 눈부신 비경이 시야 가득 들어온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125킬로미터 떨어진 제주 한라산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눈 호강을 실컷 하고 두륜산을 내려오니 이번엔 즐거운 비명 소리가 발길을 붙든다. 두륜산 케이블카 탑승장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다. 야트막한 언덕을 따라 꼬불꼬불한 트랙이 늘어서고, 그 위를 카트가 빠르게 미끄러진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며 흘린 듯 험뎠과 장갑을 착용하고 카트 레이싱장 안으로 들어섰다. 간단한 주의 사항을 듣고 카트에 올라타니 우렁찬 엔진음이 울려 퍼진다. 페달을 밟으며 서서히 속도를 높이자 밖에서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짜릿함이 전신을 감싼다. 달리는 내내 아찔한 속도감과 상쾌





1



2



www.torall.com
한국철도공사

4

1 고산윤선도박물관 외관. 2 고산윤선도 박물관에 전시된 국보 윤두서 자화상. 윤두서는 윤선도의 증손자다. 3, 4 두류산 자락에 조성한 카트 레이싱장. 아찔한 경사와 짜릿함 속도감이 매력적이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다. 5, 6 고산 윤선도와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삶을 꾸려온 종가 고택, 녹우당.



3



4

한 바람, 푸릇푸릇한 자연경관이 쾌감을 더한다. 고즈넉한 산속에 이토록 스틸 넘치는 공간이 있다니, 해남 여행의 추억이 한 페이지 더 늘었다.

600년 전통의 종가 고택, 고산윤선도유적지

해남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조선 국문 시가 문학의 거장, 고산 윤선도다. 조선 시대 공조좌랑, 한성부서윤, 사헌부지평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문인으로, 효종이 대군이던 시절 스승이기도 하다. 그는 병자호란 때 왕의 항복 소식을 듣고 비통함을 금치 못해 보길도에 별서정원을 짓고 은거했다. 바로 이때 <오우가> <어부사시사> 같은 당대 최고의 문학작품이 탄생했다. 윤선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고산윤선도유적지는 해남의 중요 여행지로 꼽힌다.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고산윤선도박물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해남 윤씨 어초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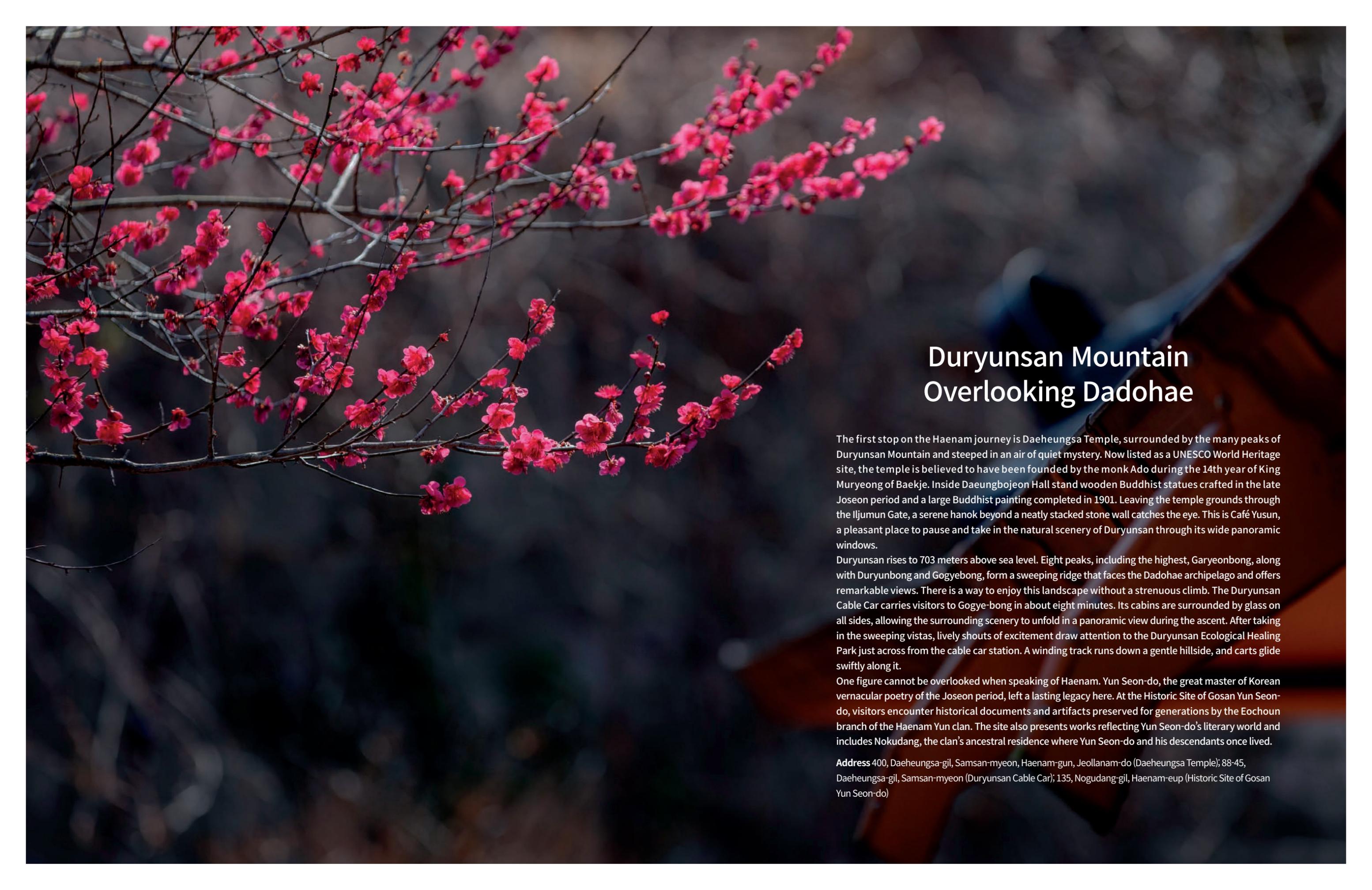
파 종손들이 보존해 온 고문헌과 유물을 비롯해 윤선도의 문학 세계가 담긴 작품, 윤선도의 가야금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 4600여 점을 보관·전시한다. 국보로 지정된 윤두서의 자화상도 소중한 자료로, 강렬한 눈빛과 사실적 묘사가 보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박물관을 나와 5분 정도 걸으면 덕음산 아래 자리한 녹우당을 만난다. 해남 윤씨 어초은공파의 고택으로, 가지런한 돌담과 유려한 기와지붕, 고즈넉한 마당에서 조선 시대부의 품격이 엿보인다. 녹우당은 윤선도와 그의 후손들이 실제 거주한 공간으로 수백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 고택 입구에는 수령 500년 된 높이가 20미터의 은행나무가 우뚝 서 있고, 뒤편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나무 숲이 우거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녹우당의 '녹우(綠雨)'는 비자나무 숲에 바람이 불면 우수수 봄비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해남군청

5



Duryunsan Mountain Overlooking Dadohae

The first stop on the Haenam journey is Daeheungsa Temple, surrounded by the many peaks of Duryunsan Mountain and steeped in an air of quiet mystery. Now lis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e temple is believed to have been founded by the monk Ado during the 14th year of King Muryeong of Baekje. Inside Daeungbojeon Hall stand wooden Buddhist statues crafted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a large Buddhist painting completed in 1901. Leaving the temple grounds through the Iljumun Gate, a serene hanok beyond a neatly stacked stone wall catches the eye. This is Café Yusun, a pleasant place to pause and take in the natural scenery of Duryunsan through its wide panoramic windows.

Duryunsan rises to 703 meters above sea level. Eight peaks, including the highest, Garyeonbong, along with Duryunbong and Gogyebong, form a sweeping ridge that faces the Dadohae archipelago and offers remarkable views. There is a way to enjoy this landscape without a strenuous climb. The Duryunsan Cable Car carries visitors to Gogye-bong in about eight minutes. Its cabins are surrounded by glass on all sides, allowing the surrounding scenery to unfold in a panoramic view during the ascent. After taking in the sweeping vistas, lively shouts of excitement draw attention to the Duryunsan Ecological Healing Park just across from the cable car station. A winding track runs down a gentle hillside, and carts glide swiftly along it.

One figure cannot be overlooked when speaking of Haenam. Yun Seon-do, the great master of Korean vernacular poetry of the Joseon period, left a lasting legacy here. At the Historic Site of Gosan Yun Seon-do, visitors encounter historical documents and artifacts preserved for generations by the Eochoun branch of the Haenam Yun clan. The site also presents works reflecting Yun Seon-do's literary world and includes Nokudang, the clan's ancestral residence where Yun Seon-do and his descendants once lived.

Address 400, Daeheungsa-gil, Samsan-myeon, Haenam-gun, Jeollanam-do (Daeheungsa Temple); 88-45, Daeheungsa-gil, Samsan-myeon (Duryunsan Cable Car); 135, Nogudang-gil, Haenam-eup (Historic Site of Gosan Yun Seon-do)

한반도의 시작 땅끝마을

달마산의 기암괴석을 병풍 삼아 자리한
미황사에서 천년 고찰의 고즈넉한 정취를 만끽하고,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을 찾아 유구한 세월 동안
바다를 지킨 수많은 생명을 마주한다.
땅끝전망대에 올라 육지의 끝과 바다의 시작이 맞닿은
장대한 풍광도 바라봤다.

달마산에 안긴 사찰, 미황사

1500여 년 전 중국 고승 달마대사가 머물렀다 하여 이름 붙은 달마산은 소백산맥이 두륜산을 거쳐 땅끝을 향해 뻗어 내려가다 남해에 이르기 전 마지막으로 힘을 쏟아 낸 바위산이다. '남도의 금강산'이라 칭송할 만큼 산세가 수려해 해남의 4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힌다. 달마산 중턱에는 고즈넉한 사찰 하나가 자리한다. 등 뒤로 거칠게 솟은 기암괴석을 둘러치고, 앞쪽으로는 평화로운 다도해를 마주한 미황사다. 750년(신라 경덕왕 8년) 창건한 이 사찰은 오랜 세월 불교의 요람 역할을 했다. 달마산의 능선과 어깨를 나란히 한 대웅보전의 자태만 봐도 위용이 느껴지는 미황사는 한때 열두 개의 암자를 거느리기도 했다. 도시와 완벽히 차단된 덕분에 생각을 비우고 싶은 이들이 즐겨 찾는 템플스테이 명소로 사랑받는다.

현재 미황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암자인 도솔암을 찾아가기 위해 달마고도에 오른다. 총길이 17.74킬로미터에 달하는 보행로로 과거 달마대사가 다니던 길을 새롭게 단장해 2017년에 개통했다. 미황사에서 출발해 능선에 오르자 탁 트인 조망이 눈앞을 가득 채운다. 층층이 겹쳐진 능선과 점점이 박힌 남해의 섬들이 어우러진 풍경에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진다. 큰바람재와 물고리재를 지나면 가파른 암벽 위 바위에 둘러싸인 도솔암이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도솔'은 미륵보살이 머무는 천상 세계를 뜻하는데, 이름처럼 세상의 끝에 다다른 듯 신비로운 풍광을 자랑한다. 소백산맥의 수려한 산세가 도솔암을 감싸듯 펼쳐지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배경은 온통 푸르다.

심해를 여행하는 시간,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달마산에서 내려와 땅끝으로 향하는 길목, 건물 위에 올라앉





1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미항사 저녁 해가 처마 끝에 달린 풍경에 걸렸다.
 2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전시장. 검푸른 조명 아래 범고래와 백상아리, 가오리 등의 실물 표본을 전시해 마치 심해로 들어온 듯하다. 3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외관. 건물 위에 올라앉은 대왕문어와 입을 크게 벌린 상어모형이 눈길을 끈다. 4 땅끝 꿈길랜드의 스카이워크. 바닥을 투명한 유리로 제작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든다.
 5 한반도 육지의 끝과 바다의 시작이 한눈에 담기는 땅끝전망대.



은 대왕문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자연사박물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바다에 사는 화석류와 어류를 전시하는데, 그 규모가 무려 2700여 종 15만여 점에 이른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많은 전시품이 모두 실제 자연 표본이라는 것. 과거 원양어선 선장이었던 임양수 관장이 1979년부터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직접 모은 수집품이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캄캄한 전시장에 푸른 조명이 켜져 마치 바닷속 깊이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관람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천장에 매달린 대왕고래 뼈. 총길이 2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에 입이 떡 벌어진다. 모래사장파 산호초로 꾸민 양쪽 벽면에는 다채로운 물고기 표본이 자유롭게 걸려 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음 전시관으로 가면 더 깊은 심해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다. 검푸른 조명 아래 밍크고래와 범고래, 백상아리, 가오리가 공중에 떠 있는데 금방이라도 헤엄쳐 나갈 듯 생생하다.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다양한 바다 생물을 만난다. 극지방에 사는 펭귄부터 갯벌의 주인 도요새,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악어 등의 실물 표본과 정교하게 재현한 전시 공간이 높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는 땅끝관광지

한반도 최남단에 자리한 해남, 그중에서도 국토 끝자락에 땅끝관광지가 있다. 시작은 갈두산 사자봉 정상에 자리한 땅끝전망대. 떠오르는 햇살을 형상화한 독특한 외관이 시선을 끈다. 꼭대기 층인 9층 전망대에 오르면 땅끝대해가 파노라마 뷰로 펼쳐져 가슴이 뻥 뚫린다. 발아래 보석처럼 박힌 다도해의 작은 섬들도 특별한 볼거리다. 모노레일을 타면 땅끝마을에서 땅끝전망대까지 단 7분 만에 닿는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두 발로 직접 땅끝을 밟아 보기로 한다. 북위 34도 17분 32초, 육지 끝에 자리한 땅끝담이다. 과거에는 땅끝전망대에서 가파른 길을 넘어와야 했지만, 최근 무장애 걷기 길인 '땅끝 꿈길랜드'를 조성해 누구나 편하게 찾아갈 수 있다. 해안가를 따라 나무 데크 보행로를 설치했는데 경사가 완만해 여유롭게 바다 풍경을 즐기며 걷기 좋다. 모노레일 매표소에서 시작해 5분쯤 걸자 기념사진 명소인 스카이워크가 나타난다. 길이 41미터로 전 구간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바다 위를 거니는 듯 짜릿하다. 여기서부터 10여분 더 발걸음을 옮기면 거대한 삼각뿔 형태의 땅끝담이 나온다. 바다를 향해 꿈을 싣고 나아가는 배의 돛을 형상화했는데,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



Ttangkkeut Village, the Southernmost Point of the Korean Peninsula

Dalmasan Mountain is said to have been named after the Chinese monk Bodhidharma, who is believed to have stayed here more than 1,500 years ago. Its striking ridgelines have earned it the nickname “Geumgangsan of the South,” and it is counted among Haenam’s four most celebrated mountains. Halfway up the slopes sits a quiet temple. With rugged rock formations rising behind it and the calm waters of the Dadohae archipelago stretching out before it, Mihwangsa Temple occupies a dramatic setting. To reach Dosolam Hermitage, the only hermitage that remains at Mihwangsa today, visitors follow the Dalmagodo Trail. This 17.74-kilometer walking route traces the path once traveled by Bodhidharma and was newly developed and opened in 2017.

Descending from Dalmasan on the way to Ttangkkeut, a giant octopus perched atop a building quickly catches the eye. This is the Ttangkkeut Marine Natural History Museum, the largest marine natural history museum in Korea. As its name suggests, it presents fossils and marine species from the sea, with an impressive collection of more than 150,000 specimens representing around 2,700 species.

Haenam lies at the south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ithin it stands Ttangkkeut Village. From the Ttangkkeut Observatory, whose exterior resembles a blazing torch, visitors take in sweeping panoramic views of the open sea. A monorail connects Ttangkkeut Village to the observatory in about seven minutes. Walking along the barrier-free path known as the Ttangkkeut Dream Trail also leads to the Ttangkkeut Tower, which marks the southernmost point of the mainland.

Address 164, Mihwangsa-gil, Songji-myeon, Haenam-gun, Jeollanam-do (Mihwangsa Temple); 89, Ttangkkeunmaeul-gil (Ttangkkeut Marine Natural History Museum); 100, Ttangkkeunmaeul-gil (Ttangkkeut Observatory)





© 해남공룡박물관

끊이지 않는 즐거움 우수영 권역

산이정원과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자연이 내주는 휴식을 누리고, 명랑해전의 격전지
울돌목과 공룡 발자국을 간직한 박물관에서
해남이 품은 생생한 역사를 마주했다.

지구의 시간을 건너, 해남공룡박물관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에 발을 들이면,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8500만 년 전 아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식공룡과 육식공룡, 하늘을 나는 익룡 등 중생대 백악기 시대 공룡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익룡 발자국은 무려 443점에 이르는 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 해남공룡박물관을 세운 이유다.

박물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중생대를 호령하던 티라노사우루스를 생생하게 재현한 중생대재현실이 자리한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실감 나는 움직임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하다. 국내 최초의 해양과충류실과 중생대익룡실을 차례로 둘러본 뒤 전시장 밖으로 나오면 백악기 후기 공룡 조바리아를 만난다. 조바리아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니제르 지역에서 발견된 백악기 후기 공룡으로, 높이 21미터의 거대한 몸집이 시선을 압도한다.

야외 정원에는 여유롭게 거니는 공룡도 있다. 태고의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공룡 조형물을 따라 걷다 보면 수만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공원 내에는 대형공룡관, 익룡조류관, 조각류공룡관 등 실제 공룡 발자국을 보여주는 전시관도 있다. 그중 우항리에 유독 많은 공룡 발자국의 주인공, 익룡의 흔적을 다룬 익룡조류관을 찾았다. 전시관 내에 길게 늘어선 바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크고 작은 익룡 발자국이 한가득이다. 아시아 최초로 발견된 익룡 발자국 443점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새 발자국 1000여 점이다.

해남공룡박물관에서는 매년 어린이날 전후로 해남공룡대축제가 열린다. 공룡가족음악회, 낙화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해 공룡을 좋아하는 이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심의 세계로 빠져든다. 축제 기간에는 박물관을 무료 개방하니 해남이 품은 공룡 이야기를 마음껏 즐겨보자.



자연과 예술의 만남, 산이정원 & 오시아노 관광단지

우수영 권역에 울돌목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영암호와 금자천으로 둘러싸인 해남군 산이면 끝자락에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지가 있다. '산이 정원이 된다'는 뜻의 산이정원이다. 산이면에 개발 중인 미래 도시 '솔라시도'의 랜드마크로 조성한 이곳은 '미래와 함께하는 정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년 5월 문을 열었다. 산이정원으로 향하는 길, 영암군에서 삼포대교를 건너자마자 완만한 언덕빛 구릉과 바다처럼 드넓은 영암호가 펼쳐진다.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싱그러움 풍경이다.

약 5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공원에는 저마다 다른 매력을 품은 테마 정원이 가득하다. 가장 먼저 방문객을 반기는 맞이정원을 시작으로 잔잔한 수면 위로 초록빛 풍경이 비치는 물이정원, 화려한 꽃과 풍성한 덩굴식물이 어우러진 서약의 정원을 차례로 걸어 본다. 중간중간 자연의 일부처럼 녹아든 예술 작품이 산책의 즐거움을 더한다.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은 유명호 작가의 '브리지 오브 휴먼'이 자리한 하늘마루. 몸을 숙이고 양팔을 벌려 사람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인을 마주하니 어쩐지 숙연해진다. 양팔 위에는 42명의

사람이 올라타 있는데, 이 작품은 지구와 환경, 인간과 자연, 모든 생명을 포용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존재하는 조형물과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전한다.

산이면에서 금호도를 지나 화원면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남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나타난다. 남도의 쪽빛 바다를 품은 휴양지, 오시아노 관광단지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이면 오시아노 캠핑장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로 북적인다. 파쇄석과 잔디, 텍 등의 오토캠핑 사이트와 캐러밴이 마련돼 어디에 머물러도 완벽한 바다 전망을 누릴 수 있다. 캠핑장 아래쪽의 오시아노해수욕장은 수중보를 설치해 파도가 잔잔한 것이 특징이다. 갯벌에 모래를 덮어 모래사장을 조성한 덕분에 밀물과 썰물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연출된다. 해 질 녘이면 커다란 카메라를 든 사진작가들이 앞다퉈 찾아올 만큼 환상적인 낙조도 빼놓을 수 없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옆 나무 벚을 따라 걷다 보면 바다를 향해 비죽 솟은 전망대가 나온다. 사면과 바다가 투명한 전망대 끝자락에 선베드 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어 잠시 쉬어가기로 한다. 향긋한 봄바람을 맞으며 햇빛에 반짝이는 윤슬을 보고 있으니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1,3 해남 공룡박물관에서는 생생하게 재현한 공룡을 만날 수 있다. 2 해남공룡박물관의 귀여운 포토존. 4 하늘마루에 자리한 유명호 작가의 '브리지 오브 휴먼'. 5 오시아노 해수욕장을 따라 늘어선 캐러밴. 이곳에서는 하늘과 바다를 온통 주홍빛으로 물들이는 황홀한 노을을 보며 캠핑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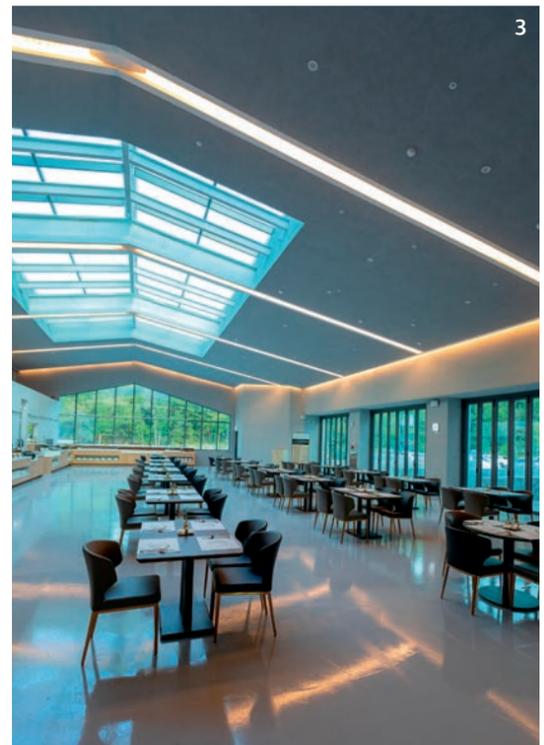


1

© 해남관광공사



2



3



4



5

1명랑해상케이블카에 오르면 이순신 장군 동상과 길이 484미터의 진도대교, 거세게 몰아치는 울돌목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진다. 2층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명랑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3호텔 울돌소리의 레스토랑 '라운지 1597'. 사방을 통유리로 마감했으며 천장에도 유리창을 내 계절의 변화를 물씬 느낄 수 있다. 4 꽃과 덩굴 식물로 가득한 채플이 있는 서약의 정원. 5 울돌목의 파도를 형상화한 호텔 울돌소리의 로고.

격정적인 역사현장, 우수영국민관광지

진도와 해남 사이, 바닷물이 차고 빠지며 하루 네 번 조류가 거 세계 부딪힌다. 1597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빠른 유속을 활용하여 명랑대첩의 신화를 쓴 해협, 울돌목이다. '우는 바다 길목'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실제 거친 파도 소리가 거대한 짐승이 우는 것처럼 들린다. 울돌목 주변에 조성한 우수영국민관광지에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명랑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을 비롯해 울돌목의 파도를 받아래로 내려다보는 스카이워크,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관군의 전투 모습을 재현한 조각상 등이 있다. 우수영국민관광지의 하이라이트는 이 모든 명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랑해상케이블카다. 해남에서 진도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흔들림 없이 운행해 여유롭고 편안하게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해 질 무렵이면 하늘과 바다를 온통 붉게 물들이는 황홀한 노을까지 감상할 수 있다.

제작 지원 해남관광공사

지난해 10월 호텔 울돌소리가 문을 열면서 우수영국민관광지에서 숙박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마땅한 숙박 시설이 없어 생생한 역사 현장과 넘치는 즐길 거리를 당일치기로 경험하는 것이 아쉬웠는데, 해남군이 이런 여행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울돌목 근처에 호텔을 조성한 것이다. 총 32개 객실은 슈페리어 더블, 패밀리 스위트, 로열 스위트, 핸디캡 더블(장애인실) 등 여섯 개 타입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원한 창과 우드 톤 인테리어가 아늑한 휴식을 선사한다. 전면을 통유리로 마감해 개방감이 뛰어난 레스토랑 '라운지 1597'에서의 조식도 놓치지 말자. 천장에도 유리창을 내 아침 햇살이 양껏 쏟아지고, 지역의 제철 식재료로 차린 건강한 한 끼가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채워준다. 어느덧 잔잔해진 울돌목을 바라보며 여행을 마무리한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라 했던가. 해남 땅을 밟던 발걸음이 다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간다.

Endless Discoveries in the Woosooyoung Area

At the far edge of Sani-myeon in Haenam-gun, where Yeongam Lake and Geumja Stream meet, lies Sani Garden, whose name reflects the idea that “the mountain itself becomes a garden.” Spanning about 530,000 square meters, this vast park features a variety of themed gardens, each with its own character. One of the most memorable spots is the Gallery Garden, home to Yoo Young-ho’s Bridge of Human. The giant figure, bending forward with arms stretched wide as if becoming a bridge for people to cross, immediately captures att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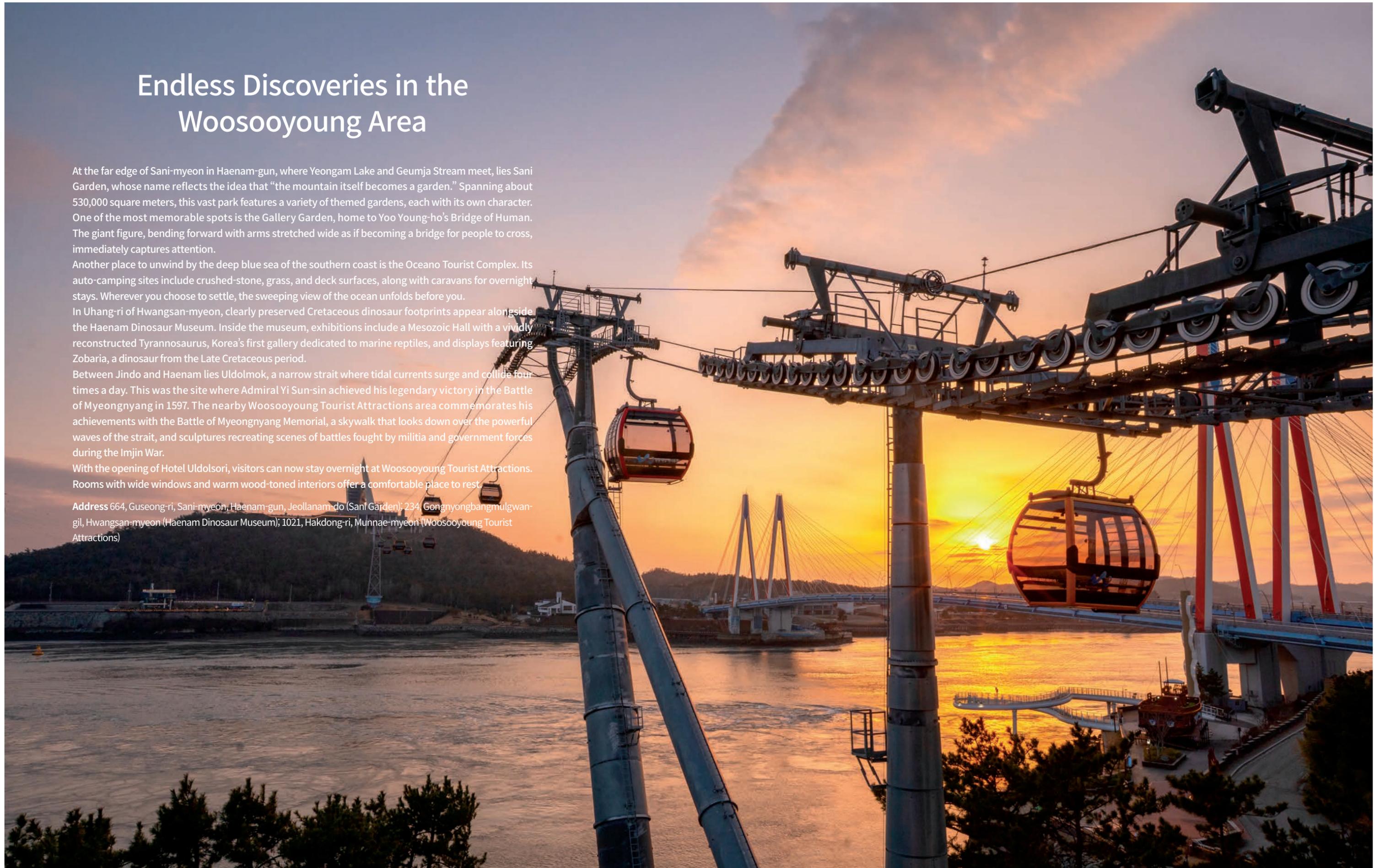
Another place to unwind by the deep blue sea of the southern coast is the Oceano Tourist Complex. Its auto-camping sites include crushed-stone, grass, and deck surfaces, along with caravans for overnight stays. Wherever you choose to settle, the sweeping view of the ocean unfolds before you.

In Uhang-ri of Hwangsan-myeon, clearly preserved Cretaceous dinosaur footprints appear alongside the Haenam Dinosaur Museum. Inside the museum, exhibitions include a Mesozoic Hall with a vividly reconstructed Tyrannosaurus, Korea’s first gallery dedicated to marine reptiles, and displays featuring Zobaria, a dinosaur from the Late Cretaceous period.

Between Jindo and Haenam lies Uldolmok, a narrow strait where tidal currents surge and collide four times a day. This was the site where Admiral Yi Sun-sin achieved his legendary victory in the Battle of Myeongnyang in 1597. The nearby Woosooyoung Tourist Attractions area commemorates his achievements with the Battle of Myeongnyang Memorial, a skywalk that looks down over the powerful waves of the strait, and sculptures recreating scenes of battles fought by militia and government forces during the Imjin War.

With the opening of Hotel Uldolsori, visitors can now stay overnight at Woosooyoung Tourist Attractions. Rooms with wide windows and warm wood-toned interiors offer a comfortable place to rest.

Address 664, Guseong-ri, Sani-myeon, Haenam-gun, Jeollanam-do (Sani Garden); 234, Gongnyongbangmulgwangil, Hwangsan-myeon (Haenam Dinosaur Museum); 1021, Hakdong-ri, Munnae-myeon (Woosooyoung Tourist Attractions)



단종의 한 서린 땅, 영월

1457년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이 열일곱 살에 한양을 떠나 강원도 영월로 유배됐다. 생애 마지막 넉 달 동안 그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곳에 새겨진 애달픈 역사를 되짚어본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영월역까지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1 영월 장릉의 단종역사관에 소장된 단종어진. 생존 시 모습을 그린 작품이 없어 사료와 기억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2 거대한 돌기둥이 마치 신선이 서 있는 모습 같다 하여 이름 붙은 선돌.

전국이 단종왕이로 들끓고 있다. 지난 2월 4일 개봉해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여파다. 한국 영화 최초로 유배를 떠난 단종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이 작품은,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른 엄홍도에 대한 짧은 기록에 상상력을 덧입힌 픽션 사극이다. 영화에 깊이 몰입한 관객들은 N차 관람으로 애정을 드러냈고, 여운을 달래기 위해 작품의 배경이 된 영월을 찾는 발걸음도 부쩍 늘었다. 영화를 본 이라면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 극적인 상상을 견어 낸 역사 속 단종은 생애의 마지막 닉 달을 어디에서, 어떻게 건졌을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영월로 향했다.

유배길에 오른 어린 왕

1441년(세종 23년) 7월 23일 왕실이 오래도록 기다린 적통 후계자가 태어났다. 문종과 세자빈 권씨 사이에

서 태어난 이홍위, 훗날의 단종이다. 그의 삶은 출생 직후부터 순탄치 않았다. 단종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어머니 헌덕왕후 권씨가 산후병으로 눈을 감았고, 다섯 살 때 할머니 소원왕후 심씨가 숨을 거뒀다. 손자를 금쪽같이 아끼던 할아버지 세종에 이어 아버지 문종마저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열두 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단종 곁에는 그를 보호해 줄 왕실 어른이 아무도 없었다. 홀로 남겨진 어린 왕은 나약했고, 국정은 자연스레 대신들의 손에 넘어갔다.

정세가 위태롭던 1453년 계유년, 피바람이 불었다. 숙부 수양대군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킨 것이다. 황보인과 김종서 등 어린 왕을 보필하던 대신들이 죽음을 당하자 무력감에 짓눌린 단종은 끝내 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수양대군은 곧 왕으로 즉위했다. 이후 조정 안팎에서 단종 복위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병자년에 사육신의 단종 복위 모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1457년(세조 3년) 단종은 결국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그해 6월 유배길에 오른다. 목적지는 남북으로 태백산맥이, 동서로 소백산맥이 둘러싼 산간 고을, 영월이었다.

험난한 유배길 도중 그의 발걸음을 붙든 것은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이었다. 칼날처럼 깎아지른 돌기둥 사이로 서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 *단종의 눈에는 돌기둥이 마치 신선이 서 있는 모습 같았다 하여 '신선암' 또는 '선돌'이라 불린다. 선돌은 약 5억 년 전 고생대에 형성된 석회암 지층이 오랜 풍화와 침식을 거치며 남겨진 기둥 모양의 기암괴석이다. 절벽 곳곳에 뿌리 내린 나무와 꽃이 계절마다 다른 빛깔의 풍경을 펼친다.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절경에 매료된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절벽 사이를 나는 새도 그 풍경에 반해 바위틈에 내려앉아 잠시 쉬어간다.

자연이 만든 감옥에 갇히다

선돌에서 서강을 따라 내려오면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에 닿는다. 서강이 동·남·북 삼면을 감싸 흐르고 서쪽은 육육봉 절벽이 막아선, 육지 속 섬과도 같은 땅. 선돌에서 청령포까지 거리는 차로 7분 남짓에 불





청령포 주소 강원도 영월군 남면 방절리 237 문의 033-372-1240

과하지만, 유배길에 오른 단종은 배와 가마로 번갈아 이동하며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지금도 청령포에 가려면 배를 타야 한다. 1~2분가량 짧은 뱃길을 건너 자갈밭을 지나면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온다.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늘을 가린 나무들이 햇빛을 막아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낮은 담장 너머 기와집과 초가집이 모습을 드러낸다. 단종이 머물던 어소, 궁녀와 관노가 지내던 행랑채다. 어소 안을 들여다보니 창가에 앉아 서책을 읽는 단종과 그 곁을 지키고 선 신하를 재현한 밀랍 인형이 놓여 있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생생한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자 강대길 문화관광해설사가 말을 건넨다. “단종 어소는 <승정원일기>를 바탕으로 복원한 건물이에요. 단종의 모습을 밀랍 인형으로 재현했는데, 그 뒤로 주변 소나무들이 하나둘 어소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울어진 소나무들을 빙 둘러보니 담장을 받침대 삼아 몸을

완전히 누운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온다. 임금에게 배알하는 신하의 모습과 닮아 ‘엄홍도송’이라 불리는 소나무다. “청령포로 유배 온 단종은 밤마다 통곡했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들은 엄홍도가 관군의 눈을 피해 강을 헤엄쳐 건너와 밤새 단종 곁을 지키며 위로했다고 전해지지요. 그가 임금을 배알하던 자리에서 자란 소나무가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나무가 휘면 뿌리가 들리기 마련인데 꺾꽂이 버티고 있으니 참 신기한 일이에요.” 가히 기적이라 할 만한 기묘한 현상이다. 엄홍도송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어 숲을 올라다본다. 세상과 단절된 어린 왕을 나무도 가엽게 여긴 걸까. 소나무들이 단종 어소를 향해 일제히 몸을 기울여 에워싼 채 말없이 위로를 건네는 듯하다. 어소를 나와 나무 텍을 따라 걷다 보면 출입 금지를 알리는 금표가 나타난다. 1726년(영조 2년) 영월 부사 윤항래가 청령포 훼손을 막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석회암이 섞인 돌이라 부식되기 쉬웠지만, 한 백성이 금표 위에 큰 돌을 얹어 보호한 덕분에 세월이 지나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청령포에는 단종의 유일한 친구로 전해지는 나무도 있다. 관음송이다. 그의 애처로운 모습을 지켜봤다 하여 ‘불 관(觀)’, 슬픈 목소리를 들었다 하여 ‘소리 음(音)’ 자를 붙였다. 큰 키와 함께 두 갈래로 갈라진 줄기가 눈길을 끄는데, 단종이 그 사이에 걸터앉아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 나무에는 단종의 영혼이 깃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나라에 재앙이 닥칠 때마다 나무 색이 변해 이를 알렸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 바로 나무에 깃든 영묘한 힘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는 밀동부터 가지까지 새까맣게 변했다가 전쟁이 끝나자 다시 본래 색을 되찾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관음송 둘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생겼다. 나무를 친철히 돌며 소중한 이의 안녕을 마음속으로 빌어 본다.

단종의 손때가 묻은 유일한 흔적이 있다는 말에 전망대로 향하는 계단을 오른다. 숨이 가빠질 즈음 작은 돌담 하나를 마주한다. 한양에 두고 온 정순왕후를

1 소나무들이 단종 어소를 향해 일제히 몸을 기울여 에워싼 채 말없이 위로를 건네는 듯하다. 2 단종 어소를 향해 몸을 완전히 누운 엄홍도송. 3 단종이 한양에 두고 온 정순왕후를 그리며 돌 하나씩 쌓아 올린 망향담.



그리워하며 단종이 절벽 부근의 돌을 하나씩 쌓아 올렸다는 망향담이다. 청계천 영도교에서 유배 행렬을 바라보며 눈물 짓던 왕후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남았을까. 남작하고 새까만 돌들이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단단히 맞물려 있다. 망향담을 뒤로하고 다시 배를 타러 가는 길, 자갈밭에 크고 작은 돌담이 수없이 많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쌓아 올린 것이다. 어린 왕의 영혼을 위로하는 마음이 자갈밭의 돌담처럼 조용히 쌓여간다.

소쩍새 울음이 흐르는 누각

자연이 만든 감옥, 청령포에서의 유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유배 온 지 두 달쯤 지나 여름 장마가 들면서 강물이 불어났고, 결국 영월 관아의 동헌이던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영월 읍내 한복판에서면 기와지붕을 얹은 정문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온다. 야트막한 돌담 너머로 관풍헌 건물과 동쪽의 누각 하나가 남아 있는데, 단종이 이 누각에 자주 올라 시를 읊었다고 한다. 바로 ‘자규시’다. 자규는 소쩍새를 이르는 말로, 단종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비통한 심정을 소쩍새에 빗대어 노래했다.

“원통한 새 한 마리 궁궐에서 쫓겨나/ 짙지을 그림자





1 어소에서 서책을 읽고 있는 단종과 그 곁을 지키고 선 신하를 재현한 밀랍 인형. 2 영월 읍내 한복판에 자리한 관풍헌과 자규루. 3 유배 시절에 단종의 유일한 친구였던 관음송. 단종이 두 갈래로 갈라진 줄기 사이에 걸터앉아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관풍헌 주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61

241년만에 왕릉이 되다

관풍헌을 나서면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영월 장릉으로 향한다. 조선 왕릉 가운데 가장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단종 능이다. 본래 조선의 왕릉은 한양에서 100리 안에 모시는 것이 관례였다. 임금이 능행을 갔다가 번고가 생겨도 하루 안에 대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영월은 한양에서 500리가 훌쩍 넘는 곳에 위치한다. 단종이 이곳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권력 다툼 속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은 단종의 시신은 영월 읍내를 흐르는 동강과 청령포 앞 서강이 만나는 남한강 발원지에 버려졌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죽을 멸하겠다는 엄명이 내려졌기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때 영월 호장 엄홍도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두어 선산에 가매장했다. 묘의 높이는 겨우 60센티미터 남짓이었다. 영월 백성들은 이후 오랫동안 안누군가 묘를 훼손할까 염려하며 몰래 제사를 지냈

도 없는 외로운 몸 산속을 떠도네/ 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들지 못하고/ 해가 지고 해가 와도 한은 끝없어라/ 자규 울음소리 꿩길 듯 가늘게 이어지는 새벽 산마루엔 어스름 달빛이 비치고/ 봄 골짜기엔 피 흘린 듯 떨어진 꽃잎만 붉구나/ 하늘은 귀가 멀어 이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 수심 많은 사람의 귀에 만 이리 또렷하게 들리는가.”

시 속 절규가 마음을 파고든다. ‘자규시’가 전해지면서 후대에 누각 이름도 매죽루에서 자규루로 바뀌었다. 지금도 누각 앞뒤에 ‘매죽루’와 ‘자규루’ 두 개의 현판이 함께 걸려 있다. 관풍헌은 1457년 10월 24일 단종이 생을 마감한 곳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둘러싼 기록은 서로 엇갈린다. <세조실록>에는 금성대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매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선조실록>에는 세조가 사약을 내렸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또 조선 후기의 야사 총서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단종을 모시던 통인 하나가 활줄로 목을 졸랐다고 한다. 진실은 끝내 알 수 없지만 열일곱 살 어린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맞았으니 그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저릿하다. 소쩍새 울음에 빗대어 남긴 단종의 절규가 지금도 이곳 어딘가에 맴도는 듯하다.



3



영월 장릉 주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90 문의 033-374-4215

다고 한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241년이 지난 1698년(숙종 24년)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위되면서 묘는 왕릉의 격식을 갖춰 영월 장릉에 자리 잡았다. 영월 장릉은 일반 왕릉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완만한 구릉 대신 가파른 산비탈에 봉분이 자리하고, 홍살문에서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참도는 일직선이 아닌 기역(ㄱ)자로 꺾여 있다. 엄홍도가 급히 암장한 묘자리와 산세를 그대로 살려능을 조성하다 보니 기존 관례를 벗어났다. 이곳에는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단종의 충신을 위한 건조물도 존재한다.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종친과 궁녀, 노비 등 268명의 위패를 모신 장관옥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엄홍도의 충절을 기리는 정려각이 대표적이다. 비극적 운명의 어린 왕을 끝까지 지킨 백성의 충심이 끝내 이곳을 왕릉으

로 만들었다. 발걸음을 옮겨 능역을 오른다. 양옆으로 왕을 호위하듯 늘어선 소나무를 따라 걷다 보면 '정령송'이라 불리는 소나무 한 그루를 만나게 된다. 1999년 정순왕후 능인 사릉에서 옮겨 심은 나무로, 사후에라도 두 사람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령송을 지나 봉분을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작고 소담하다. 숙종이 장릉을 정비할 때, 조선 왕릉 중에서도 석물 규모를 매우 작게 두는 후릉 양식을 따르도록 지시했기에 단종릉에는 생략된 것이 많다. 석호와 석양이 각각 4기씩 놓인 다른 왕릉과 달리 단종릉에는 각각 한 쌍만 있고 병풍석과 난간석, 무인석도 없다. 대신 이곳에는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들고 가장 늦게까지 머문다. 형태는 없지만 온기를 지닌 햇살이 어린 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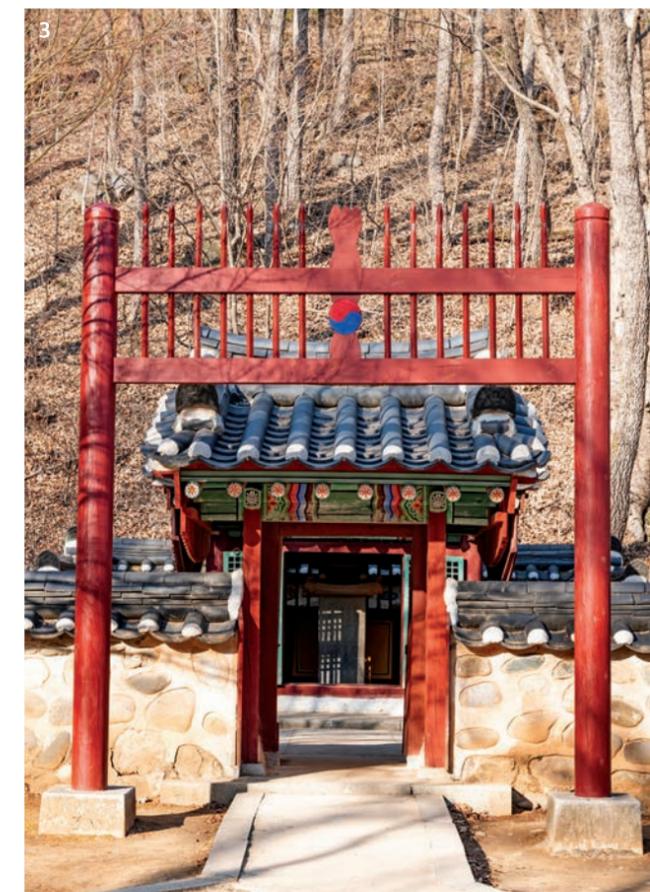


2

- 1 엄홍도가 급히 암장한 묘자리와 산세를 그대로 살려능을 조성하다 보니 홍살문에서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참도가 기역(ㄱ)자로 꺾여 있다.
- 2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한 단종릉.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그 곁을 지키고 서 있다.
- 3 엄홍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엄홍도 정려각.

곁을 따스하게 지키고 있다.

단종이 왕으로 복위된 뒤 영월 장릉에서는 해마다 제향을 올린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의 넋을 위로하고, 그를 지킨 이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단종문화제로 이어졌다. 올해로 59회를 맞는 축제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단종 국장 재현을 비롯해 단종 제향, 가장 행렬 등 단종의 삶과 가치를 되새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올해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못다 한 인연을 기리는 가례 재현을 처음 선보인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어린 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시 장릉을 찾아와 한마음으로 그의 넋을 기릴 것이다. 그 마음이 570년 세월을 건너 단종에게도 전해져 조금은 평안해지기를 바라 본다.



3

어수리로 차린 영월의 밥상

영월에서 단종의 흔적을 따라 걷다 보면 그의 삶과 얽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려온다. 그중에는 단종이 즐겨 먹었다는 어수리나물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영월 백성들이 산에서 캔 어수리로 만든 나물을 단종에게 올리자 단종이 그 맛을 보고 정순왕후의 연한 분향을 떠올리며 자주 찾았다는 이야기다. 어수리는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깊은 산에서 자라며, 조선 시대 임금 수라상에 오르던 진상 나물로도 알려져 있다. 어린 왕의 사연이 깃든 이 나물은 오늘날 영월을 찾는 여행객들이 즐겨 먹는 향토 별미가 되었다.

어수리나물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 박가네를 찾았다. 영월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이 식당은 원래 곤드레나물밥으로 유명했는데, 박금순 대표가 오랜 연구 끝에 2020년 어수리나물밥을 선보이면서 영월을 대표하는 특화 음식점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 메뉴는 '어수리 더덕 정식'. 가마솥에 어수리나물을 넣고 지은 밥에 더덕구이를 곁들인 상차림으로, 막장으로 끓인 된장찌개와 각종 산나물 반찬이 상위를 빈틈없이 채운다. 박가네의 어수리나물밥은 말린 것이 아닌 생나물을 사용해 향과 식감이 더욱 또렷하다. 무쇠솥의 뚜껑을 여는 순간 초록빛의 어수리나물밥이 시



1



2

1 어수리 솔밭과 더덕구이, 각종 밑반찬이 한상 가득 차려지는 어수리 더덕 정식.
2 선명한 녹색빛이 어수리의 존재감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어수리 카스텔라와 어수리 라테.

제작 지원 영월군청

선을 압도하고 구수하고 향긋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한다. 곤드레나물밥보다 부드럽고 달짝지근하면서도 씹새래한 뒷맛이 은은하게 올라와 매력적이다. 특히 양념간장 한 숟갈을 넣어 고루 비빈 뒤 고추장 양념이 잘 밴 더덕구이를 얹어 먹으면 풍미가 한층 깊어진다. 어수리나물밥은 어떤 반찬과도 궁합이 좋다. 특히 반죽에 어수리를 갈아 넣어 부친 어수리전과 시금치 대신 어수리를 넣은 잡채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다. 삼삼국화나물, 곰취, 두릅, 가축나물, 고사리 등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물 반찬을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어수리의 변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동강둔치에 자리한 우리빵에서는 어수리를 활용한 이색적인 빵과 음료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영

월산 어수리와 꿀을 넣어 구운 '어수리 카스텔라'. 우리빵의 최종권 대표가 성원진 제빵사와 함께 1년 넘게 연구해 최상의 맛을 구현해 냈다.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해 덜 달고, 어수리 특유의 향긋함이 스며들어 먹을수록 그 맛에 빠져든다. 단면에 선명한 녹색이 드러나고, 윗면에는 가래복을 입은 단종과 정순왕후 캐릭터가 나란히 찍혀 있다. 이름은 '꽃길만카스텔라'. 두 사람이 하늘에서라도 꽃길만 걷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한 손님의 요청으로 탄생한 '어수리 소금빵'도 인기 메뉴다. 카스텔라보다 어수리 향이 은은하고, 다음 날 먹어도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 있다. 최근에는 '어수리 라테'도 선보였다. 싱그러운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기분까지 산뜻해진다. 어수리에 담긴 봄기운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자연이 빛은 절경, 한반도지형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왕과 사남자>의 흥행 이후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를 찾는 이가 크게 늘었지만, 본래 영월은 자연이 빛은 절경으로 사랑받아 온 여행지다. 그중에서도 한반도지형은 서강을 대표하는 풍경으로 손꼽힌다. 평창강과 주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이 지형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놀라울 만큼 한반도와 꼭 닮았다. 이처럼 독특한 형상은 서강이 오랜 세월 굽이치며 흐르는 동안 침식과 퇴적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졌다. 한번 보면 잊기 어려운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한반도지형은 영월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고, 명성에 힘입어 행정구역 명칭도 '서면'에서 '한반도면'으로 바뀌었다. 강물이 마르지 않는 한 지금도 땅이 조금씩 깎이고 쌓이며 지형이 변하고 있다. 가장 또렷한 한반도지형을 보고 싶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다.

주소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로 555

Yeongwol, Where the Sorrow of King Danjong Lingers

1

A Young King on the Road to Exile

In the third year of King Sejo's reign (1457), Danjong was stripped of his royal title and demoted before being sent into exile in June of that same year. His destination was Yeongwol, a remote mountain town embraced by the Taebaek Mountains to the north and south and the Sobaek range to the east and west. During the difficult journey, one unfamiliar landscape halted the young king in his tracks. Before him rose a towering rock pillar cut sharply from the cliff, while the calm waters of the Seogang River curved gently below. To Danjong's eyes, the solitary stone resembled a mountain spirit standing guard. The formation came to be known as Seondol, also called Sinseonam, meaning "rock of the immortal." Seondol is a striking limestone pillar formed about 500 million years ago during the Paleozoic era. Over countless centuries, wind and water eroded the surrounding bedrock, leaving behind this dramatic column rising from the cliffside. The scene is both majestic and mysterious. Even birds gliding between the cliffs seem drawn to the view, pausing briefly among the rocks as if to admire the landscape.

Address 769-4, Bangjeol-ri, Yeongwol-eup, Yeongwol-gun, Gangwon-do



In 1457, King Danjong was forced from the throne by his uncle and exiled from Hanyang at the age of 17 to Yeongwol in present-day Gangwon Province. Tracing the places connected to the final four months of his life reveals a landscape deeply marked by one of the most poignant stories in Korean history.



2

Imprisoned by Nature

With the Seogang River flowing around its east, south, and north sides and the cliffs of Yungnyukbong blocking the west, Cheongnyeongpo feels like an island within the land. It was the place of exile for King Danjong. A short boat ride of one to two minutes leads across the river. Passing a gravel field, visitors enter a dense pine forest. Soon the royal residence where Danjong stayed comes into view. Near the wall stands a pine tree lying almost completely along the ground, supported by the wall. Resembling a court official bowing before the king, it is known as Eomheungdosong. Cheongnyeongpo is also home to Gwaneumsong, the pine tree said to have been Danjong's only companion. The name combines the characters *gwan* (to watch) and *eum* (sound), reflecting the belief that the tree witnessed his sorrow and heard his lament. Its trunk splits into two near the base, and it is said that Danjong often sat upon it. One of the few traces associated with the king can also be seen here. Manghyangtap, a small stone tower, is said to have been built by Danjong as he longed for Queen Jeongsun in Hanyang. On the path back to the ferry, countless small stone cairns line the gravel shore, stacked one by one by visitors who come to remember the young king.

Address 237, Bangjeol-ri, Nam-myeon, Yeongwol-gun, Gangwon-do **Contact** 033-372-1240



3

A Pavilion Echoing with the Cuckoo's Cries

Danjong's exile at Cheongnyeongpo, the natural prison, did not last long. About two months after his arrival, the summer monsoon raised the river level, and he was moved to Gwanpuncheon, the magistrate's office of Yeongwol. In the center of Yeongwol town stands a traditional gate with a tiled roof that is visible from afar. Beyond the low stone wall remain the Gwanpuncheon building and a pavilion to the east. Danjong is said to have often climbed this pavilion to recite poetry. The poem is known as Jagyusi. Jagyu refers to the cuckoo. Danjong compared the bird's sorrowful cry with his own tragic fate and grief. As the poem became widely known, the pavilion's name later changed from Maejukru to Jagyuru. Today, both signboards, Maejukru and Jagyuru, still hang at the pavilion. Gwanpuncheon is also the place where Danjong passed away on October 24, 1457. The exact circumstances of his death remain unknown, but the sorrow of the 17-year-old king is still felt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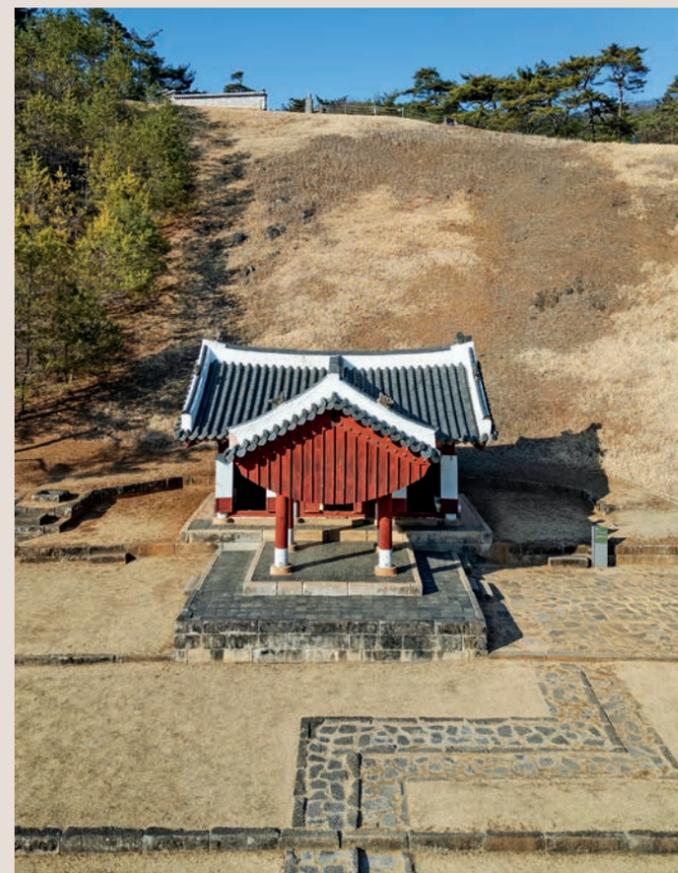
Address 61, Jungang-ro, Yeongwol-eup, Yeongwol-gun, Gangwon-do

4

A Royal Tomb After 241 Years

Next is Yeongwol Jangneung Royal Tomb, the burial site of King Danjong, located deep in the mountains. In 1698 (the 24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241 years after Danjong's death, the position of Nosangun was restored to King Danjong, and the grave was formally recognized as a royal tomb at Yeongwol Jangneung. Jangneung differs noticeably from other Joseon royal tombs. Instead of a gentle hill, the burial mound stands on a steep mountainside, and the ceremonial path from the red gate to the shrine hall bends in an L-shape rather than running straight. The tomb was constructed by preserving the original burial place where Eom Heung-do secretly buried Danjong and by keeping the natural terrain of the mountain. This site also contains structures honoring Danjong's loyal supporters. Jangpanok enshrines the memorial tablets of 268 people, including royal relatives, court ladies, and servants who gave their lives for the king. Jeongnyeogak commemorates the loyalty of Eom Heung-do, who recovered and buried Danjong's body.

Address 190, Danjong-ro, Yeongwol-eup, Yeongwol-gun, Gangwon-do
Contact 033-374-4215



5

Yeongwol's Table with Eosuri Herbs

Walking through Yeongwol along the traces of King Danjong, visitors often hear stories about eosuri, a wild herb he was said to enjoy. According to local lore, villagers gathered eosuri from the mountains and prepared it for the exiled king. After tasting it, Danjong was reminded of the gentle fragrance of Queen Jeongsun and came to favor the dish. To taste eosuri properly, visit Baggane. The restaurant's signature menu is the Eosuri Deodeok Set Meal. It features eosuri rice cooked in a traditional iron pot, served with grilled deodeok, doenjangjjigae (soybean paste stew), and a variety of mountain vegetable side dishes. When the lid of the iron pot is opened, the green eosuri rice appears along with a warm, savory aroma. Compared with thistle rice, it has a softer texture and a mildly sweet flavor with a slightly bitter finish. Eosuri appears in desserts as well. At Woori Bakery by the Donggang River, visitors can try Eosuri Castella, made with locally grown eosuri and honey. The cake's bright green center shows the herb clearly, and the top is stamped with characters of King Danjong and Queen Jeongsun wearing ceremonial robes. The cake is called Flower Path Castella, expressing the wish that the two may walk a flower-filled path together.

마츠다 부장, 권오준 셰프의 일본 미식 기차 여행

하코다테 · 아오모리 · 이와테



일본과 한국을 무대로 '퇴근 후 한잔'의 짜릿함을 전하는 마츠다 부장, 최고급 다이닝의 격전지 서울 청담동에서 숙성 스키의 진수를 선보이는 권오준 셰프. 이들과 함께 미식 기차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일본, 해산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하코다테 · 아오모리 · 이와테다.

취재 협조 인페인터뷰로버





신하코다테호쿠토역 > 신아오모리역 > 쓰가루고쇼가와라역 > 아오모리 스토브 열차 > 하지노헤 이자카야



난로에 마른 오징어 구워 먹는 낭만 기차 여행

다음날 아침 마츠다 부장, 권오준 셰프와 함께 본격적인 기차 여행에 나섰다. 오늘의 일정은 신칸센 하야부사와 스토브 열차 타기. 신하코다테호쿠토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신아오모리역에 도착 후 차로 쓰가루고쇼가와라역까지 가는 여정이다.

먼저 2층 개찰구 정면에 위치한 홋카이도 시키사이판에서 도시락을 사기로 했다. 마츠다 부장과 권오준 셰프가 고른 메뉴는 하코다테산 식재료로 만든 두 종류. 말린 청어를 간장에 조린 것에 청어알과 미역 줄기를 더한 니싱 미가키 벤토와 작은 오징어에 밥을 넣어 한국의 오징어순대처럼 만든 이카메시다. 여기에 깔끔하고 청량한 맛의 사케 한 병을 추가하니 근사한 도시락 세트가 완성됐다.

날렵하게 날아오르는 매를 뜻하는 신칸센 하야부사는 2016년에 홋카이도까지 연장된 도호쿠·홋카이도 신칸센을 운행하는 초고속 열차이다. 선명한 녹색 차체와 긴 코 모양의 선두부가 특징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320킬로미터로 주행한다. 감칠맛 폭발하는 도시락을 먹으며 사케 잔을 주고받는 사이, 신칸센 하야부사는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바다를 잇는 23.3킬로미터의 해저터널을 지나 불과 1시간 만에 신아오모리역에 우리를 내려주었다.

역사의 맑게 닦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눈 세상. 자동차를 타고 쓰가루고쇼가와라역으로 향하는 도로변에는 높이 1미터가 넘는 눈 벽이 끝없이 이어진다. 아오모리현 끝자락, 눈 덮인 쓰가루 평야를 가로지르는 스토브 열차는 1930년에 개통해 지역의 목재 수송과 지역민의 교통을 책임져 왔다. 크림색의 야트막한 역사에 들어서자 손때 묻은 의자와 범람 표지판, 철관에 손으로 적은 열차 시간표 등 시골 역사의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하다. 일본인에게는 고도 성장기의 활기와 이웃 간의 정이 넘치던 쇼와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하코다테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30분 거리. 오후 4시 40분경 하코다테공항에 내려 넛포니아 호텔 하코다테 미나토마치에 도착하니 어느새 하늘이 푸른빛으로 물들어 간다. 세모꼴 지붕에 견고한 벽돌 건물의 호텔에 들어서자 2층까지 탁 트인 층고와 천장을 장식한 황금빛 조형물, 철제 난로를 중심으로 띄엄띄엄 놓인 테이블이 따스하고 중후한 멋을 뽐어낸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모습. 100년 전 이곳은 다시마를 보관하던 창고였다. 오래전 하코다테에 큰불이 난 후 이 지역 일대 창고를 붉은 벽돌로 바꿔 재건했다고 한다. 일본 각지에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해 그 지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호텔 브랜드, 넛포니아 호텔이 100년 전 다시마 창고를 근사한 호텔로 재탄생 시켰다. 객실은 단 아홉 개. 오래된 창고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편의성과 세련미를 더한 공간에서 100년의 시간을 조화롭게 연결 지은 영특함이 엿보인다. 하코다테산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다이닝을 즐기고 나서 다시마 우린 물에 몸을 담그니, 하코다테에서의 첫 날 밤이 꿈처럼 저물어간다.

마츠다 부장

구독자 120만 명의 유튜브 채널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TV'에 이어 '맛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숨은 맛집을 소개한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며 위로를 건네는 듯한 콘텐츠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국적은 일본이지만,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생활도 마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권오준 셰프

서울 청담동의 하이엔드 일식 레스토랑 '타쿠미곤'의 오너 셰프. 숙성 스키의 독보적 권위자다. 타쿠미곤은 장인을 뜻하는 일본어 '타쿠미'와 권오준 셰프의 성을 합쳐 지은 이름이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숙성 스키의 정수를 선보이는 그는 한국과 일본의 수산시장을 찾아 최상의 재료를 직접 선택한다.



1100년 전 다시마 창고가 근사한 호텔로 재탄생한 넛포니아 호텔 하코다테 미나토마치. 2 아오모리 쓰가루고쇼가와라역에서 스토브 열차를 탄다. 3, 4 1930년에 첫선을 보인 스토브 열차. 석탄 난로에 마른 오징어를 구워 먹는 재미가 특별하다. 5 일본 기차 여행의 백미는 역시 에키벤. 마츠다 부장이 쓰가루고쇼가와라역에서 에키벤을 샀다.



으키는 곳. 그 정점에 쓰가루고쇼가와라역의 명물인 스토브 열차가 있다. 1930년 12월에 첫선을 보인 스토브 열차는 무려 100여 년의 시간을 간직한 일본 기차 역사의 유산이다. 현재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겨울철에만 운행하며 아오모리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날은 열차 점검으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 답승은 가능하다는 말에 서둘러 열차에 올라탔다. 반지르르 윤기가 흐르는 나무 객차 문과 분홍색의 빛바랜 의자 너머로 마른오징어 굽는 냄새가 훅 덮쳐 온다. 그리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무쇠 스토브! 마츠다 부장과 권오준 셰프가 자리를 잡고 앉자 승무원이 다가와 능숙하게 마른오징어를 굽기 시작한다. “와, 이거 진짜 석탄으로 불을 피우네요!” 최악의 소리를 내며 익어 가는 마른오징어와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눈빛을 교환하는 두 사람. 건너편에 앉은 일본인 승객은 이미 고소한 오징어를 뜯으며 사케를 마시고 있다. 한국에서 온 한 무리의 취재 팀이 반가운 승무원이 인심 좋게 석탄을 두어 개 더 집어 들어 스토브에 밀어 넣자, 열차 안은 영화의 날씨가 무색하게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다.

끝내 외투를 벗으며 “이거 너무 더운데요!”를 연발하는 마츠다 부장. 구운 오징어를 받아 든 권오준 셰프도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 손부채질을 한다. 사케 잔이 몇 차례 더 오가자 빨그레한 얼굴로 기차 여행에 대한 추억을 쏟아 놓는 두 사람. 훈훈한 공기와 맛있는 음식,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스토브 열차의 낭만을 가슴에 안은 채 우리는 하치노헤로 향했다.

하치노헤는 아오모리 동쪽 끝에 면한 항구 마을. 오후 7시가 넘어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로 나서자 저녁 겸술 한잔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활기찬 분위기다. 박스형 실내 포장마차가 밀집한 요코초를 찾아갔으나 자리가 없어 2층 규모의 이자카야에 들어섰다. 이곳의 주 메뉴는 숯불 꼬치구이. 다코야키도 맛있어 보여 마츠다 부장에게 “주문할까요?” 하니 손사래를 친다. “오사카에는 어느 집이나 다코야키 기계가 있어요. 중학생도 제 손으로 거뜬히 해 먹는 게 다코야키거든요.” 이런, 그가 다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의 도시에서 왔다는 사실을 감빡했다.



1

1,2 하치노헤 요코초의 한 주점. 박스형 실내 포장마차가 밀집한 요코초 거리는 퇴근 후 술 한잔 하기에 딱 좋은 곳이다. 꼬치구이, 대게 전골, 새우튀김 등 메뉴도 다양하다. 3 하치노헤 핫쇼쿠 센터에선 싱싱한 해산물을 골라 즉석에서 숯불구이를 해 먹을 수 있다. 4 아오모리산 성게는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2



3



4

에키벤 먹으며 나모미 만나는 고타쓰 열차

다음 날 아침, 지난밤 이자카야의 흥을 이어 일찌감치 하치노헤 핫쇼쿠 센터를 찾았다. 핫쇼쿠 센터는 신선한 해산물과 건어물, 지역 특산품 등 하치노헤의 명물이 모두 모인 종합 시장. 시장에 들어서면 상인들의 분주한 모습과 함께 아오모리 명물인 대게와 가리비, 성게, 연어알 등이 시선을 강탈한다. 이곳의 백미는 해산물을 구매해 즉석에서 구워 먹는 시치린무라. 자릿값을 포함해 1인당 500엔을 내면 식재료를 담은 바구니와 간장, 접시를 내준다.

도쿄에서 10년 넘게 숙성 스시 다이닝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일본 각처의 수산시장을 섭렵한 권오준 셰프가 핫쇼쿠 센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다. “이렇게 크고 살이 실한 북방조개는 흔치 않아요. 성게도 황금빛이 짙는 게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마츠다 부장도 권 셰프의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열차 아침거리를 챙겨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숯불에 올린 북방조개와 새우, 전복, 소라 등을 권 셰프가 먹기 좋게 구워 간장을 더하자 구수한 냄새가 식욕을 확 당긴다. “셰프님이 해주시니까 이젠 뭐, 최고급 다이닝이 따로 없습니다!” 내친김에 성게알을 살짝 떠서 마츠다 부장 입에 넣어주는 권오준 셰프. 특유의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보탠다. “해산물 요리는 원물이 다 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입안에서 달콤하게 스며드는 성게는 정말 최고네요.” 덩달아 성게알을 한 입 연어먹근 주위를 둘러보니 굴과 조개, 고등어에 쇠고기까지 구워 아침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로 시치린무라의 좌석이 모두 채워졌다.

핫쇼쿠 센터에서 기분 좋게 배를 채운 후 고타쓰 열차를 타러 이와테현의 구지역으로 향했다. 고타쓰는 전기 히터를 부착한 타자에 이불을 덮은 일본의 전통 방한 기구.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이와테현 북부 구지역에서 미야코역을 잇는 산리쿠 철도의 객차 한 칸을 고타쓰 열차로 운영한다. 열차를 타기 전 반드시 준비

해야 할 것은 이와테현의 맛이 한 그릇에 담긴 에키벤. 고소한 성게알과 졸깃한 전복, 담백한 연어 구이에 입 안에서 툭툭 터지는 연어알 등을 밥 위에 가득 올린 에키벤을 사전 예약해 구지역에서 구매한다. 좀 더 특별한 에키벤을 원한다면 사전 예약으로 나무 배에 담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에키벤을 맛볼 수 있다. 비린맛 없이 입에 착 붙는 고등어 회와 감칠맛 넘치는 오징어 젓갈, 고소한 닭튀김과 졸깃한 가리비 꼬치, 그리고 성게알 주먹밥까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이 선물해 준 맛 있고 싱싱한 이와테현산 식재료로 만든 10여 종의 메뉴가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고타쓰 열차 탑승은 마츠다 부장도 권오준 셰프도 처음 접하는 경험. 흔치 않은 기회를 알차게 즐기기 위해 에키벤을 종류별로 모두 준비했다.



1 사전 예약을 하면 고등어 회와 닭튀김, 가리비 꼬치, 성게알 주먹밥 등으로 구성된 에키벤을 맛볼 수 있다. 2 철도 기관사 모자를 쓰고 포즈를 취한 권오준 셰프. 3, 5 이와테현 북부 구지역에서 미야코 지역을 잇는 산리쿠 철도의 객차 한 칸을 고타쓰 열차로 꾸몄다. 1시간 40분의 기차 여행 중에 나모미가 등장하는 깜짝 이벤트도 있다. 4 마츠다 부장이 고타쓰 열차를 기다리며 관광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밤색 외관에 도깨비 캐릭터가 부착된 고타쓰 열차에 오르자, 4인용 테이블 아래로 폭신한 이불이 놓인 고타쓰 열두 개가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신발을 벗고 앉아 이불로 무릎을 덮으니 온몸으로 온기가 전해진다. 1시간 40분가량 걸려 총길이 71킬로미터를 운행하는 고타쓰 열차는 지금의 노선을 연결하는 데 무려 88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와테현 동쪽 바다를 따라 달리는 고타쓰 열차 창밖으로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인 리아스식해안이 펼쳐진다. 아치형의 오사와 교량도 결코 놓칠 수 없는 볼거리. 고타쓰 열차가 이 구간을 달릴 때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춰 준다. 맛있는 에키벤을 먹으며 창밖 풍경에 넋을 잃은 사이, 갑자기 열차 내 전등이 모두 꺼지면서 험상궂은 탈을 쓴 존재가 등장한다.



이와테현 북부 지방의 전통 민속 설화에 나오는 도깨비, 나모미다. 나모미는 추운 겨울 난로 앞에만 앉으면 생기는 불그스름한 반점으로, 게으름의 상징인 반점을 칼로 벗겨 내어 부지런함을 되찾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짙으로 만든 도롱이를 입고 칼을 든 나모미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게으름을 피우느냐?” “어른들 말은 잘 듣느냐?”라고 묻자 금세 울상이 되어 손사래를 친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츠다 부장과 권오준 셰프의 얼굴에는 웃음이 한가득하다. 왁자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움을 선사한 나모미들은 마지막으로 승객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놓칠 수 없는 즐거움, 하코다테 핫 스팟 5

지상에 착륙한 거대한 별 고료카쿠 타워

별 모양의 서양식 요새 고료카쿠는 하코다테에서 꼭 봐야 하는 필수 스팟. 고료카쿠 타워는 고료카쿠를 가장 완벽하게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90미터의 고료카쿠 타워 전망대에 오르면 오각형의 별 모양 성곽이 두눈에 담긴다. 고료카쿠는 근대식 화력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일본 최초의 서양식 요새. 1860년대에 지어진 별 모양 성곽으로 사각지대를 없애 적의 접근을 모든 방향에서 감시하고, 강력해진 화포 공격에 대비해 성벽의 높이를 낮추는 대신 해자를 깊게 파고 돌출된 모서리마다 포대를 배치했다. 고료카쿠 타워 전망대 2층에는 고료카쿠 준공 당시의 모습을 정확하게 재현한 모형과 함께 '고료카쿠 역사 회랑'이라 불리는 전시 공간이 있다. 고료카쿠는 하코다테 시민과 여행자 모두에게 훌륭한 산책 코스이기도 하다. 봄에는 다이쇼 시대부터 심은 왕벚나무 1600여 그루가 분홍빛 별을 만든다. 고료카쿠 타워 입장료는 어른 1200엔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소 43-9 Goryokakucho, Hakodate, Hokkaido



일본 개항 시대의 정취가 깃든 모토마치 언덕

모토마치 언덕은 1859년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온 곳으로, 일본 속작은 유럽이라 불린다. 일본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언덕 1위에 선정됐는데, 바다를 향해 일직선으로 뻗은 언덕을 오르다 보면 하코다테 하리스토 정교회, 모토마치 교회, 성 요한 교회, 그리고 하코다테 공회당 등이 차례로 등장한다. 3월 말 문을 여는 닛포니아 호텔의 새로운 호텔, 구 소마 저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중후한 목조 구조를 그대로 살리고, 내부는 최고급 아메니티와 세련된 인테리어를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숙박 경험을 제공한다. 객실은 단 세계 하코다테의 숨막힐 듯이 화려한 야경과 화사한 빛꽃을 객실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홋카이도의 풍부한 해산물과 하코다테 인근 농가에서 공급받은 신선한 채소로 만든 '하코다테 퀴진'을 맛볼 수도 있다.

홋카이도의 부엌, 하코다테 아침시장

하코다테 여행 중 한번은 로컬 시장에서 아침 식사를 해 보는 것도 좋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상인들 틈에 끼어 하코다테의 제철 해산물을 구경하고, 그중 마음에 드는 메뉴를 골라 즉석에서 먹는 즐거움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3만 3000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250여 개 점포가 밀집한 하코다테 아침시장은 하코다테의 미식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테마파크와 같다. 길게 이어진 골목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하코다테의 명물인 오징어 조형물이 설치된 오징어 낚시 체험 코너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1인당 2000엔(당시 시가)을 내면 수조에서 헤엄치는 오징어를 낚시대로 잡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잡은 오징어를 즉석에서 회로 손질해 준다. 입에 착붙는 오징어회는 은은한 단맛이 난다. 홋카이도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성게알, 특특터지는 식감이 일품인 연어알, 그리고 보드라운 게살이 산처럼 쌓인 해물 덮밥으로 아침 식사를 해도 좋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장 구경을 할 차례. 하코다테 아침시장에서 단 하나의 특산품을 사야 한다면 최고급 다시마, 마른부를 추천한다. 앞이 넓고 두꺼워 국물을 냈을 때 맑고 진한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예로부터 교토 등에서 귀하게 여겨졌으며, 현상품으로도 취급되었다.
주소 9-19 Wakamatsucho, Hakodate, Hokkaido



레인저가 안내하는 지역 투어, OMO5 하코다테 by 호시노 리조트

2024년 7월 호시노 리조트의 도시 관광 호텔 브랜드 오모(OMO)가 하코다테에도 문을 열었다. OMO5 하코다테 by 호시노 리조트는 하코다테 항구와 벽돌 창고를 모티브로 한 건물에 245개의 현대적이고 아늑한 객실이 자리하고, 노천탕을 갖춘 천연 온천도 있어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 수 있다. 오모 레인저 프로그램도 특별하다. 하코다테 자유시장 투어가 대표적.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홋카이도의 풍부한 식재료가 모인 자유시장을 구경하고 간단한 시식도 하다 보면 하코다테가 한층 더 정겹게 느껴진다. 조식 메뉴인 해산물 덮밥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훌륭하니 놓치지 말 것. 고료카쿠를 표현한 별 모양 그릇에 참치, 연어, 새우, 오징어를 담고 신선한 채소를 더한 해산물 덮밥은 입안에서 재료 하나하나가 느껴져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즐거움을 준다. 하코다테역, 모토마치, 고료카쿠 공원 등 하코다테의 주요 스팟을 1시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하는 투숙객 전용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주소 24-1 Wakamatsucho, Hakodate, Hokkaido



붉은 벽돌에 새겨진 개항의 역사, 하코다테 항구

홋카이도 최남단, 쓰가루해협을 마주한 하코다테 항 주변은 일본 개항의 역사가 담긴 하코다테 대표 관광지다. 1859년 요코하마, 나가사키와 함께 개항한 무역항으로 문을 연 이곳은 서구 문물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온 통로로, 발길 닿는 곳마다 미국적 정취가 느껴진다. 하코다테 항구 중심을 차지하는 곳은 카네모리 아카렌가 창고. 메이지 시대의 붉은 벽돌 창고를 개보수해 트렌디한 카페와 레스토랑, 공예품점 등이 들어선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밤이 되면 주황색 조명이 벽면을 타고 흐르며 항구를 로맨틱한 분위기로 물들인다. 하코다테 항구를 걷다 보면 유독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있다. 고깔모자를 쓴 피에로가 버거를 들고 있는 간판이 인상적인 럭키 삐에로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달콤 짭짤한 달걀튀김에 달걀프라이와 양상추를 넣은 차이니스 치킨버거. 간풍기를 빵속에 끼워 먹는 느낌인데, 시원한 생맥주를 곁들이면 더할 수 없이 완벽한 한끼가 완성된다.
주소 14-12 Suehirocho, Hakodate, Hokkaido



C-Tour Bus가 바꾼 충청 관광

충청권 여행이 한결 쉬워졌다. 그동안 충북과 충남을 오가려면 여러 번 차를 갈아타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Tour Bus(충청 투어 버스)가 여행객의 발이 되어 주고 있다. '초광역형 관광 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탄생한 이 순환 노선은 청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오송역(KTX), 공주종합버스터미널을 거쳐 부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88킬로미터 구간을 잇는다.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편리함이다. 전에는 평균 세 번 환승하고 4시간 넘게 걸리던 길이 이제는 환승 없이 2시간 이내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10월 첫 시동을 건 C-Tour Bus는 충북의 서울고속과 충남의 삼흥고속이 손잡고 하루 왕복 8회씩 여행객을 실어나른다. 첫차는 청주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 10분에, 부여터미널에서는 오전 5시 10분에 출발해 이른 아침부터 여행을 시작하기 좋다. 이용 방법도 간편하다. '티머니GO'나 '버스타고' 앱으로 미리 예약하거나 각 거점에 설치된 전용 키오스크에서 현장 예매를 한다. 요금은 전 구간 이용 시 1만 7800원, 오송역에서 공주까지는 6000원 선으로 합리적인 편이다.

C-Tour Bus는 단순히 이동만 돕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서비스도 알차다.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 공주와 부여의 터미널 등에 아가자기하게 꾸민 홍보관을 마련해, 이곳에서 여행 안내서를 챙기거나 홍보 영상을 보며 다음 목적지를 구상하기 좋다. 올 상반기엔 짐 보관 및 배송 서비스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손 가볍게 오롯이 여행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번 C-Tour Bus의 순환 노선 개통은 백제역사문화권의 고즈넉함과 충북 도심의 활기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 충청권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동력이 되고 있다.

C-Tour Bus, 수요 응답형 버스 DRT 충북, 충남을 1시간 40분에 잇다

충청권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충북과 충남의 주요 거점을 1시간 40분에 잇는 광역 순환 노선 'C-Tour Bus'와 부르며 달려오는 수요 응답형 버스 'DRT'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똑똑하고 편리한 충청권 여행을 제안한다.

순환노선 운행표(편도 1일 8회 운행)

하행						상행				
청주공항	오송역	공주터미널	부여터미널	업체	순번	부여터미널	공주터미널	오송역	청주공항	업체
8:10	8:40	9:20	10:10	삼흥	1	5:10	6:00	6:40	7:10	삼흥
10:00	10:30	11:10	12:00	서울	2	11:10	12:00	12:40	13:10	삼흥
14:10	14:40	15:20	16:10	삼흥	3	13:00	13:50	14:30	15:00	서울
16:00	16:30	17:10	18:00	서울	4	19:00	19:50	20:30	21:00	서울

C-Tour Bus를 이용한 청주 도보 여행

KTX를 타고 오송역에서 C-Tour Bus로 환승해 청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청주 도심의 매력이 한눈에 담기는 '뉴트로 로드'를 따라가며 역사와 현대적 감성이 공존하는 스포트를 방문했다.

용두사지 철당간 → 청주중앙공원 → 쫄쫄호떡 → 옛 청주역사전시관 →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천년의 자부심, 용두사지 철당간

청주 시내 한복판, 천년 세월을 묵묵히 지켜 온 용두사지 철당간이 시선을 붙잡는다. 청주 도심 도보 여행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이곳은 역사 탐방객에게 필수 코스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보물이다. 국보로 지정된 이 유물은 고려 시대 사찰인 용두사 입구에 서 있던 철제 당간으로, 당시 사찰의 위용을 드러내는 랜드마크였다. 철통 20개를 높게 쌓아 올린 구조는 고려의 뛰어난 금속 주조 기술을 여실히 보여 주고, 당간 몸체에 새겨진 명문은 962년 건립 당시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사찰이 사라진 자리에 홀로 남은 철당간.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솟아오른 거대한 철 기둥을 마주하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묘한 기분에 전율이 느껴진다.

드라마 속 풍경을 걷다, 청주중앙공원

철당간에서 불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청주 시민의 오랜 휴식처이자 역사적 숨결이 깃든 청주중앙공원이 자리한다. 수령 900년 된 거대한 은행나무 '압각수'가 위엄을 뽐내는 이 공원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 분)과 주여정(이도현 분)이 바둑 두는 장면을 촬영해 큰 인기를 얻었다.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 등 소중한 국가유산과 역사 기록이 곳곳에 보존되어 있어 야외 박물관에 온 듯한 기분도 느낄 수 있다. 시민들이 용기종기 모여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청주 원도심 특유의 따뜻한 정취를 자아낸다.



청주의 소울 푸드, 쫄쫄호떡

청주중앙공원 바로 앞에는 청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먹거리, 쫄쫄호떡이 여행객을 유혹한다. 청주의 대표 간식으로 SNS에서 입소문이 나며 더욱 유명해진 곳으로, 항상 긴 줄을 서야 맛볼 수 있다. 반죽을 기름에 튀기듯 구워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 겉은 과자처럼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달콤한 시럽이 가득해 '겉바속촉'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기름에서 갓 건져 올린 호떡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기다림의 지루함은 눈 녹듯 사라진다. 바삭거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공원을 거닐며 누리는 소소한 기쁨은 청주 여행이 선물하는 가장 달콤한 기억으로 남는다.



시간이 멈춘 공간, 옛 청주역사전시관

소나무 길 끝자락에 자리한 옛 청주역사전시관은 과거 철도 교통의 중심지였던 청주역에 깃든 추억을 되살린 문화 공간이다. 옛 청주역을 그대로 재현해 철도와 함께 성장한 청주의 근대 생활사와 도시의 변천사를 소개한다. 옛날 기차표와 철도 장비 등이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소나무 길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산책 후 차분하게 역사를 되짚어 보기에 좋다. 철길을 테마로 한 야외 조형물도 인기 포토존이다.



청주의 특별한 맛,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청주 여행을 하다 출출해지면 청주 삼겹살 거리로 가자. 신선한 삼겹살을 특제 간장 소스에 적서 불판에 구워 먹는 것이 청주의 전통 방식. 청주 삼겹살 거리는 아들야들하고 달콤한 삼겹살을 맛볼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삼겹살 특화 거리다. 골목을 가득 채운 고소한 냄새는 지친 여행자의 발걸음을 저절로 멈추게 한다. 매년 삼겹살 축제가 열릴 정도. 가게마다 다른 비법 소스를 사용한 삼겹살을 맛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대중에 개방한 수장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2018년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과천, 덕수궁, 서울에 이은 네 번째 분관. 1946년 설립된 옛 연초제조창 건물이 현대미술의 거대한 보물창고로 탈바꿈했다. 미술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미술관에서 '금지구역'인 수장고를 대중에게 개방했다는 점이다. 1층과 3층의 개방 수장고에서는 조각, 회화 등 약 1만 100여 점에 달하는 방대한 소장품을 관람객이 직접 마주할 수 있다. 칸막이 없는 선반 위에 놓인 작품들은 전 시용 조명 아래 박제된 모습이 아니라,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생생한 예술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 준다. 오는 7월까지 열리는 미술은행 20주년 특별전 <돌아온 미래: 형태와 생각의 발현>에선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도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4월 24일부터는 '빛의 화가' 방해자 작가의 대규모 회고전이 예정되어 있다.





DRT 타고 백제 시간여행

3월 1일 운영을 시작한 부여 DRT를 타고 시간 여행에 나섰다. 공남지와 정림사지, 백제문화단지를 거쳐 공주역까지, 1시간 40분 만에 찬년백제를 만나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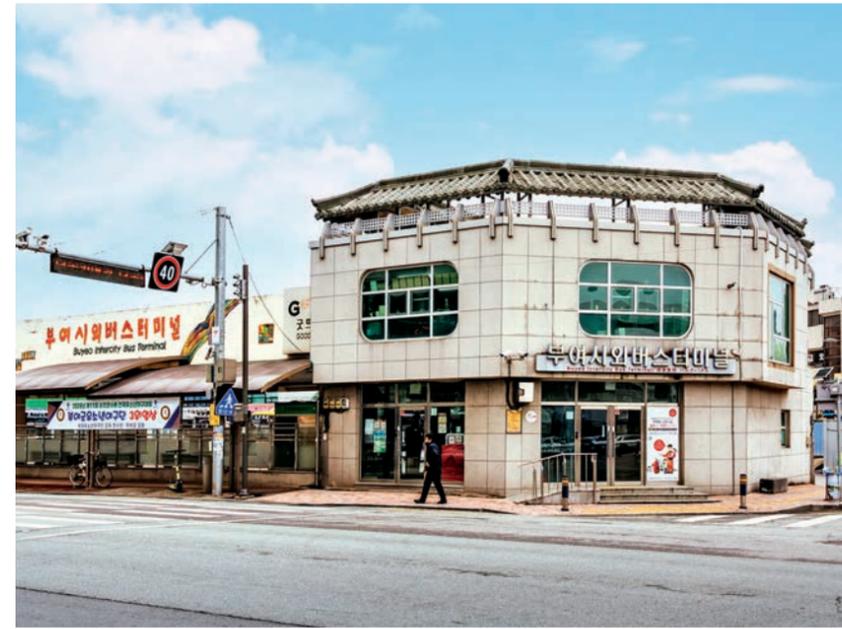
부여시외버스터미널 → 공남지 → 국립부여박물관 → 정림사지 → 부소산성 → 백제문화단지 → 공주역 KTX

부르면 달려오는 초광역형 관광 교통 DRT

C-Tour Bus가 지역 간 거리를 좁혔다면, 목적지 내에서의 이동은 수요 응답형 버스 DRT(Demand Responsive Transit)가 책임진다. DRT는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닌, 전용 앱으로 호출하면 이용자가 있는 위치로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맞춤형 교통 서비스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을 스마트한 기술로 해결한 것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전용 앱 '서클'에서 출발지와 도착지, 인원수를 선택해 호출하거나, 콜센터(1533-0777)로 전화해 배차를 신청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수준(성인 기준 공주 1500원, 부여 1400원)이라 부담이 적다. 교통카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편리함을 더한다. 부여는 올해 3월 1일 정식 운행 시작, 공주는 4월 초 정식 운행 예정이며, 이용자 입장에서 운영 일정을 알차게 구성했다. 부여에서는 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공남지, 정림사지, 낙화암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있고, 공주에서는 공산성과 무령왕릉뿐 아니라 왕도심 구석구석을 연결한다. 오는 6월 개통을 앞둔 청주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 성안길(철당간), 커넥트현대 등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할 예정이다.

DRT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지역 관광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주요 축제나 행사 기간에는 임시 서클 노선을 추가 투입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C-Tour Bus를 타고 광역 거점에서 DRT로 갈아타는 이 스마트한 여정은 충청권 관광을 더욱 깊이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부여 여행의 베이스캠프, 부여시외버스터미널

부여 여행의 시작점이자 든든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곳. 터미널 안에 초광역형 관광 교통 홍보관이 있어 여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홍보관에 비치된 브로슈어와 홍보 영상을 통해 충남과 충북의 관광 안내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여정을 계획하기 좋다. 준비를 마친 뒤 전용 앱 '서클'을 이용해 DRT 차량을 호출하면, 읍내의 레트로한 풍경을 지나 백제 유적지로의 여정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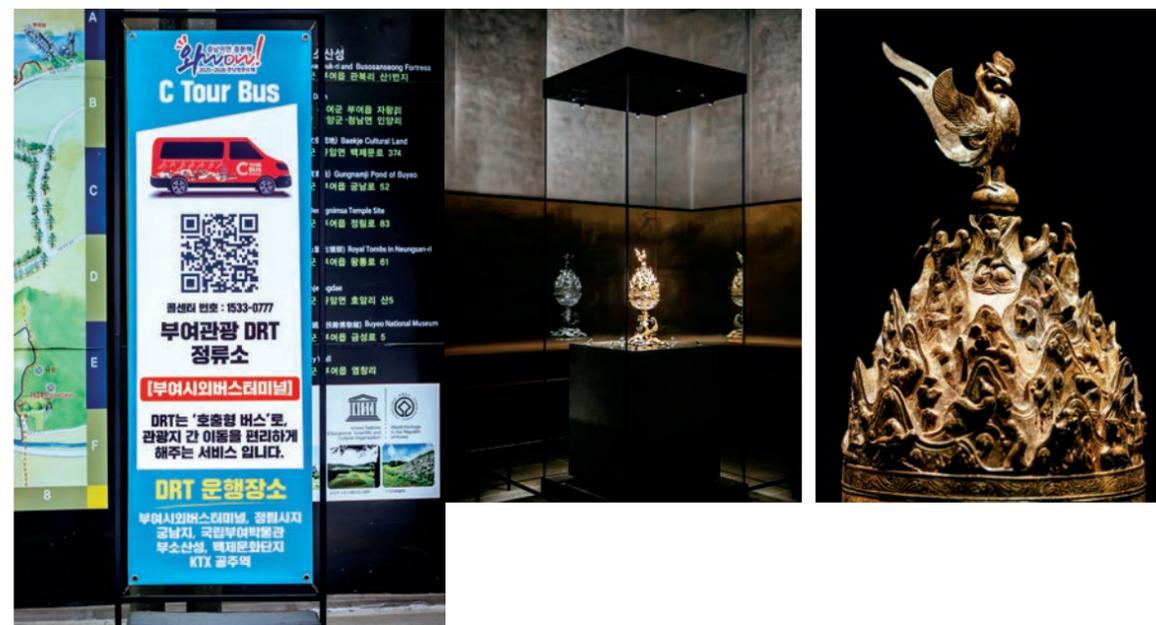
왕의 정원을 거닐다, 공남지

부여시외버스터미널에서 DRT를 타고 가다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정원인 공남지다. 백제 무왕 때 조성한 이 정원은 연못 한가운데 자리한 포룡정과 이를 잇는 나무다리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을 펼친다. 연못 위로 노을이 내려앉으면 은은한 야간 조명이 켜지면서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사비의 밤 풍경이 연출된다. 찬란했던 백제 후기 왕실의 품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곳에선 버드나무가 늘어진 연못가를 꼭 산책해 볼 것. 고대 왕실의 정원을 거니는 듯 우아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충북·충남 지역별 DRT 운행 노선(안)

충북 노선(안)	
1호차	①청주국제공항 → ②스타필드 빌리지(엔포드호텔) → ③철당간
2호차	①오송역 KTX → ②청주오스코(OSCO) → ③커넥트현대 청주 → ④철당간
충남 공주 노선	
	①공주종합버스터미널 → ②금강신관공원 → ③공산성 → ④무령왕릉 → ⑤국립공주박물관, 공주한옥마을 → ⑥공주 왕도심(나태주풀꽃문학관, 제민천) → ⑦공주역 KTX
충남 부여 노선	
	①부여시외버스터미널 → ②공남지 → ③국립부여박물관 → ④정림사지 → ⑤부소산성 → ⑥백제문화단지 → ⑦공주역 KTX



백제의 숨결을 마주하다, 국립부여박물관

여정은 백제 금속공예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이어진다. 이곳에서 꼭 봐야 하는 유물은 '백제금동대향로'. 신비로운 향로에 깃든 백제인의 이상 세계와 섬세한 조각 기술이 감탄을 자아낸다. 유물이 뿜어내는 묵직한 존재감을 마주하는 순간, 교과서에서 만나던 역사가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하루에 일곱 번, 매시 정각이면 상설 전시실 로비가 특별한 무대로 변하는 디지털 실감 영상도 놓치기 아깝다.



부여의 단아한 기품, 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맞은편에는 백제 시대 호국 사찰 정림사 터인 정림사지가 있다. 이곳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백제의 미학이 압축적으로 담긴 5층 석탑.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는 뜻의 검이불루(儉而不陋)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다. 높게 솟은 석탑의 비례감은 화려한 장식 없이도 단아하면서 당당한 기품을 뽐어낸다. 또한 절제미를 강조한 백제 특유의 세련된 감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석탑 앞에 서서 천년 전 백제인의 정교한 솜씨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끄러운 도심의 소음은 사라지고 마음속까지 정화되는 듯한 평온함이 느껴진다. 탑을 둘러싼 돌담길을 거닐며 사색하기에도 좋다.

백마강의 전설을 품다, 부소산성

여정은 백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부소산성의 울창한 숲길로 향한다. 부소산성에서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걷거나, 황포 돛배를 타고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의 절경을 감상해도 좋다. 백마강 유람선을 타면 시원한 강바람이 도보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준다. 고즈넉한 부소산성 길을 천천히 거닐며 백제 왕실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것도 좋다.



되살아난 사비궁의 위용, 백제문화단지

부여 DRT를 이용하는 여정의 백미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제문화단지다. 사비궁의 화려한 위용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역사 체험관을 통해 백제인의 생활상을 경험하는 것도 특별한 즐거움이다. 금·토·일요일에는 야간 전시관도 운영한다. 밤하늘 아래 조명을 받아 빛나는 사비궁은 마치 시공간을 초월해 백제의 밤으로 초대받은 듯한 황홀함을 선사한다. 웅장한 궁궐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찍는 것도 잊지 말자.

여정의 끝과 새로운 연결, 공주역 KTX

부여 DRT의 종착지는 공주역. 부여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귀가하거나, 공주와 청주로 이어지는 다음 여정을 시작해도 좋다. 공주역에는 초광역형 관광 교통 홍보관이 곧 들어설 예정으로 여행자의 든든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충청권 전역의 관광지를 영상과 홍보 책자로 살펴볼 수 있다.



made in

울주를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ULJU

no.1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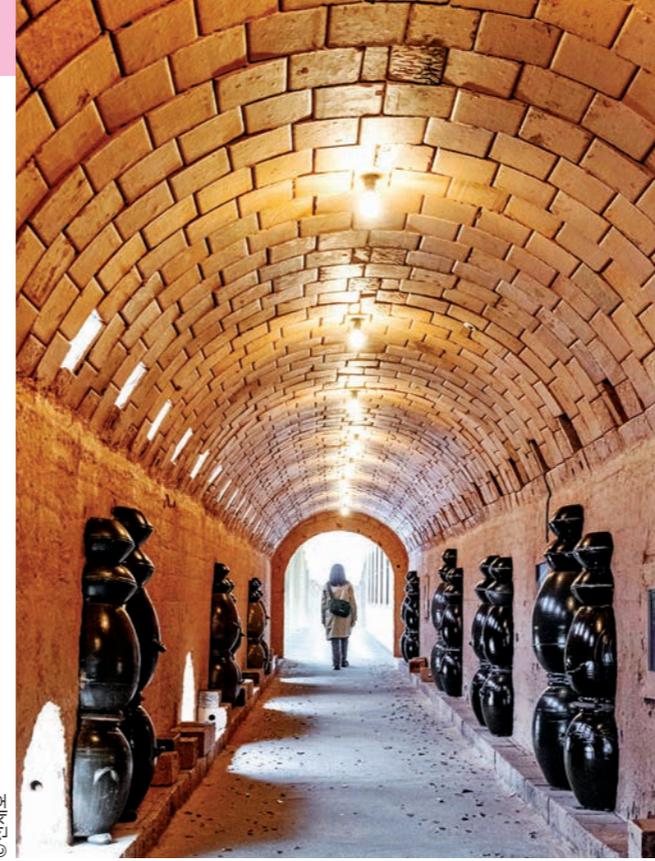
옹기로 하나 되는

울산옹기축제

올해로 26회를 맞는 울산옹기축제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외고산옹기마을에서 열린다. 울산옹기축제는 한민족과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한 '옹기'를 주제로 특화한 국내 유일의 축제. 10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울산 유일의 문화 관광 축제다. 외고산옹기마을 명인의 옹기 제작 시연과 아이들이 마음껏 흠을 만지며 창의력을 발산하는 옹기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옹기 먹거리 장터, 주민 참여 공연, 옹기마트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울산옹기축제에서만 맛보는 특색 있는 먹거리인 '옹기삼겹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방문객 참여형 게임 프로그램을 확대해 더욱 맛있고 재미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울산옹기축제가 열리는 외고산옹기마을에는 옹기의 역사와 제작 과정, 다양한 쓰임새 등을 한눈에 살펴보는 울산옹기박물관이 자리한다. 축제와 함께 둘러보면 더할 수 없이 좋은 공간. 건물 자체가 거대한 옹기 모양을 띠고 있으며, 내부 관람 동선 또한 옹기를 굽는 가마의 경사를 본떠 설계되어 관람객이 마치 가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외고산옹기마을 초입, 옹기 향아리의 유려한 곡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울주민속박물관도 놓칠 수 없다. 울주 사람들이 척박한 땅과 거친 바다에서 일궈 낸 삶의 궤적을 가장 생생하게 담아낸 숨은 보석 같은 공간. 울주의 농경 문화와 오일장, 울주의 여촌 생활과 '테왁' 등의 전시 공간과 함께 영등할만네 & 소원상 차리기, 해너 게임 & 농기구 퀴즈 등 디지털 실감 콘텐츠도 흥미롭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3길 36(울산옹기박물관),
외고산1길 4-19(울주민속박물관)
문의 052-237-7894(울산옹기박물관), 052-204-4033(울주민속박물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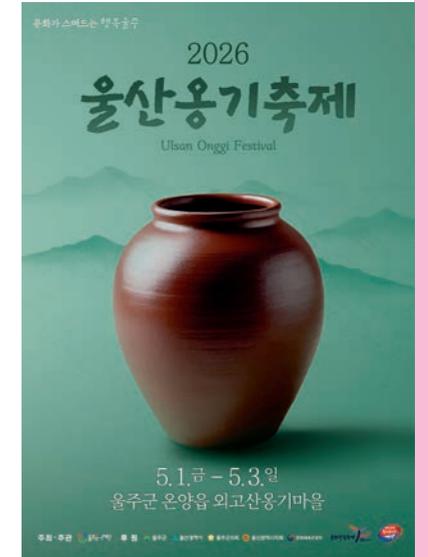


© 전제호

3

- 1, 2 울산옹기박물관. 익살스러운 옹기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 3 울산옹기박물관의 오름가마. 가마 내부를 걷는 기분이 든다.
- 4 울주민속박물관의 디지털 실감 영상관. 울주의 사계를 체험한다.

2026 울산옹기축제
기간 5월 1일~3일
장소 울산 외고산옹기마을



© 전제호

4



1

1 한때 14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외고산옹기마을. 골목을 산책하며 시간여행을 한다.
2 간장, 된장, 옹기 발효 요거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발효아카데미관.
3, 4 외고산옹기마을은 옹기 명인들의 작업장이자 전시장이며 판매장으로 옛 명성을 잇고 있다.
5 마을 곳곳에 실제로 사용하는 대형 가마가 설치되어 있다.



2



3



4

옹기 장인의 숨결이 깃든

외고산옹기마을

외고산옹기마을의 역사는 80여 년 전 허덕만 장인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옹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1950년대, 지역 곳곳을 전전하며 가마를 축조하던 허덕만 장인은 외고산에 정착하기로 결심한다. 흙이 좋아 가마를 세우기에 적합했고, 주변 지역보다 기후가 온화해 옹기를 굽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해 전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 수월했다. 허 장인을 중심으로 옹기점이 하나둘 모여들어 형성된 외고산옹기마을은 시대와 생활환경에 따라 흥망과 부침을 거듭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곳에는 생애를 바쳐 옹기를 빚어 온 장인들의 작업장, 옹기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울산옹기박물관, 이 고장의 생활사와 풍속을 망라한 울주민속박물관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산책하듯 둘러보기 좋다. 옹기가 담벼락처럼 이어진 정다운 골목 한편에는 온갖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해 만든 옹기 조형물이 손님을 마중하듯 늘어서 있다. 옹기 장인들의 작업장이자 전시장이며 판매장이기도 한 외고산옹기마을. 한때 14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이곳은 이제 옹기 테마 마을로 변신해 울주 대표 여행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외고산옹기마을의 발효아카데미관에선 전통 옹기의 과학적 우수성을 현대인의 식탁으로 연결하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국산 콩으로 만든 메주와 천연염을 이용해 간장과 된장을 담그고, 옹기 발효 요거트, 고추장 쿠키 등 현대적 감각을 더한 클래스를 열어, 아이들이 직접 메주를 만져 보고 곰팡이의 유익함을 배우는 오감 만족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3길 36 문의 052-237-7894



5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심포 공방 앤 카페

외고산옹기마을 초입에 들어서면 크림색 바탕에 주홍색 선이 조화로운 2층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옹기 전시장 겸 판매점이자 카페인 심포 공방 앤 카페. 2015년에 문을 연 이곳은 외고산옹기마을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자 심포 같은 카페로, 시원한 통유리창과 우드 톤의 따스한 인테리어가 매력적이다. 특히 울산옹기축제 기간에는 관람객들이 오가며 들르거나 길을 묻기도 하는 등 여행 안내소 역할도 한다. 1층은 각종 그릇과 커피 드리퍼, 생수 향아리 등 예쁘고 실용적인 생활 옹기 제품이 빼곡하고, 2층에는 규모가 큰 옹기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모두 이곳의 주인이자 옹기장인 조명철 대표가 만든 것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옹기 스피커. 옹기로 만든 머그컵에 나무 틀을 넣고 그 안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장착한 것이 특이하다. 한 잔의 커피가 아니라 음악을 마시는 기분.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이 작품은 2022년 대한민국 옹기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직육면체 옹기에 구멍을 뚫어 고래 무늬를 새기고 그 안에 조명 장치를 넣은 무드등은 2022년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옹기는 컵이나 그릇, 소줏고리 정도만 봤는데, 이렇게 근사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조명철 대표는 외고산옹기마을 6대 옹기 명인 중 한 명인 조희만 명인의 아들로 20년 넘게 옹기를 빚으며 꾸준히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다. 옹기 작품에 정신을 쏟고 있다 보니 이곳이 카페인 것도 잊을 정도. 심포 공방 앤 카페에서 꼭 먹어야 하는 시그너처 메뉴는 옹기에 속성향 요거트다. 조 대표가 직접 빚은 옹기에 담아 주는데, 꾸덕한 질감에 깊고 진한 맛이 오래도록 혀끝에 남는다. 2층에 오르면 통유리창 밖으로 수백 개의 옹기 독이 내려다보인다. 고운 옹기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물멍이나 불멍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길 8-2 문의 0507-1444-0006



1



2



3

- 1, 3 외고산옹기마을 초입에 복합 문화 공간이자 사랑방 같은 심포 공방 앤 카페가 있다.
- 2 조명철 대표가 개발한 옹기 스피커. 한 잔의 음악을 마시는 듯하다.
- 4 심포 공방 앤 카페의 시그너처 메뉴, 옹기 발효 요거트. 그릭 요거트처럼 꾸덕한 식감이 매력적이다.
- 5 타공을 해 고래 무늬를 새긴 옹기 무드등. 2022년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4



5



1

- 1 1935년에 건립한 옛 남창역. 지난해에 신설한 남창역 옆에 나란히 자리한다.
- 2 날짜가 3, 8로 끝나는 남창옹기종기시장 오일장에 가면 인산인해를 이룬다.
- 3 고추잡채를 빵에 싸 먹는 듯한 해뜨미 고추잡채 호떡. 속이 꽉 찼다.
- 4 남창옹기종기시장의 명물, 선지국밥. 맑고 깊은 국물에 속이 확 풀린다.
- 5 쫄득하고 바삭한 찰옥당 옥수수도넛. 입안에서 옥수수 알갱이가 툭툭 터진다.



2

© 안윤근

과거 울주 사람들에게 남창역은 울산 최대 시장인 남창오일장에 갈 때 반드시 거치던 삶의 터전이었다. 무거운 짐을 이고 진 채 기차에서 내리던 사람들의 아련한 시절을 기억하는 역.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남창역이 지난해 신설한 남창역 옆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이제 남창역을 달리는 열차는 KTX-이음. 서울 청량리역에서 남창역까지 직통 연결되면서 이동 시간이 3시간 내외로 단축됐다. 덕분에 남창역 부근 남창옹기종기시장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매달 날짜가 3, 8로 끝나는 날 열리는 오일장에 가면 그야말로 인산인해다. 시장 초입부터 후각을 자극하는 음식의 정체는 커다란 가마솥에서 펄펄 끓고 있는 선지국밥. 맑고 깊은 국물 맛으로 상춘객들의 허기를 달래 준다. 최근에는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꼭 먹어야 할 별미가 두 개 더 추가됐다. 바로 해뜨미 울주 고기호떡과 찰옥당 옥수수도넛. 울주군 캐릭터 '해뜨미'를 활용해 친근감을 주는 해뜨미 울주 고기호떡은 호떡이라기보다 고기만두나 수제 버거에 가깝다. 종류는 돼지고기를 달콤하게 볶아 넣은 '간장 고기호떡'과 고추잡채를 빵에 싸 먹는 듯한 '고추잡채 호떡' 두 가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입안 가득 채소와 고기가 씹히고, 겉은 바삭하고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 찰옥당의 옥수수도넛은 커피에 곁들여 먹기에 제격이다. 찹쌀 반죽 안에 달콤한 크림치즈와 통옥수수를 듬뿍 넣고 플레이크를 묻혀 튀겼는데, 쫄득한 식감에 크림치즈의 은은한 단맛과 입안에서 툭툭 터지는 옥수수가 어우러져 자꾸만 손이 간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길 40(남창역),
남창장터길 24(남창옹기종기시장)
문의 052-238-3260(남창옹기종기시장)



4



3



5

인심 좋고 먹거리 넘치는
남창역 & 남창옹기종기시장



1



2

1 굴참나무와 편백나무가 어우러진 숲길을 활용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립대운산치유의숲.
 2 울산수목원의 전시 온실.
 100여 종 2000여 본의 열대·난대 식물을 식재했다.
 3, 4 올해 1월 정식 개장한 대운산하늘숲야영장. 넓고 쾌적한 총 20면의 최신식 사이트를 갖췄다.

3



4

연중 가장 싱그러운 빛이 스미는 4월, 영남 제일의 명당이라 불리는 대운산은 정상부를 물들이는 철쭉 군락과 청량한 계곡, 그리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상춘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대운산은 현대인을 위한 '천연 치유 기지' 역할도 톡톡히 한다. 울산수목원, 국립대운산치유의숲, 대운산하늘숲야영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도심 근교에서 완벽한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다. 여정의 시작은 대운산 하부의 울산수목원. 난대성 수종부터 한대성 수종까지 아우르는 식물 자원의 보고로, 입구에서부터 펼쳐지는 동백원과 대나무원이 눈을 맑게 해 준다. 수목원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 국립대운산치유의숲이 나타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나눔힐링센터'와 '바람뜰치유길'. 굴참나무와 편백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가슴속 깊이 피톤치드가 스며든다. 솔바람 가득한 곳에서 하룻밤 머물고 싶다면 대운산하늘숲야영장이 정답이다. 24시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과 물때 하나 없이 관리하는 개수대와 함께, 텍 사이즈가 넉넉해 대형 리빙셀 텐트도 무리 없이 설치 가능하며, 사이트 가까이 전기 분전함이 있어 편리하다. 3월 31일에 기존 파쇄석 사이트 10면을 텍 사이트로 교체하는 공사가 끝나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숲 지형을 살려 배치한 야영 텍은 이웃 텐트와의 간섭을 최소화해 오묘한 휴식이 보장된다. 밤이 되면 숲 사이로 쏟아지는 별빛과 대운산 계곡의 물소리가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한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 225-19(울산수목원), 대운상대길 225-92(국립대운산치유의숲),
 문화리 산155-3(대운산하늘숲야영장) 문의 052-229-8588(울산수목원), 052-237-8600(국립대운산치유의숲),
 052-229-9610(대운산하늘숲야영장)



1



2

- 1, 2 1층에 통유리창, 2층엔 야외 테라스가 마련된 설보리.
- 진하해수욕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 3 극강의 고소함이 입안에 스며드는 설보리의 흑임자 눈꽃빙수.
- 4 메이브커피의 시그너처 메뉴, 웨이브 블루 라테와 아이스크림 크로플.
- 5 메이브커피의 빈백에 앉으면 수평선이 눈높이에 맞춰진다.



3

설보리 & 메이브커피

울주의 자랑, 진하해수욕장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오래도록 두 눈에 담을 수 있는 카페가 있다. 설보리와 메이브커피가 바로 그곳이다. 설보리는 1994년에 문을 열어 2대째 운영하는 테라스 카페. 2층 규모에 야외 테라스도 있어 공간이 막힘 없이 시원하고, 서까래와 아치형 통로, 라탄 의자 등으로 꾸민 인테리어가 아늑함을 자아낸다. 이곳의 시그너처 메뉴는 흑임자 눈꽃빙수와 흑임자 라테, 그리고 최근 선보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흑임자 티라미수다. 광광 언 우유를 곱게 갈아 흑임자 가루와 한 층씩 쌓아 올리고, 구운 아몬드와 흑미 찹쌀떡을 곱고로 올린 흑임자 눈꽃빙수는 부드러운 우유 빙수에 달콤한 흑임자 가루, 오도독 씹히는 아몬드가 입안에서 스며들 듯 어우러져 먹는 내내 극강의 고소함이 느껴진다.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에 찢직한 흑임자 가루 크림을 더한 흑임자 라테, 카스텔라에 에스프레소, 크림을 켜켜이 쌓아 올린 흑임자 티라미수도 두고두고 생각날 만큼 매력적이다. 진해변길 앞 건물 2층에 자리한 메이브커피는 삼면이 커다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오션 뷰 카페. 어느 자리에서나 진하해수욕장이 잘 보이도록 연극 공연장처럼 통유리창을 기준으로 맨 앞에 빈백, 그 다음에 라운지체어, 그리고 테이블 세트를 배치했다. 메이브커피의 시그너처 메뉴는 시트러스 시럽과 우유, 에스프레소를 층층이 쌓아 올린 웨이브 블루 라테. 바삭한 크로플에 아이스크림을 듬뿍 올린 아이스크림 크로플과 환상적인 궁합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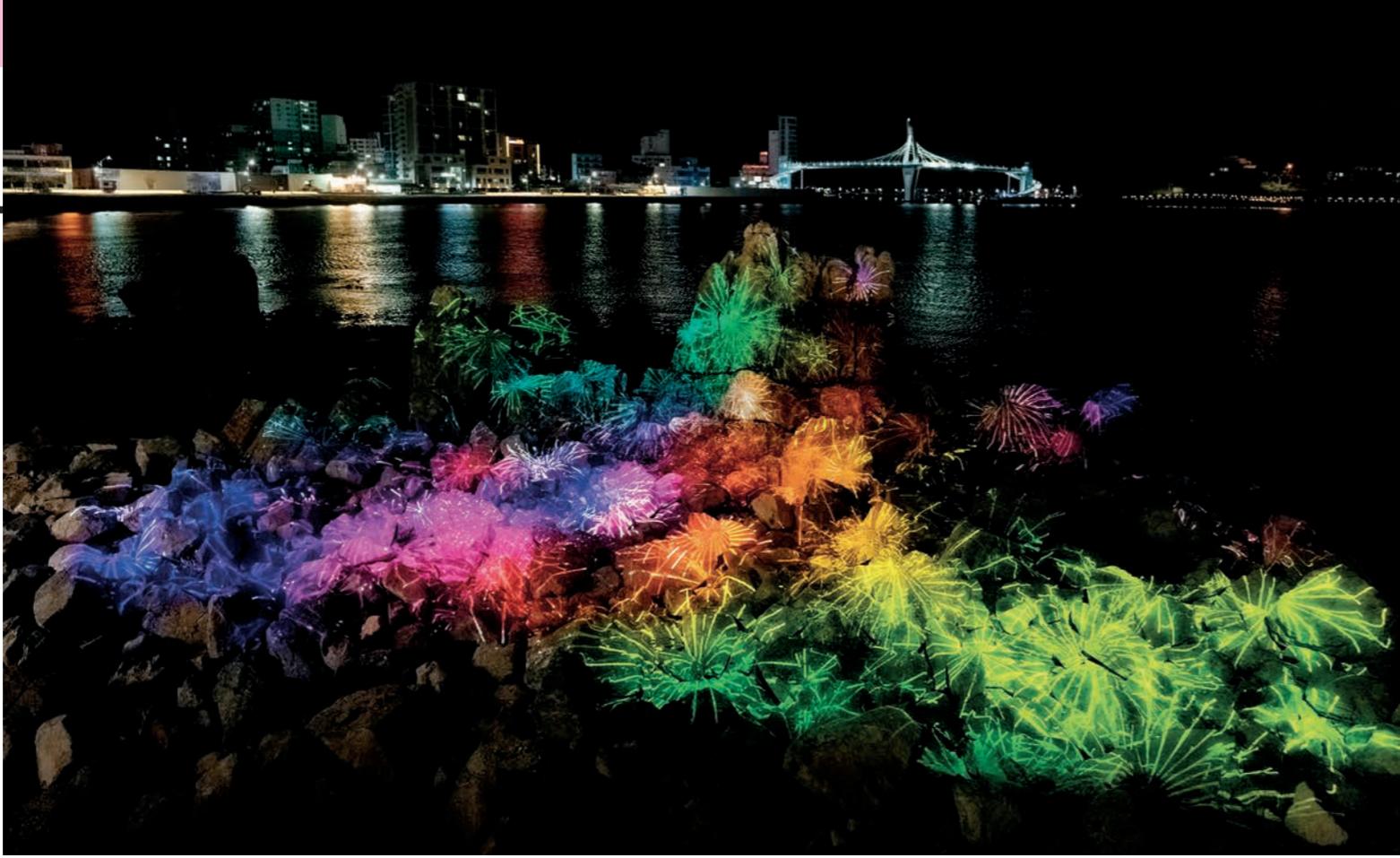
주소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해변길 102(설보리),
진해변길 90(메이브커피) 문의 052-239-7515(설보리),
0507-1439-1581(메이브커피)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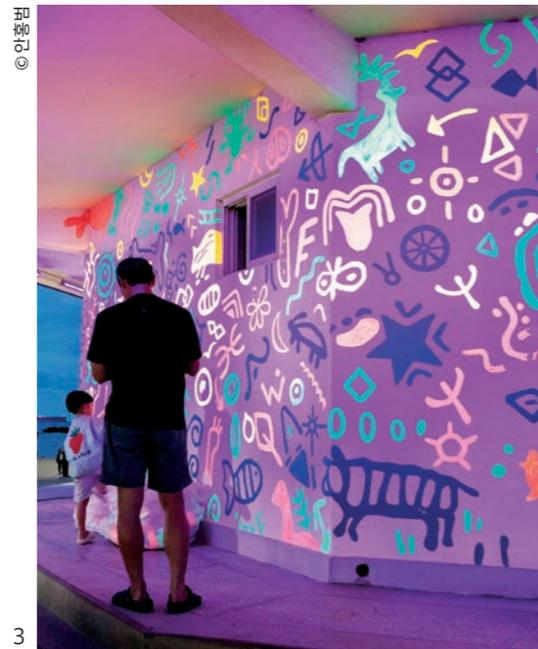


1 © 김재형

- 1 밤이 되면 환상적인 불빛으로 물드는 명선도. 멀리 명선교도 화려한 빛을 뿜어낸다.
- 2, 3 진하해수욕장에서 명선도를 잇는 바닷길 초입에는 3층 건물의 밤빛 전망대가 있다.
- 4 해가 지기 직전, 하늘이 푸른빛으로 물들 때의 진하해수욕장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황홀하다.



2



3 © 민정인

3



4

4 © 민정인

울주의 야경을 책임지는

진하해수욕장 & 명선도

길이 1킬로미터, 폭 300미터의 백사장이 펼쳐진 진하해수욕장은 수심이 얇고 파도가 잔잔해 특유의 차분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울주 여행자의 마음을 포근히 안아 준다. 천천히 모래사장을 밟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곳. 동해의 푸른 물결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밀려드는 진하해수욕장은 낮보다 밤이 더 매력적이다. 어둠이 내리면 고요한 백사장을 배경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무인도, 명선도가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며 여행객을 유혹한다. 둘레 330미터의 명선도는 본래 매미가 많이 울어 붙은 이름인데, 지금은 '태양을 품은 섬'이라는 별칭과 함께 SNS에서 '현실판 아바타 섬'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명선도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밤빛 전망대', 빛을 품은 고래가 헤엄치며 환영 인사를 건네는 '빛의 여정', 파도와 함께 춤추는 '빛의 왈츠', 빛과 소리가 만들어 내는 '해파랑 쇼' 등 명선도에는 18개 테마의 황홀한 미디어 아트가 설치되어 있다. 섬 안쪽 산책로로 접어들면 나무와 바위 위로 레이저 불빛이 쏟아져 신비로운 숲의 정령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다. 나무 뒤편에서 고개를 내미는 '숲속 아이' 구간은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포토존. 하얀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짓는 캐릭터가 귀여워 차례를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게 된다. 섬 정상 부근의 '잠든 태양'과 핑크빛 하트 조형물이 인상적인 '태양의 박동' 구간은 이곳이 '태양을 품은 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붉은빛의 물결이 가득한 해변을 지나 마지막 구간인 '빛의 포옹'에 이르러서는 명선도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느끼며 여정을 마무리한다. 명선도는 기상 상황과 물때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섬 안에는 화장실이 없으니 미리 진하해수욕장 공영 화장실을 이용하자. 주소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산60(명선도) 문의 052-239-0358

no.16

ULJU



KTX MAGAZINE

울산옹기축제

외고산옹기마을

십포 공방 앤 카페

남창역 & 남창옹기종기시장

울산수목원 & 국립대운산치유의숲 & 대운산하늘숲야영장

설보리 & 메이브커피

진하해수욕장 & 명선도

EDITOR 최현주 · PHOTOGRAPHER 김은주

제작 지원 울주군청

지금 여기

접근성 정보를 공유하는 계단뿌서클럽 박수빈·이대호 대표 |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개관전 | 백수혜 작가와 함께한 유기 식물 구조
의병의 함성과 숨결이 깃든 남도의병역사박물관 | 일라디아의 수원 행궁동 나들이 | 전북 군산 구영길 산책



계단뿌셔클럽 박수빈·이대호 공동대표 다정함이 세상을 바꾼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기술과 우정을 매개로 이동 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 없는 이동을 위해 접근성 정보를 수집해 온 계단뿌셔클럽. 박수빈·이대호 공동대표는 계단뿌셔클럽을 통해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이 각자의 우주를 넓히고 타인의 꿈을 확장하는 기적을 목도하고 있다.



모두의 막힘 없는 이동을 위해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나에게 사소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고, 나는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틈이 누군가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은 그래서 소중한 것이다. 계단뽀서클럽은 계단 하나, 문턱 몇 센티미터가 일상의 동선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것을 몸으로 겪어 온 이동 약자 박수빈 대표와 동료 이대호 대표가 만든 접근성 정보 앱 서비스다. 지금은 도시 곳곳에 숨은 계단을 허무는 사람들의 연대로 발전했지만, 식사를 하러 가거나 미팅 장소를 정할 때마다 접근성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생활에 지쳐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다. 그렇게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계단뽀서클럽이 탄생했고, 직장 생활을 하며 사이드 프로젝트로 운영했다.

서비스를 만들고 보니 어려운 건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할 사람을 모으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지인을 동원했고, 다음에는 지인의 지인이 참여했다. 이후 '체험단'을 모집해 주말마다 산책하듯 동네를 걸으며 식당과 카페,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생활 편의 시설의 계단과 턱, 경사로 유무를 기록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렇게 하다보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의 표정이 마치 게임을 한 것처럼 밝아진 것이다. 누군가의 불편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기록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재미있고 마음을 건드리는 경험이였기 때문이다. 차가운 앱 위로 뜨거운 우정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웹으로 서비스하던 정보를 2023년 가을, 앱을 출시해 제공하면서 정보 접근성도 높아졌다.

우리 안의 문턱을 낮추고 허무는 일

계단뽀서클럽은 시즌제로 운영한다. 매년 봄과 가을에 크루를 모집해 4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핵심은 접근성 정보를 수집하고, 이동 약자 당사자가 리뷰를 만드는 것이다. 크루는 외부 접근성 정보를 모으는 정복 크루와 방문 리뷰를 남기는 에디터 크루로 나뉜다. 정복 크루는 주말마다 자체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접근성 정보를 수집하는데, 계단뽀서클럽은 이들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게스트 크루 모집을 지원한다. 에디터 크루는 휠체어 사용자가 대부분인데, 매거진 에디터처럼 동네 곳곳을 다니며 공간 경험을 자세하게 리뷰한다. 이동 약자는 접근성 정보를 알면 '어디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나와 닮은 에디터 크루의 리뷰를 보면 '갈 만한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갈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생기는 것이다. 2026년 봄 시즌에는 108명의 정복 크루와 32명의 에디터 크루가 모였다. 게스트 크루가 더해지면 400~500명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기업과 학교의 봉사 활동 프로그램 협업 형태로 진행되는 파트너십 활동이 있다. 인원이 적을 때는 외부 활동을 하면서 접근성 정보를 수집하고, 많을 때는 비대면 교육 후 2~3주 동안 각자의 일상 속 접근성 정보를 등록하는 활동을 한다. 계단뽀서클럽은 이동 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 없는 이동을 지향한다. 그들이 부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계단이 아닌, 눈에 띄지 않는 고정관념과 내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 같은 우리 안의 문턱이다.



1 계단뽀서클럽 박수빈·이대호 공동대표. 이동할 때마다 접근성 정보를 찾는 것이 귀찮아 계단 정보 지도를 만들었다. 2, 3 정복 크루는 게스트 크루와 함께 산책하듯 동네를 거닐며 접근성 정보를 수집하고 앱에 업로드한다.



계단뽀서클럽



'기술'과 '우정'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수빈 처음부터 우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 믿은 건 아니에요. 되도록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장 동료와 수다 떨다가 아이디어가 나왔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했기에 든든한 자본이나 크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산책하면서 근처 정보를 모으자'고 했고, 각자의 지인들이 동행했어요. 지인이 지인을 데려왔고, 다음에 그 지인의 또 다른 지인을 데려오면서 활동을 이어 나갔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것을 발견한 거죠. 활동하면서 대화하고, 활동을 마친 후 소감을 나누면서 우정이 쌓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그러한 우정이 사람들을 우리의 활동에 끌어들이는 힘이 됐죠. 고무적인 것은 계단뽀서클럽 초기에는 비이동 약자만 참여했는데, 활동이 쌓이면서 휠체어 사용자와 이동 약자의 지인들이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이동 약자와 이동 약자가 함께하는 순간,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기대하지 않았던 강력한 힘을 발견했네요.

박수빈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도움을 조금 받으면 계단이나 단차 같은 물리적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어요(그렇다고 경사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우정과 다정함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자연스러운 문화로 바꿔 놔요. 이는 이동 약자의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죠. 계단뽀서클럽의 활동이 정보를 모으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의 세계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솔루션임을 알게 되면서 기술과 우정을 동등하게 놓고 있어요. 도움을 청하는 일도, 돕고 싶다고 말할 건네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알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물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클럽에서는 도움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근성 정보를 업로드하면 정복자 아이디를 새겨 주는 등 계단뽀서클럽 활동이 마치 게임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 이는 의도한 건가요?

이대호 재미가 리워드인 게임이죠! 계단뽀서클럽이 지속되려면 활동이 즐거워야 해요. 그 결과로 개인이 보람이나 의미를 느낀다면 금상첨화고요. 하지만 굳이 의미를 앞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은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재미있는 일은 열 번, 스무 번 이상도 해요. 계단뽀서클럽의 활동이 가볍고 편안하되 재미있고 즐거워야 우리가 목표로 한 정보 수집에 유리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박수빈 우리가 간과하는 건 누구나 어린 시절 이동 약자였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내가 이동 약자의 가족이 되고, 내가 나이가 들면 다시 이동 약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두를 위한, 미래의 나를 위한 활동인 거죠.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내가 이동 약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활동을 타인을 위한 시혜적 활동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쉽게 접근하고, 게임 퀘스트 깨듯이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하다가 의미까지 생각해주면 감사할 따름이죠.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수집하는 셈인데, 앱의 확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나요?

박수빈 지금은 접근성 정보에 이어 이동 약자의 공간 경험 리뷰를 많이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접근성 정보 외에 음식점이나 카페의 메뉴 리뷰까지 더해지면 비이동 약자도 즐겨 찾는 앱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지향점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교통 약자로 분류되는 이동 약자는 통계로 1600만 명이에요. 장애인이 250만 명 정도 되고 어린이와 임신부, 유아차 이용자와 동행인, 노인 인구까지 합친 거죠.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 수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이동 약자 중

“계단뿌셔클럽은 이동 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 없는 이동을 꿈꾼다.
이를 위해 그들이 부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계단이 아닌 눈에 띄지 않는 고정관념과
내 문제가 아니라 태도 같은 우리 안의 문턱이다.”

에서도 불편을 가장 많이 겪는 휠체어 사용자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점차 다른 이동 약자를 위한 콘텐츠도 늘려갈 거예요.

이대호 그동안 5000여 명의 크루와 게스트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1만 곳의 접근성 정보를 수집했어요. 시즌마다 100명 넘는 크루가 활동하고, 게스트는 그네배 정도 되거든요. 기업과의 협업 행사는 더 규모가 클 때도 많고요. 계단뿌셔클럽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접근성 데이터로 서비스 제휴를 맺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이나 카카오톡에 접근성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거죠. 그런 팀들이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어요.

수도권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전국구로 확장할 계획은 없나요?

이대호 올해 안으로 서울의 접근성 정보를 정복하는 것이 목표예요. 서울에 있는 생활 편의 시설, 특히 식당, 카페, 약국, 병원, 편의점 같은 생활 밀착형 업종이 주요 상권 140여 구역에 12만 개가량 있어요. 그중 60퍼센트 정도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올해 안에 서울은 웬만한 지역의 접근성 정보를 모두 확보하게 돼요. 내년부터는 비수도권으로 진출할 건데, 솔직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수도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과 제휴해 우리의 노하우나 인프라를 동원해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박수빈 대표는 휠체어 사용자인데,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박수빈 여행을 좋아하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리프레시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몰랐던 세상을 경험하며 나의 세계를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가능하면 늘 하고 싶은 게 여행이죠. 국내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여행도 다녀왔고 일본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계단뿌셔클럽 관련 출장이 잦아 KTX를 많이 이용합니다.

계단 복지가 좋은 나라나 도시는 어디였나요? 한국의 수준도 궁금해요.

박수빈 호주가 가장 좋고, 그다음은 일본이에요. 호주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에 열려 있어요. 건물을 못 찾아 헤매고 있으면 다가와 주고, 눈만 마주쳐도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지더라고요. 먼저 도움을 청하기도 수월했고요. 거절하면 또 그대로 쿨하게 갈 길 가더라고요. 한국은 낮은 사람과 눈을 마주 보는 문화도 아니고, 거절하면 불안한 눈빛으로 멀어지면서 끝까지 지켜보거든요. 좋은 마음인 건 알지만, 가끔은 부담스러워요. 도움 요청도, 거절도 쉬운 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도쿄 올림픽 이후로 시설이 많이 좋아졌고 인식도 많이 개선됐어요. 시트를 벗혀 휠체어째 탈 수 있는 택시도 많아서 편했고요. 한국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특히 버스 이동이 어려워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 내 이동은 지하철이 촘촘하지 않거나 아예 없어서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저상 버스가 드물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앞서 이동 약자가 16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잘 안 보여요.

이대호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줄 사람이 없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서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정보 불확실성과 도움 불확실성 때문이죠. 물리적 장벽도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노면이 매끄러워 이동하기 편하면 많은 이동 약자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보 불확실성과 도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물리적 장벽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 약자의 막힘 없는 이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 기술과 우정이라고 강조한 거군요.

이대호 저희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보다, 가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왜 가고 싶냐고 물어요. 보통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친구 인스타그램에서 본 사진, 영상에서 자극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휠체어 사용자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받아들여요. 예능 프로그램에 휠체어 사용자의 아이슬란드 여행기가 나오면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이구나’ 하고 여행을 꿈꾸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상의 많은 부분이 그래요. 계단뿌셔클럽에서 휠체어 사용자인 에디터 크루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휠체어 사용자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콘텐츠를 접하면 ‘나도 저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계단뿌셔클럽을 통해 그리시는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대호 살면서 타인의 크고 작은 고통을 수없이 목격하게 돼요. 평범한 저는 잠깐 흔들릴 뿐 외면한 채 살아가죠. 누군가 제 어려움을 외면해도 서운하지만 그냥 넘겨요.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타인의 어려움에 함께 맞서는 다정한 친구가 되고 싶을 거예요. 저와 함께 활동하는 수많은 동료 크루들에게 계단뿌셔클럽은 그 한 번의 사건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명량호 모험에 1000만 명이 합류하는 것, 이동 약자와 그 친구들의 힘으로 장벽을 부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미래입니다.

박수빈 저처럼 다정함을 발휘할 기회를 기다려 온 수줍은 사람들에게도 계단뿌셔클럽이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이동 약자가 서로의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더 자주 마주치고, 퍽 하나쯤은 함께 뛰어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목격되는 미래. 시 기술도, 사람도 이 방향을 향해 함께 달리고, 굴러가는 세상을 바라요.



촬영 협조: 아산나눔재단

불시착한 미래

10년의 기다림 끝에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이건, 생동하는 동시대 미술을 싣고 온 기묘한 우주선이
마침내 불시착했음을 의미한다.



2026년 3월 드디어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이하 서서울미술관)이 공식 개관했다. 서울시 최초의 공공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이자 서남권 최초의 공립 미술관이고, 서울시립미술관(SeMA) 체제의 여덟 번째 공간이다. 기본 구상이 시작된 2015년 이래로 국제지명 설계 공모를 통해 문을 열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으니 '드디어'라는 수식이 어색하지 않다. 2025년 준공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관 일정이 조정되며 다시 1년이 지나는 동안 미술 애호가들의 기다림도 길어졌다. 문화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울 서남권의 문화 지형을 새롭게 재편할 예술적 거점의 탄생을 기다린 지역 주민들에게

는 더더욱 간절한 시간이었다. 사실 기대가 큰 만큼 짐도 무거웠다. 서서울미술관이 자리 잡은 금천구 금나래중앙공원 부지는 과거 육군도하 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주민들에겐 오랫동안 거의 유일한 녹지 쉼터였다. 누군가는 공동의 정원이자 거실과도 같았던 공간을 빼앗긴 듯 아쉬울 테고, 누군가는 친숙한 회화 대신 난해한 뉴미디어 미술관의 등장이 낯설기도 할 테다. 그러나 지역의 맥락을 좀 더 들여다보면 왜 여기, 그리고 뉴미디어여야 하는지 필연적인 연결 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1995년 구로구에 서 분구된 금천구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건인한 노동 집약적산업의 과거와 IT·디지털 플랫폼의 현재가 중첩된 독특한 서사를 품고 있다. 회색 공장 지대에서 국내 최대 디지털 산업 단지로 거듭난 역동적인 궤적을 떠올려 보면, 기술 발전과 함께 탄생해 예술과의 융합을 지향하는 뉴미디어 아트야말로 지역 정체성을 가장 현대적으로 해석해 낼 최적의 매개체인 셈이다.

뉴미디어,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
서서울미술관은 영상, 음향, 조명을 넘나드는 물리적 설치부터 퍼포먼스와 개념 미술, 인터넷 및 코딩 아트,

2026년 3월에 개관한 서서울미술관, 금나래중앙공원의 신체로가 미술관 내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설계했다. © Kim Taedong /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제공

매체와 언어를 실험하는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세 개의 개관전이 열리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서서울미술관 건립 과정과 서남권의 지역적 서사를 다양한 매체로 담아낸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 전시실로 이어진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무형 작업을 아우르는 광대한 뉴미디어 스펙트럼을 지향한다. 뉴미디어란 대체 무엇인가. 기술 친화적인 일부 애호가뿐 아니라 벽에 걸린 그림을 보러 미술관을 찾던 관람객에게도 열린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박나운 서서울미술관장은 깊은 고민이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뉴미디어는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경계를 허무는 모든 실험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올드미디어라 할지라도 새로운 시선으로 매체를 활용하고 재해석한다면 뉴미디어라고 부를 수 있죠. 서서울미술관은 경계를 허무는 모든 창작과 실험을 주목합니다.” 뉴미디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융합이다. 기술 진보와 발을 맞추되 결코 기술에 침잠하지 않는다. 고성능 AI의 결과물을 그 자체로 예술이라 할 수 없듯, 찰나의 신기함이나 시각적 유희만으로는 뉴미디어가 될 수 없다. 기술을 재료 삼아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고뇌와 철학이 담기고, 시대의 미학적 담론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뉴미디어 아트를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이라 부르는 이유다. 건축물도 키를 낮춰 ‘공원 속에 위치한 일상의 미술관’을 구현했다. 지하철역과 주거 지역을 잇는 길목에 자리한 덕분에 주민들은 출퇴근길이나 산책길에 자연스럽게 예술과 조우한다. 로비와 1층은 투명한 유리 벽을 통해 공원의 사계절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있다. 백미는 파사드다. 해머드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을 사용해 물결처럼 반짝이는 은빛 외벽은 이곳에서 펼쳐질 미래적 풍경을 암시한다. 울퉁불퉁한 금속 표면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주변 풍경을 담아내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을 반사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근사한 미디어 아트다. 내부 공간 역시 새로운 언어를 실험하려는 지향점을 충실히 따랐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세 개의 전시실과 다목적 홀을 배치해 영상, 사운드, 인터넷 아트 등 변화무쌍한 현대 예술을 유연하게 수용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 예술을 창작하고 연구하는 미디어랩을 마련해 단순한 전시장

이들 속에서 전자음악이 즉흥 연주되고, 이내 다양한 소리의 파동이 퍼져 나가며 낯선 감각을 전한다. 그레이코드와 지인의 사운드 퍼포먼스 <공기에 관하여>, 2025/2026.

뉴미디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융합이다. 기술 진보와 발을 맞추되 결코 기술에 침잠하지 않는다. 고성능 AI의 결과물을 그 자체로 예술이라 할 수 없듯, 찰나의 신기함이나 시각적 유희만으로는 뉴미디어가 될 수 없다.



황수현의 퍼포먼스 <세계>, 2026. 임플렉스 속에서 퍼포머들이 만드는 낯선 소리와, 생명한 몸 치음이 관람객을 경계너머의 세계로 이끈다.



황수현의 퍼포먼스 <세계>, 2026. 움직임과 사운드, 조명, 오브제가 결합된 퍼포먼스로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다양한 쓰임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을 넘어 뉴미디어 예술 생태계 허브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새로운 생태계, 세 개의 전시

서서울미술관은 개관과 함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세 개의 전시를 선보인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SeMA 퍼포먼스 <호흡>이다.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27명(팀)의 작가들이 미술관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미술관의 모든 공간을 무대로 실험적인 창작 작품을 선보인다(매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총 70여 회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사전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다). 개관일에 많은 예술계 관계자와 미디어가 모인 가운데 진행된 2개의 퍼포먼스는 이 새로운 미술관이 ‘무경계의 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품어 낼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선언이었다. 전자음악 작곡가 듀오 그레이코드와 지인의 사운드 퍼포먼스 <공기에 관하여>가 시작되자, 정적인 화이트 큐브가 외계 생명체와 조우하는 행성의 한복판처럼 변모했다. 공기의 진동을 매개로 소리의 파동을 담아내는 이들의 작업은 아리랑과 클래식, 모스부호 등 온갖 이질적인 소리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소리라는 비물질적 매체가 물리적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브이엔알, <디 그랜드 투어-001>, 2026. 미술관 건립과정을 기록한 사진을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를 기본 모듈 상아 조형적 패턴을 만들어 미술관 곳곳에 설치했다.



개관 특별전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 미술관 건립과 그 주변을 둘러싼 시간, 장소, 공동체의 기억을 다층적으로 담아냈다.

이어지는 황수현의 퍼포먼스 <세계>는 더 깊은 몰입으로 이끌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퍼포머들은 각자의 속도와 호흡으로 비언어적 소리를 뱉어 내며 기묘하게 움직였다. 익숙지 않은 소리와 생경한 몸짓에 매료되어 어느새 경계 밖 세계를 경험하게 될 즈음, 갑자기 빛이 들어오며 사방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지하1층에서 지상 1층까지 탁 트인 층고를 따라 설치한 롤스크린이 일제히 개방되며 외부 풍경이 전시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반전의 카타르시스!

1층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Mneme Topos)>는 서울미술관의 건립 서사를 조명하는 전시다. 김태동, 브이엔알, 컨템포로컬 등 다섯 팀의 작가들이 사진과 텍스트, 증강 현실 등 다양한 매체로 지역의 역사성과 미술관의 탄생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건립 현장의 축적된 시간을 픽셀 단위로 해체하고 재구성한 콜라주, 콘크리트를 붓고 철골을 용접하며 땀 흘린 작업자들의 노동을 포착한 사진 작업이 미술관 로비, 하역장, 잔디마당 등 다양한 공간을 채우며 과거의 기억 위에서 미래의 감각을 깨운다. 미술관 외부 정원에는 서울미술관의 브랜드가 될 'SeMA 프로젝트 V'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알루 작가의 <신인호 랜딩>이 불시착했다. 금천구의 작은 정원에 안착한 녹슨 우주선은 여덟 개의 작은 LED 패널을 장착한 채 빛을 발한다. 이 우주선의 주인은 86세의 K팝 아이돌이자 '할머니 해적'인 신인호다. 작가의 외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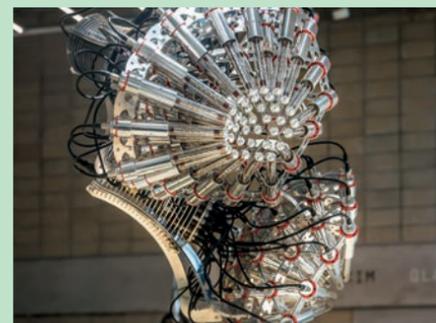
머니를 모델로 한 이 다성적 오페라 작업은 도시의 데이터 위에 내려앉은 할머니 해적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의 과거와 미래, 구전설화가 뒤섞인 생경하고도 유쾌한 서사를 펼쳐 보인다. 우주선을 둘러싼 환경 또한 하나의 무대다. 우주선 주변으로 다양한 이름의 고층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초등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의 청량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간헐적으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굉음과 우주선

컨템포로컬, <일루진 사진, 안양천>, 2026. 길 안내표지 형식을 차용한 설치 작품으로 과거 골목길 자연 하천이었던 안양천이 지수와 개발을 거치며 직선화된 맥락을 배경으로 '우회'와 '지연'이라는 삶의 태도를 제안한다.



서울미술관 외부 정원에 설치된 알루 작가의 <신인호 랜딩>, 86세의 '할머니 해적' 신인호의 남은 우주선이 서울 서남권 금천구에 불시착한다는 미래적 상상을 유쾌하게 풀어낸다.

에서 흘러나오는 미래적이면서도 처량한 음악이 뒤섞여 불협화음을 이루는 가운데, 도무지 해석 불가능한 현장에 불시착한 할머니 해적의 행보를 좇으며 느끼는 기묘한 해방감! 부지불식간에 가뿐하게 경계를 넘어서는 인식과 감각의 확장이야말로 뉴미디어의 존재 이유인지도 모른다. 서울미술관이 그 속살을 드러낸 지 어느덧 반나절. 정말이지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이 신상 미술관은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공간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통창 너머를 엿보는 어르신들과 산책 나온 주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미술관 구석구석에 꽂힌다. 금천구청과 근처 문화체육센터를 오가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에 담장 너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해져 어디서든 본 적 없는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래 걸렸지만 덕분에 가장 궁금한 미술관이 된 것은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른다. 예술은 소리이자 움직임이고, 존재이자 소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 미술관이 그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까. 서울미술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했다.



김원철, <아이트로그래스>, 2018. 서울시립서울미술관 제공

+ 청소년은 기계로소이다

뜨거웠던 오프닝의 열기가 가라앉을 즈음, 뉴미디어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찾아온다. 서울미술관이 3년여에 걸쳐 수집한 72점의 뉴미디어 소장품 중 대형 작품 10여 점을 최초로 공개하는 <서울의 투명한 청소년 기계>전이다. 정보와 네트워크, 신체가 긴밀하게 얽힌 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을 '기계'로 설정하고, 인간 존재의 새로운 형식을 사유하게 하는 과감한 시도가 흥미롭다. 전시와 함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경험을 확장하는 '유스 스튜디오'도 운영한다. 본능적으로 기술을 습득하는 오늘날의 청소년 세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뉴미디어 아트를 감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열린다.

공덕동 식물유치원 원장의 하루



유기 식물을 구조하는 백수혜 작가와 함께
서울 불광동 재개발 단지를 꼼꼼히 살폈다.
공덕동 식물유치원에 들일 신입생을 찾아나서는 여정이었다.





다. 봄부터 가을까지,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졸업식에서 식물들이 새로운 반려인을 만난다. 버려진 식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은 어떨까. 일일 식물 구조대로 활동하고 싶다고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불광동 식물 구조대로 나서다

백수혜 작가는 서울의 재개발 지역으로 구조 활동을 나간다. 처음엔 집 근처 공덕동을 돌아다녔고, 이후에는 연남동·노량진동·흑석동 등을 번갈아 가며 들렀으며, 올해는 불광동을 중심으로 다닐 예정이다. 불광역 근처 관동어린이공원에서 만난 그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자신만의 구조 원칙 두 가지를 공유했다. 버려진 식물인지 확인하기, 틈새에 깊이 뿌리 내린 식물은 구조하지 않기. 특히 누군가 키우고 있는 식물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다. 벽에 붙은 이사안내문, 잠긴 가스배관, 출입 금지 스티커 등이 이곳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알려 준다.

“2025년 10월 20일 아침 8시 이사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빈집임을 알리는 문구를 발견한 뒤 구석에 놓인 화분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햇빛이 드는 곳으로 화분을 옮기니 백 작가가 호미를 손에 쥐어 준다. 숙련자의 말에 집중하며 주변의 흙을 파 화분에서 식물을 조심스럽게 꺼내 올렸다. 성공적인 구조를 축하하는 박수와 함께 식물 스티커 하나를 건네받으니 의욕이 생긴다. “애는 돌나물이에요.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알고 싶어 일러스트 스티커를 제작했어요.” 생애 첫 식물 구조를 기념하기 위해 화분에 돌나물 스티커를 붙이고 인증 사진을 찍었다.

한적한 골목을 걷던 그가 구조대상을 찾았다고 손짓한다. 흔히 나물로 요리해 먹는 방풍이다. 초록색 박스에서 다시 호미를 꺼내 신중히 뿌리를 건져 올린 뒤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는다. 그냥 두면 버려질 운명이었던 방풍이 돌봄을 받고 자라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든다. 다음 골목 귀퉁이에서는 이끼를 마주했다. 호미로 긁어서 채취한 이끼는 뽕뽕이로 감싼다. 수분 유지를 위해 분무기로 서너 번 물을 뿌려 주었다.

길가에 울창하게 자란 사철나무도 구조 대상일까. “사철나무는 겨울에도 초록 잎을 유지해 구조하기 쉬워



1 사철나무를 감고 올라간 나팔꽃의 씨앗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씨앗을 만났다. 어떤 색으로 꽃을 피울지 아직 모른다.
2 불광동 재개발 단지 곳곳을 살피며 구조할 식물을 찾는다. 3 호미로 긁어서 채취한 이끼는 뽕뽕이로 감싼 뒤 분무기로 물을 뿌려 준다.
4 구조 활동할 때 사용하는 도구와 공덕동 식물유치원 입학할 앞둔 유기 식물.
5 백수혜 작가가 제작한 식물 일러스트 스티커. 생애 첫 식물 구조를 기념하기 위해 화분에 돌나물 스티커를 붙이고 인증 사진을 찍었다.

서울의 재개발 단지를 돌며 식물을 구조하는 백수혜 작가에 대해 들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식물을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버려진 식물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년 전 공덕동 재개발 단지 근처로 이사한 백 작가는 골목을 배회하다 건물을 감싼 덩굴식물을 발견했다. 창문을 뒤덮은 담쟁이와 출입문을 가로막은 채 자태를 뽐내는 능소화가 그의 시선에 포착됐다. 여름볕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이들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었다. 시멘트 바닥에 텅구는 알코카시아가 보였고, 쓰레기 더미 위에 누운 장미허브와 이름 모를 다육식물도 눈에 밟혔다. 안타깝게 버려질 운명을 잘 돌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자고 결심했다.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공덕동 식물유치원의 유기 식물 구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첫 번째 입학생인 알코카시아를 포함해 재개발 단지에서 구조한 많은 식물이 공덕동 식물유치원을 거쳐 갔





1 공덕동 식물유치원은 겨울방학을 보내는 중이다. 날이 따뜻해지면 구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2 빈 에너지 드링크병이 사철나무를 담은 물꽂이용 미니 화병으로 변모했다.
3 지인의 도움을 받아 트럭에 실어 옮긴 주목나무. 유치원에서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아 노란 꽃을 피웠다.
4 새로 들인 부추는 전에 구조한 부추와 미나리가 자라고 있는 화분에 심었다.
5 유리병 안에 모래를 깔고 말린 꽃을 장식해 꾸민 사화정원.



식물과 공존하는 삶은 언젠가 다시 회복하리라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요. 몸집이 커서 뿌리째 가져가기 어려워니 보통 가위로 잘라서 쟁기죠.” 사철나무를 감고 올라간 나팔꽃의 씨앗 주머니도 모습을 드러낸다. 검은색 씨앗은 어떤 색의 꽃으로 피어날지 아직 모른다. “나중에 꽃 피면 알려주세요.” 손에 놓인 작고 동글동글한 존재를 관찰하며 씨앗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

흔히 방앗잎으로 불리는 배초향의 쌉싸름한 향을 맡고, 해바라기 조화와 함께 버려진 부추도 구조했다. 마지막으로 동물 배설물 사이에서 하트 모양으로 구부러진 원추리도 만났다. 식물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선불리 나서지 않는다. 원추리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하고 지도에 위치만 저장했다. 이 식물의 꽃말처럼 제대로 된 구조를 하려면 ‘기다리는 마음’도 필요하다. 제자리에서 잘 버티 공덕동 식물유치원에 입학하라고 응원의 눈빛을 전했다.

유기 식물의 보급자리, 공덕동 식물유치원

식물로 가득 찬 박스를 안고 공덕동 식물유치원으로 이동했다. 작은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식물들이 모두 이 유치원의 재학생이다. 이젠 신입생을 위한 입학 절차를 거칠 차례다. 앞으로 잘 성장하도록 각자의 자리를 찾아 주는 것이다. 식물마다 식재하는 방법이 다른데, 버려진 물건의 쓰임을 찾는 백수혜 작가는 이 과정에서 재활용할 방법을 고민했다. 다 먹은 에너지 드링크병은 사철나무를 담은 물꽂이용 미니 화병으로 사용하고, 빈 소스통은 흙에 거꾸로 꽃이 물을 주는 용도로 변모한다. 새로 들인 부추와 돌나물은 각각 전에 구조한 부추와 돌나물이 자라고 있는 화분을 같이 쓰게 된다. 이끼를 구입할 때 받은 판에 흙을 판판하게 덮어 가져온 이끼를 올리고, 방풍은 화분에 흙을 부어 우뚝 선 채로 심었다. 유치원 마당에는 신입생을 위한 원예용 상토가 항상 자루째 비축되어 있다. 공덕동 식물유치원에는 구조한 식물과 새로 산 식물



이 공존한다. 장아찌를 만들어 먹으려고 구매한 산마늘, 몸에 좋다고 알려진 당귀도 함께 키운다.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다 모든 유치원생이 졸업을 하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첫 번째 입학생이자 졸업생인 알로카시아가 아직 여기에 살아요.” 뿌리를 여러 개로 나눠 물꽂이를 했고, 일부는 기념 삼아 간직하고 있다. 어쩌면 이 화분 속 알로카시아는 유치원을 졸업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독성을 지닌 줄 모르고 분재하다가 식물액을 만져 손이 얼얼했던 적도 있지만, 이제 알로카시아는 남에게 보낼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하루 동안 불광동 재개발 단지를 살피며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이 식물 살아날까요?”였다. 손으로 가리킨 식물 중 일부는 영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엔 살 거예요.” 보기와 달리 살아 있다는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놓였다. 열정을 잃은 사람들, 축 처진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한 사람들에게 시든 모습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고 싶다. 추운 계절이 지나면 다시금 활짝 피어날 거라고,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라고 토닥여 주고 싶다. 식물과 공존하는 삶은 언젠가 다시 회복하리라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백수혜 작가가 개설한 온라인 식물 나눔 플랫폼 '킨더플트(KinderPLT)'에서 식물의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주세요.





1



2

봄날에 깨어나는 선비 정신, 2026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등에서 선비 문화의 정수를 만난다.



뮤지컬 <금성대군>

기간 4월 24일~25일

장소 경북 영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54-635-1223

선비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고장 영주에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열린다. 축제의 무대는 영주 순흥면 일대의 소수서원을 비롯해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선비세상 등이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선비, 세대를 잇다 미래를 열다'. 영주가 간직한 선비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공연과 전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구성했다.

천지신명께 축제의 시작을 고하는 고유제로 막을 열고, 전통 공연과 전국국악 경연대회, 풍기인견 패션쇼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선비 간찰 쓰기와 토템문화제 등을 경험하는 '6한 체험, 꽃차를 시음해 보는 '선비 차향마당' 등 선비 문화의 정취를 녹여 낸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순흥면을 방문한다면 금성대군의 위패를 모신 신단도 둘러 보자.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순흥도호부로 유배된 뒤 순절한 금성대군은 최근 영화 <왕과 사남자>에도 등장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의 삶이 궁금하다면 뮤지컬 <금성대군>을 관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종을 향한 충절과 이를 지지한 순흥 의인들의 선비 정신을 그린 작품으로, 4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영주에서 무료로 공연한다.



3

1 다양한 마당극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2 봄날의 여유를 즐기는 다도 체험. 3 금성대군의 위패를 모신 신단.

제작 지원 영주시청



2026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영화 속 그 이야기, 영주에서 이어집니다.

단종 복위를 위해 싸웠던 **금성대군**
그 마지막 역사가 남아있는 곳. **순흥**

축제장을 따라 남아있는 이야기를 만나세요

📍 금성대군 신단, 그리고 **敬자바위** 🌙 소수서원 야간개장



문의 054-630-8707

5.2. SAT - 5.5. TUE 4일간 | 영주시·순흥면 일원 선비세상 · 선비문화수련원 선비촌·소수서원·영주 문화의 거리

의병의 얼굴을 만나다

지난 3월 전남 나주에 의병 전문 박물관이 개관했다. 남도 의병의 함성과 숨결이 깃든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서 기억해야 할 이름을 눈에 담았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한반도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특히 전라도는 임진왜란 초기 왜군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했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의병 활동을 벌였다. 일제가 전남을 중심으로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을 전개해 무자비한 대학살을 했지만 의병 정신을 꺾진 못했다. 1910년 국권피탈로 나라를 빼앗기자 만주, 연해주 등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하는 독립군이 생겨난 것이다. 지난 3월 전남 나주에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건물 외관을 둘러싼 3만 3000개의 알루미늄 패넬이 부딪히며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바람이 거셀수록 점점 커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일제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던 의병의 힘찬 함성을 떠올렸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선 의병들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그려 본다.



+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이런 곳이에요

나라를 위해 싸운 남도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전남 나주에 설립한 박물관이다. 건물 외관을 둘러싼 3만 3000개의 알루미늄 패넬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는데, 이는 남도 의병의 함성과 숨결을 상징한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2019년부터 유물 3000여 점을 수집했으며, 주요 유물로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 태극기, 이순신의 수결이 적힌 임명첩, 왕의성 의병장이 사용한 칼 2점이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공간도 마련했다.

주소 전남 나주시공산면 의병박물관길 1
문의 061-286-7087

남도의병 일어난 처럼 들을



수화기를 들자 흑백사진이 컬러영상으로 바뀐다. AI를 활용해 의병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연출한 것이다. 남편을 따라 의병이 된 양방매는 뜻을 이루는 데 성별 구분은 없다고 말한다. "이 땅에 나처럼 나라를 위해 일어난 용감한 여성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기억이란, 사건의 결과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던 사람도 들여다보는 일일 테다.



제1전시실 & 기획전시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나뉜다. 전시동 1층의 제1전시실은 임진왜란과 대한제국 전후 남도 의병의 역사를 소개한다. 사건의 흐름에 따라 의병장의 초상, 문집, 지도 등을 비치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개관 기념 사진전 <사진으로 본 나주 정렬사의 어제와 오늘>이 열린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을 비롯해 나주 의병 5위를 모신 사당인 정렬사의 변천 과정을 되돌아보는 전시로, 4월 23일까지 이어진다.

상설전시실의 주요 유물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태극기

1907년 을사늑약에 맞서 담양과 구례에서 활약한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 태극기가 약 40년간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보관됐다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남도로 돌아왔다. 태극기에 새겨진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뜻의 글귀, 불원복(不遠復)에는 독립을 향한 남도 사람들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200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순신의 수결이 적힌 임명첩

1597년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재기용된 후 목포 고하도에 머무를 당시 고흥에 거주하던 신군안을 의병장으로 임명했다. 이때 발급한 임명첩으로 이순신의 수결인 일심(一心)이 적혀 있다. 임진왜란 전 기간을 통틀어 이순신 장군이 특정 인물을 의병장으로 임명한다는 유일한 문서로 확인된 내용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왕의성 의병장이 사용한 칼

정유재란 당시 구례 석주관 전투에서 왕의성 의병장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칼 2점이다. 제1차 석주관 전투에서 아버지 왕득인이 순국하자 아들 왕의성은 구례 지역에서 의병을 모집했고, 이에 응한 화엄사의승 153명과 함께 싸웠다. 구례 화엄사에 군량미와 의승 파견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회신을 받은 문서도 같이 전시한다.



김천일의병장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호남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다. 1606년 나주 유림들이 김천일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월정봉 아래에 정렬사를 건립했는데, 현재는 대호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주 지역민들은 매년 김천일의 의병장의 창의일인 음력 5월 16일에 정렬사에서 제향을 지낸다. 기획전시실에서 정렬사의 변천 과정과 함께 나주 시민의 옛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남도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의병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평생 학문을 닦던 유생은 붓 대신 칼을 들었고, 여성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의병을 치료하고 보살폈다. 가마를 타고 전투를 지휘한 맹인 의병장 백낙구도 있었다. 참혹한 현실 앞에서 장애는 방해물이 되지 않았다. "귓가를 스치는 소리는 고통에 찬 백성들의 비명이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의병으로 나선 이들의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제2전시실 & 무명의병 추모실

제1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관람한 뒤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면 제2전시실이 나온다. 영상실에서는 국가 위기 앞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봉기했던 이들의 활동을 조명하고, 기록물 전시실에서는 임진왜란과 대한제국 시기에 활약한 의병의 기록물을 살펴본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의병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도 조성했다.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에서 보내온 석재를 지리적 위치에 따라 세운 무명의병 추모실에는 들꽃을 바치는 현대대가 있다.



기록물 전시실에 들어서면 황현의 초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혼란한 시대에도 붓으로 진실을 기록해 지식인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황현은 1910년 국권피탈로 나라를 빼앗기자 절명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자결하며 남긴 절명시를 비롯해 연적, 벼루, 안경 등 집필 활동에 쓰던 유품이 비치되어 있다.

경사로를 따라 제2전시실로 내려가는 길에 만나는 영상 작품 '이름을 남긴 의병들'이다. <호남절의록>에 적힌 임진왜란 시기에 활동한 의병 1500여명과 공훈전자사료관에 기록된 대한제국 시기 의병 800여명의 이름으로 남도 의병의 모습을 표현했다. 고경명, 안규홍, 이충실... 크게 쓰인 이름만이라도 소리 내어 불러 본다.



의병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한 영상을 의자에 앉아 관람했다. "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총칼을 들 필요는 없었다. 가장 작은 깃발 하나라도 지켜야 할 가치는 뚜렷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독재자의 억압이 극에 달할 때마다 반복된 투쟁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다. 철쭉같은 시대의 밤을 밝힌 촛불과 야광봉 또한 잊지 못할 것이다.



'의리' '의지' '당당' '의로운'은 팽나무 아래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스토리의 주인공 캐릭터다. 다섯 가지 체험을 완료한 어린이에게 이 캐릭터 모양 키링을 제공한다. 캐릭터 네 개를 다 모으고 싶다면 어린이박물관에 여러 번 방문해도 좋다.



나무 손잡이를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면 바람이 나와 불꽃 그림이 점점 환해진다. 철을 녹여 무기를 제작하는 과정 일부를 재현한 것이다. 빠른 속도를 일정 시간 유지해야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병 동료의 응원이 필요한 구간이다. 옆쪽 벽면에는 무기 제작 방법과 당시 의병이 사용한 무기 종류를 설명하는 글이 적혀 있다.



의병들은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비밀 신분증인 신표를 가지고 다녔다. 박물관에 입장해 의병 사령부에서 신표 팔찌를 받고 키오스크에 QR코드를 찍으면 몇 번째 의병인지 화면에 나타난다. 다섯 가지 체험을 하는 동안 곳곳에 숨겨진 QR코드 리더기에 신표 팔찌를 찍어 체험 달성률 100퍼센트가 되면 소정의 선물을 준다.



일라이다의 수원 행궁동 나들이

Ilayda's Stroll Through Haenggung-dong, Suwon



일라이다 아심길 Ilayda Asimgil

방송인이자 모델.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후손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왔다. 지난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새로운 커리어를 찾고 있다. 고등학생 시절 한국인 친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처음 접했고, 2018년 성인이 되자마자 첫 배낭여행지로 한국을 택했다. 그의 한국살이는 올해로 8년째. 쾌활한 성격에 호기심이 많은 그는 한국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Ilayda is a broadcaster and model from Berlin and a descendant of a Korean War veteran. She completed her graduate studies in International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st year and is now searching for a new career path. She first encountered Korean culture through a Korean friend in high school and chose Korea as the destination for her first backpacking trip in 2018. This year marks her eighth year living in the country. With an outgoing personality and boundless curiosity, Ilayda says she still wants to learn much more about Korea.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세운 수원화성은 2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을 품어주는 든든한 터전이다. 튀르키예계 독일인 일라이다와 함께 고즈넉한 성곽 길을 걷고, 견고한 성벽을 이웃 삼은 행궁동 골목 곳곳의 매력적인 공간을 찾아나섰다.

Built by King Jeongjo, the 22nd ruler of the Joseon Dynasty, Suwon Hwaseong Fortress has sheltered the lives of people for more than two centuries. Together with Ilayda, a Turkish-German visitor, we set out to walk along the quiet fortress walls and explore the charming corners of Haenggung-dong that have grown up beside them.



아버지를 향한 효심의 길, 수원화성

Suwon Hwaseong Fortress:
A Path of Filial Devotion

“화서문에서 내려 줄게요. 장안문 쪽으로 걸어가며 내려다보는 행리 단길 풍경이 예쁘거든요.” 택시 기사에게 수원화성에 간다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 맞춤형 동선을 일러 준다. 그의 말마따나 조선의 건축미와 근대의 흔적이 교차하는 풍경을 굽어보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마치 가본 적 없는 시간의 틈새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다. “저는 고택이나 성곽 같은 역사적 장소를 좋아해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사라지는 시대에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지켜 온 것을 보면 안정감이 들거든요”라며 일리이다가 거든다. 이 거대한 성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해 품은 마음속 약속이기도 했다. 사도세자 묘를 수원으로 옮기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정조는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강화할 전략적 요충지로 수원화성을 축조했다. 아버지에 대한 정조의 효심을 되새기며 일리이다와 수원화성 성곽 길을 천천히 걸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2

“I’ll drop you off at Hwaseomun Gate. If you walk toward Jangnamun Gate, the view overlooking Haengnidan Street is beautiful.” The taxi driver, hearing that we were headed to Suwon Hwaseong, immediately suggested the route. Just as he said, the view reveals a scene where Joseon-era architecture meets traces of the modern city. It feels as though we are stepping into a fragment of time we have never visited before. “I love historical places like old houses and fortress walls,” Ilayda says. “In a time when everything changes and disappears so quickly, places that have remained for hundreds of years feel reassuring.” The sense of stability that comes from what endures. This vast fortress also stands as King Jeongjo’s promise to his father. After relocating the tomb of Crown Prince Sado to Suwon, Jeongjo envisioned a new future for the area and ordered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as a strategic city that could strengthen both defense and commerce. With the king’s devotion to his father in mind, Ilayda and I slowly follow the fortress wall, taking in the scenery of Suwon one step at a time.

Address 320-2, Yeonghwa-dong, Jangan-gu, Suwon-si, Gyeonggi-do





나혜석을 추억하며, 패터슨커피

Remembering Na Hye-seok at Paterson Coffee

수원을 여행하다 보면 '나혜석'이라는 이름을 자주 만나게 된다.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여성운동 선구자인 나혜석의 생가가 이곳 행리단길에 있고, 행궁동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인계동에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조성한 나혜석거리가 자리한다. 행리단길 중심 거리를 걷다 마주치는 패터슨커피는 나혜석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드립 커피 전문점으로, 나혜석의 자손이 운영하는 곳이다. 빈티지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실내에는 나혜석 관련 서적과 말 모양 오브제가 가득하다. 5년 전 승마 선수 출신 나진수 대표가 아내, 아들과 함께 카페를 시작했다. 아내가 오랜 시간 모아 온 빈티지 찻잔에 아들이 정성스레 내린 커피가 가득 담긴다. "깔끔한 산미와 묵직한 보디감이 레트로한 분위기와 더없이 잘 어울려요."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일라이다의 표정이 한껏 밝아진다. 패터슨커피의 자랑, 단호박 케이크는 어떤 맛일까. "단호박의 달콤한 맛과 폭신한 식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두 눈을 반짝이며 케이크를 먹는 일라이다를 보니 그 맛이 저절로 상상이 간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33

While traveling through Suwon, the name Na Hye-seok appears again and again. A pioneering feminist and Korea's first professional female painter trained in Western-style art, Na Hye-seok left a lasting mark on the city. Her birthplace stands along Haengnidan Street, and Na Hye-seok Street, created to honor her legacy, lies about 20 minutes away by car in Ingye-dong. Walking along the main street of Haengnidan Street, we come across Paterson Coffee, a café with a special connection to the artist. It is run by one of Na Hye-seok's descendants. Known for its hand-drip coffee, the café combines vintage charm with a refined atmosphere. The shelves are filled with books about Na Hye-seok, along with horse-shaped objects that add a distinctive touch. Five years ago, owner Na Jin-su, a former equestrian athlete, opened the café after retiring from competition, working together with his wife and son. Coffee brewed by his son is served in vintage teacups that his wife has collected over many years. "The clean acidity and full-bodied flavor go perfectly with the café's retro atmosphere," Ilayda says after taking a sip, her face lighting up. Paterson Coffee's specialty is its sweet pumpkin cake. The natural sweetness of pumpkin and the soft texture make it really delightful," she adds, her eyes bright as she tastes it. Watching her enjoy the cake, it is easy to imagine just how good it must be.

Address 33, Hwaseomun-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음악과 이색 메뉴가 있는 곳, 롱플레이어 Long Player: Music and Unique Bites

수원 행리단길 탐험의 종착지는 LP 숍이자 바, 롱플레이어다. 평소 보이 밴드 데이식스의 곡을 즐겨 듣는다는 일라이다는 2층짜리 공간을 가득 메운 LP와 CD, 카세트테이프, 각종 음향 기기와 필름 카메라에 금세 매료됐다. 포크 록 뮤지션인 김동산 대표가 운영하는 이곳은 오후 6시가 되면 LP 박스가 바 테이블이 되고, 김 대표가 즉석에서 똑딱 만드는 '오늘의 요리'가 식욕을 자극한다. '김치찌개와 크레이프'라는 종잡을 수 없는 메뉴 구성만큼이나 이곳의 밤은 자유롭다. "베를린은 밤새 클럽에서 테크노를 즐기는 반면, 한국은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 데이식스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한 일라이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 주기라도 하듯 연태고량 하이볼 한 잔이 테이블에 놓인다. 김 대표가 고량주 팝업 행사에서 선보인 메뉴다. 연태고량주의 알싸한 맛이 짜릿한 탄산수와 섞여 청량하게 입안을 적신다. 술잔 부딪치는 소리와 감미로운 음악이 뒤섞인 행궁동의 밤이 로맨틱하게 물들어간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86번길 12

The final stop on our Haengnidan Street exploration is Long Player, an LP shop and bar. Ilayda, who says she often listens to the boy band DAY6, is instantly drawn to the two-story space filled with LP records, CDs, cassette tapes, audio equipment, and film cameras. Run by folk-rock musician Kim Dong-san, the venue transforms in the evening. At 6 p.m., boxes of LPs become bar tables, and Kim prepares a spontaneous "dish of the day" behind the counter. The menu can be as unpredictable as kimchi stew one night and crêpes the next, giving the place an easygoing, free-spirited atmosphere. "In Berlin, people usually spend the night dancing to techno in clubs," Ilayda says. "In Korea, there's also a culture of quietly listening to music." As if to comfort her after recently missing out on tickets for a DAY 6 concert, a glass of highball arrives at the table. The drink, created for a recent pop-up event, blends the bold flavor of Baekdu gaoliang with sparkling soda, creating a refreshing, lively taste. The clink of glasses and the gentle music mingle in the air as the night in Haenggung-dong takes on a romantic glow.

Address 12, Jeongjo-ro 886beon-gil, Paldal-gu, Suwon-si, Gyeonggi-do



군산 구영길의 힙한 물결

구영길은 전북 군산이 항구도시로
번성하던 시절의 영화를 품은 거리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곳에 트렌디한 공간이
속속 들어섰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군산역까지
3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군산역에서
13번 버스를 타고 내항사거리·백년광장
정류장에서 내려 여행을 시작한다.



양조장 옆 작은 목욕 공간 흑화양조 & 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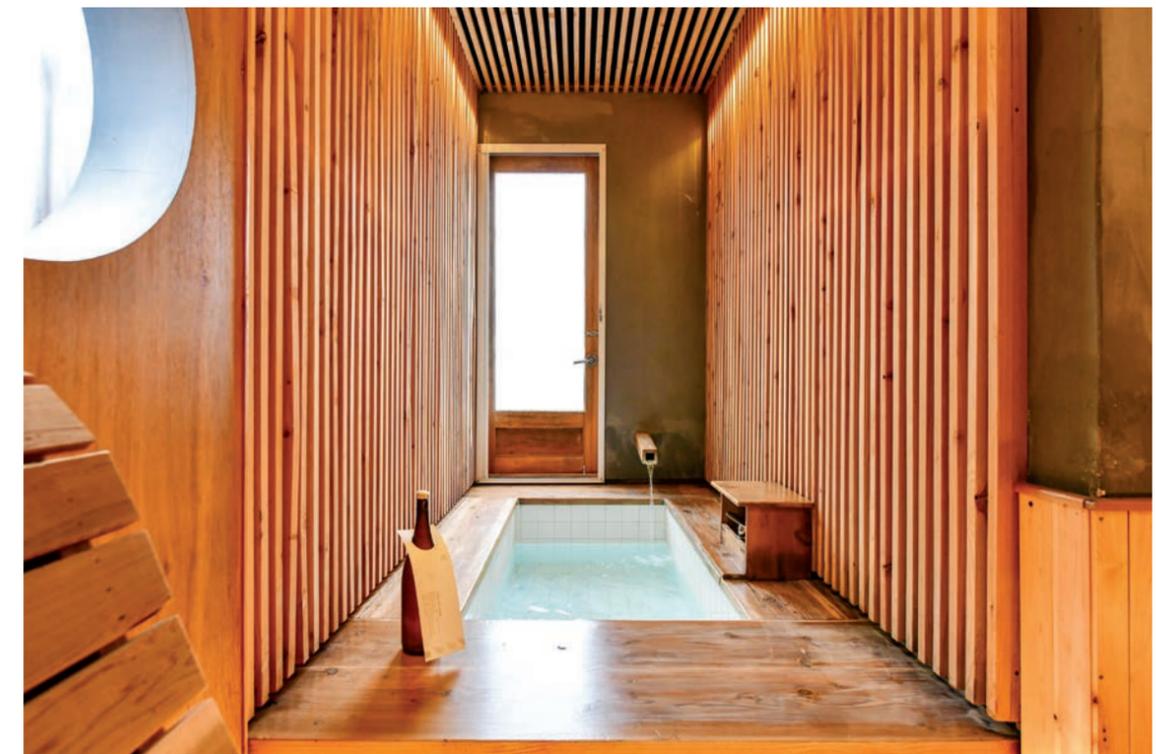
흑화양조는 군산에서 차례주로 이름을 날린 백화수복의 전통을 잇는 정통 술을 빚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다. 흑화양조의 시그너처는 군산 신동진 쌀로 만든 프리미엄 탁주 '군주'. 탁주에 적합한 단일 군만 선별해 배양한 뒤 입국(入麴) 방식으로 발효하고, 세 번의 덧술 과정을 거쳐 완성한다. 군주는 쌀 고유의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산미가 어우러져 깔끔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특징이다. 매주 주말 군주 무료 시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흑화양조 뒷골목에는 모락이 자리한다. 군산 원도심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프라이빗 목욕 공간으로 흑화양조에서 운영한다. 모락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일본식 다다미방과 삼나무 욕조. 따끈한 물을 받은 욕조에 군산 쌀로 빚은 발효 술을 부으면 술 향기가 술술 피어오른다. 그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스르르 풀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발효 술에는 쌀의 효소와 효모의 단백질, 알부틴 성분이 들어 있어 노폐물 배출을 돕고 피부를 고르게 정돈해 준다. 욕조 앞엔 나무 의자가 놓여 있어 잠시 앉아 몸을 식히기 좋다. 군산 특산물인 흰쌀보리로 만든 티백도 제공하는데, 목욕을 마친 뒤 다다미방에서 차를 우려 마시면 따뜻한 몸과 함께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진다.

주소 전북 군산시 구영7길 11(흑화양조), 구영6길 18(모락)
문의 0507-1408-0715(흑화양조), 0507-1434-1497(모락)



감도 높은 이탈리아 다이닝 파라디소90

파라디소90은 복합 문화 공간 '그라운드 호텔'에 들어선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다. 상호명은 이탈리아어로 낙원을 뜻하는 '파라디소(paradiso)'에 구영길에서 따온 숫자 '9'와 '0'을 더해 '구영길에서 만나는 낙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곳에서는 정통 이탈리아식 피자를 판매하는데, 대표 메뉴는 이탈리아식 원형 피자 톤다(tonda)와 로마식 막대기 피자 팔라(pala), 밀라노식 네모난 피자 테글리에(teglie)다. 파라디소90 피자 맛의 핵심은 도(dough). 오랜 노후우가 담긴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살렸다. 팔라는 삼 모양의 긴 막대기를 이용해 도를 오븐에 넣고 굽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반죽은 토르티야처럼 얇고 형태는 길쭉한 타원형이다. 맛은 총 네 가지. 부팔라 치즈와 루콜라, 모르타렐라와 로메인, 매콤 소스 초리조, 녹인 다섯 가지 치즈다. 이 중 두 가지를 골라 반반 피자도 즐길 수도 있다. 피자뿐 아니라 군산의 신선한 해산물을 이용한 봉골레 파스타와 든든한 한 끼로 좋은 파스트라미 & 브리 치즈 치아바타 샌드위치도 인기 메뉴다. 소프트드링크와 맥주, 와인도 다양하게 갖춰 넉넉하고 기분 좋은 식사를 하기에 좋다.



감성 가득한 젤라토 가게 젤라또 노베오

구영길에서 '감성 젤라토 가게'로 입소문이 자자한 젤라또 노베오는 달걀을 쓰지 않는 이탈리아 남부식 레시피로 젤라토와 제철 과일 소르베를 만든다. 원재료의 맛과 질감, 색 등을 가장 맛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탄생한 대표 메뉴가 이탈리아어로 쌀을 뜻하는 '리소(Riso)'. 군산 쌀로 만든 젤라토다. 부드러운 젤라토 사이로 쌀알이 푹 씹히며 고소한 풍미가 은은하게 퍼진다. 민트 초콜릿을 좋아하는 마니아라면 '멘타 에 초콜라토(Menta e Cioccolato)'도 꼭 맛봐야 할 메뉴다. 깔끔하게 우려낸 페퍼민트에 진한 다크 가나슈를 넣어 달콤하면서도 상쾌한 여운을 남긴다. 레몬과 산딸기를 아낌없이 넣어 만든 소르베도 젤라토와 함께 즐기기에 좋은 산뜻한 조합이다. 이곳의 모든 젤라토는 콘이나 컵에 담아 먹는데,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콘을 추천한다. 매장 뒤편 증정에 놓인 의자에 걸터앉아 봄 햇살을 느끼며 달콤한 맛을 음미해 보자. 진한 풍미의 젤라토 한 입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 준다.

주소 전북 군산시 구영4길 18 문의 063-450-4570



평화를 찾고 싶다면 피스오피스

PEACE(Office). 이름대로 평화로운 것만 같은 공간이다. 캐릭터 디자이너이기도 한 피스오피스의 원현지 대표는 이곳을 "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취향을 듬뿍 담은 공간"이라고 소개한다. 구영길에서 작업실을 구하던 중 지금의 건물을 발견해 1층에 오래된 사무실 콘셉트의 빈티지 스푼을 열었다. 철제 캐비닛과 타자기 등을 이용해 곳곳에 레트로 감성이 깃든 매장을 꾸미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다. 낡은 컴퓨터와 오디오, 플로피디스크 등 원 대표가 오랫동안 수집해 온 물건들 옆에는 빈티지 의류와 안경, 반려 식물 등이 진열돼 있다.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 인형 키링과 문구류, 엽서도 눈길을 끈다. 그중에서도 "나는 짱이다. 나는 멋지다. 나는 베리 굿이다" "타인의 눈을 신경 쓰느라 나의 즐거움을 놓치지 말자"처럼 자존감을 북돋우는 문구가 적힌 볼펜이 특히 인기 있다. 가끔 이곳의 터줏대감 같은 강아지 테디나 로디가 방문객을 맞이하기도 한다.

주소 전북 군산시 구영5길 101 문의 0507-1398-0496



책으로 마음을 쓰다듬는 시간 심리서점 쓰담

구영길에서도 유독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심리서점 쓰담은 운영민 대표가 심리상담사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다. 일본식 가옥의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커피 향이 풍겨 오며 아늑한 분위기의 서가가 모습을 드러낸다. 연애 시절 첫 여행지였던 군산에 정착한 윤 대표는 마음을 돌보게 해 주는 심리 서적을 직접 선별해 소개한다. 서가에는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또 화내고 늘 후회하고 있다면> 등 제목만 봐도 내면을 건드리는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책 곁에는 추천 이유를 적은 짧은 글귀가 붙어 있어 시선을 붙드는 문구를 따라 책장을 넘기게 된다. 심리서점 쓰담을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 5000원을 내고 공간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음료 한 잔을 주문하면 이곳 어디에서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공간 이용권을 구입한 뒤 책이나 굿즈를 구매하면 5000원을 차감해 준다. 화창한 봄날에는 2층 테라스에 앉아 바람을 느끼며 책을 읽기도 좋다. 사전 예약을 하면 심리검사(통합 스트레스, 대인관계, 회복 탄력성)와 심리상담, 책 처방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상담받을 수 있는 지역 센터와 연결해 주기도 한다. 덕분에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작은 위로를 얻기 위해 심리서점 쓰담을 찾는 여행자가 늘고 있다.

주소 전북 군산시 구영3길 31-16 문의 0507-1425-1107



구영길의 밤을 밝히는 아지트 재즈클럽 머디 & 바 인그리드

저녁 무렵 구영길에서 검붉은 타일을 두른 담벼락을 만난다면 좁은 골목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 미음(ㅁ) 자형 중정을 사이에 두고 재즈클럽 머디와 바 인그리드가 이어진다. 재즈클럽 머디는 변화하지 않은 조용한 동네에서 재즈 클럽을 운영하고 싶었다는 송성진 대표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공간. 고향이 군산인 그는 점집이 모여 있는 구영길의 한 모퉁이를 재즈클럽 자리로 낙점했다. 그렇게 작은 재즈클럽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는 점차 주변 공간으로 확장되며 '그라운드 호텔(Ground Hotel)'이라 부르는 도심형 호텔 콤플렉스로 발전했다. 구영길 일대의 오래된 건축물들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되살린 것이다. 이곳에 들어선 재즈클럽 머디에서는 정기적으로 라이브 재즈 공연이 열려 로컬 주민과 여행자 모두 한적한 구영길에서 맥주나 와인을 즐기며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재즈클럽 머디와 연결된 바 인그리드는 100여 년 된 건물을 현대적으로 다듬은 위스키 바다. 뒤편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네모난 중정에 멋들어진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한쪽에는 각기 다른 콘셉트의 프라이빗 룸이 이어진다. 바 인그리드는 클래식 칵테일과 싱글 몰트위스키는 물론, 술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한 무알코올 칵테일도 갖추었다. 이토록 근사한 공간에서 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밤을 보내고 나면 군산이 더욱 사랑스러워진다.

주소 전북 군산시 구영4길 18 문의 063-450-4530(재즈클럽 머디), 063-450-4560(바 인그리드)



연극 <칼로막베스>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재창작한 작품으로, 권력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과 과멸이 중심 내용이다. 극악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잔인함을 칼에서 총으로 바뀌는 연극적 상황으로 은유했다.



권력의 부질없음을 말하는



칼로막베스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극단 마방진은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쉴 새 없이 무대에 올리면서 연극계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극단의 성인식을 자축하는 계획이 흥미로운데, 2010년에 초연한 무협 액션극 <칼로막베스>가 그 시작을 알린다. 이 작품은 16년 전 고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동시대성을 획득했고, 연극의 놀이적 성격을 극대화해 호평을 받았다. 단 3일간의 공연으로 동아연극상 작품상과 연출상까지 수상해 당시 연극계를 놀라게 했다. 극단 마방진은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창단 20주년 기념 첫 작품으로 극단의 대표 레퍼토리인 <칼로막베스>를 선택했다.

칼에서 총으로:
점점 더 난폭해지는 권력

연극 <칼로막베스>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를 각색한 작품이다. 원작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마지막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권력을 탐한 대가로 파국에 이르는 맥베스의 여정을 따라간다.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세 마녀의 세 가지 예언을 들은 장군 맥베스는 그 예언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에 놀라면서 자신이 왕이 된다는 마지막 예언을 두고 혼란에 빠진다. 왕의 자리는 그냥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닌 테다 덩컨 왕은 그의 아들 맬컴을 후계자로 정했기 때문이다. 맥베스에게 예언을 전해 들은 맥베스 부인은 그들의 집에 머물게 된 왕을 시해하고 예언대로 왕이 되라며 남편을 자극한다. 주저하던 맥베스는 결국 왕을 죽이고 그 죄를 맬컴에게 뒤집어씌워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 원하던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맥베스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만다. 반역의 싹을 없애기 위해 자신과 함께 예언을 들은 오랜 친구 벵퀴를 죽이고, 충신인 맥더프의 가족마저 몰살한다. 부당하게 얻은 권력이기에 자신처럼 누군가 왕좌를 노리는 건 아닐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에 떠다.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직접 처단하기도 한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죽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는 맥베스는 잠들지 못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잃어버린다. 남편보다 더 강인한 면모를 보였던 맥베스 부인도 살인이 일어난 밤의 환영에 시달려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생을 마감한다. 궁지에 몰린 맥베스는 다시 만난 마녀들에게 도무지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예언을 듣고 안심하지만,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면서 죽음을 맞는다. 셰익스피어는 짧은 장면들을 이어 붙여 맥베스의 몰락을 속도감 있게 그려 내면서 권력의 논리에 담긴 폭력성과 권력을 좇는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한다. 극단 마방진의 <칼로막베스>는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시공간에 특별한 설정

“누구라도 막 베어 버리는! 그래서 이 연극은 맥베스가 아니라 맥베스지요.”

을 부여한다. 시간적 배경은 먼 미래, 공간적 배경은 흉악범으로만 채워진 수용소 '세렝게티 베이'로 정했다. 80미터 장벽 안에서 대를 이어 생존하는 존재들은 그 속에서 권력관계를 만들고 영토를 구분해 세력을 유지한다. 이들의 무기는 칼.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제목 '칼로 맥베스'는 방해되는 이라면 모조리 칼로 막 베고 다니는 인물을 표현한 것이다. 맥베스는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었고, 이에 대항하는 맥더프와 맥컴이 칼을 휘두르며 권력을 되찾는다. 원작대로라면 여기서 끝나야 하지만 각색을 맡은 고선웅 연출가는 반전을 시도했다. 국가의 교정 장소인 세렝게티 베이의 관리자는 수용자 수를 줄이면 남은 사람들이 더 풍족하게 살 거라는 명분을 내세워 총을 지급한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맥베스가 죽이려다 실패한 플리언스(뱅크의 아들)가 총을 난사하는 '막싸'가 되어 등장인물을 모두 몰살한 것이다. 이렇듯 공연은 다소 과격하고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막을 내린다. 극악무도한 독재자가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사이, 새로운 권력자가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등장해 왕위를 강탈한 것이다. 이는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맥베스의 칼이 플리언스의 총으로 바뀌는 결말이 황당하면서도 공포스러운 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 또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협 액션극: 배우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가득한 무대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연극의 특성상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다. 가령 많은 인원이 필요한 대규모 전쟁 장면은 인물들이 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등장 인물이 전쟁 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대체한다. 물속을 주요 공간으로 설정한 작품도 실제로 무대에 가득 물을 채울 수 없으니 조명이나 무대장치를 이용해 관객이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 <칼로 맥베스>가 표방한 무협 액션극도 무대에 구현하기 어려운 장르 중 하나다. 역동적인 액션을 펼칠 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한 데다 오랜 시간 강도 높은 연습으로 배우들이 힘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칼을 쓰는 무협 장르를 연극에선 좀처럼 보기 어렵다. 극단 마방진은 20주년 기념 공연의 첫 작품으로 <칼로 맥베스>를 선택한 이유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단원들은 고강도 신체 훈련에 열의를 다했고, 무대에선 에너지 넘치는 액션의 힘을 보여 줬다. 팀워크에 대한 극단의 자부심이 공연 전반에서 엿보인다. 맥베스 역의 김호산 배우는 각종 무술을 섭렵한 유단자로, 탄탄한 몸과 짧게 깎은 머리가 인물의 강인함을 드러낸다. 초연 당시에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돋보였다면, 16년 후 그가 연기하는 맥베스는 호흡

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감각이 한층 섬세해졌다. 덕분에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맥베스의 무모한 성격은 물론, 권력을 손에 쥐고도 불안에 휩싸인 심리 상태까지도 완벽하게 표현해 낸다. 완성도 높은 무협 액션극 <칼로 맥베스>는 극단 마방진의 신구 배우들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빠르게 뻗는 대사, 느닷없는 제스처 등 고선웅 대표 특유의 연출법을 체화한 단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강한 에너지를 분출한다. 국립창극단의 대표 소리꾼이었던 김준수는 맥베스 부인 역을 맡아 연극에 처음 도전했다. 맥베스를 자극하는 강인한 면모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섬세한 감정을 그만의 방식으로 풀어냈다. 공연 중간에 소리꾼의 창법으로 대사를 구사해 색다른 즐거움도 선사한다.

<칼로 맥베스>는 관객의 몰입감을 최대로 끌어내는 삼면 개방형 무대, 위태로움과 불안을 표현하기 위해 얼기설기 세운 철구조물, 하드록 분위기의 강렬한 음악 등 <맥베스>를 각색한 기존 작품과는 전혀 다른 연출 기법을 택했다. 사뭇 진지한 장면엔 유머를 넣어 연극을 하나의 놀이처럼 여기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시점에서 특별한 모범 사례가 되리라 예상된다. 극단 마방진은 이 작품을 시작으로 <리어왕외전> <홍도>를 4월까지 연달아 공연한다. 성년식을 아무지게 기념하고 극단의 넘치는 열정을 보여 주는 화려한 라인업이다. 듬직한 청년이 된 극단 마방진은 20년 동안 그래 왔듯 뜨겁고 믿음직하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오랜 시간 지켜본 관객으로서 이 뜨거운 극단의 앞날을 응원한다.



<칼로 맥베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극단 마방진의 고선웅 대표가 각색하고 연출해 무협 액션극으로 선보인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권력의 폭력성을 다룬 원작의 주제 의식을 관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근미래의 교화 시설 '세렝게티 베이'를 배경으로 설정했다. 초연에서 맥베스를 연기한 김호산 배우가 다시 맥베스를 맡고, 맥베스 부인 역으로는 소리꾼 김준수와 원경식 배우가 출연한다. 4월 4일과 5일 부산문화회관에서, 4월 10일과 11일 경기도 성남아트센터에서 순회 공연을 이어간다. 4월 18일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서울 앙코르 공연을 한다.
 기간 2월 27일~3월 15일
 장소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

토크쇼의 귀환, 다시 ‘말’의 시대

한동안 방송에서 자취를 감췄던 토크쇼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유튜브에서 꽃피운 토크쇼 전성시대가 OTT와 TV로 확장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다.



1989년 <자니윤 쇼>로 시작한 국내 토크쇼는 늘 TV 예능의 중심에 있었다. 유명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진행자가 능숙한 질문으로 대화를 풀어내는 형식은 비교적 적은 제작비로 높은 화제성을 만들어 내는 '고효율 방송'이었다. 한국 대중문화가 급성장하던 시기와 맞물려 토크쇼는 자연스럽게 스타들의 대표적인 홍보 창구로도 자리 잡았다. 그러다 버라이어티와 관찰 예능, 서바이

벌 오디션 등 도파민 충만한 프로그램들이 트렌드를 타기 시작했다. 2020년대에 들어 정통 형식의 토크쇼는 방송가에서 자취를 감췄고, 에피소드 위주의 가십을 다루는 몇몇 프로그램만 남았다. 토크쇼의 명맥을 잇는 건 TV에서는 <유 퀴즈 온 더 블럭>(tvN)밖에 남지 않았다는 평이었다. 물론 토크쇼의 '말'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오히려 유튜브로 무대를 옮기면서 토크쇼 전성시대가 열렸으니까.

허물없는 친숙함, 유튜브 토크쇼

레거시 방송이 더 이상 주목을 끌지 못해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로 대중의 관심이 쏠렸을 때, 많은 연예인도 유튜브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토크쇼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브이로그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내는 건 한계가 있다. 대신 이들에게는 방송으로 단련된 입담과 게스트 확보가 용이한 인맥이 있다. 게다가 유튜브는 레거시 방송보다 표현 수위와 PPL 등의 제약이 덜하고, 러닝타임과 방송 날짜 등 편성 면에서도 자유롭다. 유튜브의 이런 장점은 토크쇼의 진행자는 물론 게스트, 제작진 모두의 부담을 덜어 준다. 붓물이 터진 건 2022~2023년경. 유재석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사소한 주제로 자유롭게 토크를 나누는 뜬뜬 채널의 '핑계고'가 나왔고, 신동엽이 자신의 특기를 살린 음주 토크쇼 '짤한형 신동엽'으로 게스트는 물론 시청자들을 열근하게 취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정재형이 게스트와 함께 요리와 수다를 즐기는 '요정재형' 속 '요정식탁', 탁재훈의 '노빠구탁재훈', 김태호 PD의 테오(TEO)가 제작하는 장도연 진행의 '살롱드립', 나영석 PD가 연출하고 진행하는 비정기 토크 웹 예능 '나영석의 나불나불', 피식대학 채널의 '피식쇼', 이영지의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등도 이 시기에 탄생해 기존 예능을 능가하는 화제성과 파급력을 보였다. 이후로 더 많은 연예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토크를 엮은 콘텐츠를 제작했다.

연예인이 주도하는 유튜브 토크쇼의 매력은 마치 친구와 수다를 떠는 듯한 친근함에 있다. 진행자와 사적으로 친한 게스트가 주로 초대되기에 그만큼 허물없는 이야기를 끌어내기가 용이한 것이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가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핑계고'다. 두 프로그램 모두 유재석이 진행하는 토크 중심 콘텐츠지만 전자가 질문을 통해 한 인물의 서사를 차분히 '듣는' 프로그램이라면, 후자는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에 가깝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의 정제된 이야기가 주는 울림도 좋지만, '핑계고'처럼 소소한 근황을 깔깔거리며 이야기하다 순간순간 상대방의 이면을 발견하는 것도 재밌다. 반려견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조승우나 '예쁘다'는 칭찬에 유난히 약한 임지연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유튜브 토크쇼가 아니면 쉽게 드러나지 않을 모습이다. TV 토크쇼가 홍보 행사처럼 굳어가는 동안, 시청자들은 몰라도 되는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토크쇼로 갈증을 해소했다.

OTT로 확장하고 TV로 복귀한 토크쇼

유튜브가 토크 콘텐츠의 전성시대를 열며 시장을 키우자 OTT도 움직이고 기존 레거시 방송도 토크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한국 예능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 잇달아 등장한 게 그 변화의 조짐. 지난해 11월 MBN은 <김주하의 데이

앤나잇>을 론칭했고, 쿠팡플레이는 이수지와 정이량이 나선 <자매치킨>으로 시작해 올해 2월에는 세계관을 확장한 <자매치킨>을 선보였다. <개그콘서트>의 캐릭터 '말차 할매'를 내세운 토크 예능 <말자쇼>(KBS2), 탁재훈·이상민·이수지·카이가 출연한 신개념 토크쇼 <아니 근데 진짜>(SBS), 시사 교양 토크쇼 <손석희의 질문들4>(MBC)도 올해 시작한 토크 프로그램이다. 화룡점정은 지난 3월 6일 방송을 시작한 쿠팡플레이의 <강호동네서점>. 강호동이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이후 14년 만에 돌아온 단독 토크쇼로, 20년 넘게 방송가를 주름잡은 '유강신(유재석, 강호동, 신동엽)'이 플랫폼을 떠나 모두 토크 콘텐츠를 한다는 것 자체가 토크쇼의 부활 조짐으로 읽힌다.

OTT로 확장되고 TV로 돌아온 토크쇼는 기존 토크쇼는 물론 유튜브 토크쇼와도 차별화를 꾀하는 중이다. 이들 프로의 공통점은 토크에 상황극과 콘셉트를 더해 예능 요소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은 아나운서 김주하의 이름을 걸었으나 개그맨 문세운, 가수 조짜즈와 함께하면서 '뉴스의 깊이와 예능의 유연함'을 결합한 토크테이먼트를 지향한다. 김주하가 매거진 편집장, 그리고 문세운과 조짜즈가 에디터가 되어 각계각층의 셀럽을 인터뷰하는 형식인데, 김주하가 상황극으로 애교 연기를 펼치는 등 전에는 상상도 못 할 장면이 연출된다. <아니 근데 진짜>는 '감옥'과 '소개팅'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토크와 함께 게임, 상황극 등을 버무리고, <자매치킨>과 <자매치킨>은 이수지와 정이량의 농익은 상황극 연기로 빛을 발하는 중이다. 최근 시작한 <강호동네서점> 역시 강호동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불멸의 존재 '호크라테스'가 되어 책방에서 손님을 맞는다는 상황을 설정했다. 반면 시즌 4를 맞은 <손석희의 질문들4>는 촌철살인과 위트 있는 질문으로 게스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정통 토크쇼의 묘미에 집중한다. 미리 섭외했었지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휴먼트>의 류승완 감독과 배우 조인성을 초대해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경을 들어본 것도 토크쇼만이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장면으로 꼽힌다.

방송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든 토크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인류가 생겨난 이래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소통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맞닿아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삶과 생각을 궁금해하고, 대화를 통해 때로는 동질감을, 때로는 신선한 충격을 얻길 원한다. 토크쇼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충실히 담아내는 클래식한 포맷이다. 시가 아무리 진화하고 영상 플랫폼이 발전한들 결국 사람들이 가장 오래 소비하는 콘텐츠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장면이었다. 그러니 지금 일고 있는 토크쇼의 변화는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소통하고 싶다는 시대의 염원에 대한 호응일지도 모른다.

NEWS



싱가포르 관광청 MZ세대 맞춤형 싱가포르 여행 코스제안

싱가포르 관광청이 즉흥적인 즐거움을 선호하는 젊은 여행객을 겨냥해 'We don't wait for fun(즐길 타이밍은 바로 지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하루 동안 쇼핑·레저·미식 등을 경험하는 'MZ세대 맞춤형 여행 코스'로, 오차드 로드와 소핑가를 탐험하고, 센토사섬에서 자이언트 스윙 같은 액티비티로 짜릿한 스틸을 즐긴 뒤 싱가포르 대표 야경명소인 클라크키의 레스토랑 네온 피전에서 식사와 함께 수제 컵타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홈페이지 visitsingapore.com



캐나다 관광청 '이 순간 작품 되나요?' 포토 트립 출사단 모집

캐나다 관광청이 캐나다와 협업해 넷플릭스 시리즈 <이 사랑 통역 되나요?>의 촬영지를 기록할 포토 트립 출사단 '이 순간 작품 되나요?'를 모집한다. 참가자는 캐나다의 고성능 RFL 렌즈 무상 대여와 인천-캘거리 직항 항공권을 지원받고 6월 1일부터 7일까지 5박 7일 동안 캘거리와 밴드랜드, 캐나다로키를 여행한다. 참가를 원한다면 4월 30일까지 캐나다 홈페이지에서 캐논 카메라 정품 등록 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홈페이지 travel.destinationcanada.com/ko-kr



전곡선사박물관 42센티미터 초대형 주먹찌르개 최초 공개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이 길이 42센티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주먹찌르개를 최초로 공개했다. 학계에서는 과거 고인류의 도구 제작 목적과 기술적 한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이 유물을 계기로 상설 전시실을 전면 개편하고, 위탁받은 국가귀속유물과 기증 유물을 향후 여러 단계에 걸쳐 대중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jgpm.ggcf.kr

VIDEO



<유미의 세포들 시즌 3>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유미의 세포들> 시리즈는 주인공 유미의 일상과 연애를 머릿속 세포들의 시각으로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3년 만에 돌아온 시즌 3에서는 소설을 출간하며 스타작가로 자리 잡은 유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문학사 편집부 PD 순록과의 연애와 함께 다시 요동치는 세포 마을 풍경이 기대를 모은다. 4월 13일 공개. 출연 김고은, 김재원 감독 이상엽 제공 티빙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2006년의 화제작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속편이 20년 만에 돌아온다. 종이 잡지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매체가 패션업계를 지배하는 변화 속에서 패션 매거진 <런웨이>가 맞닥뜨린 변화와 생존 과정을 그린다. 감각적인 스타일링과 특유의 유틸리티를 그대로 이어가는 한편, 전작의 주역들이 다시 뭉쳐 한층 깊어진 관계를 보여 준다. 4월 29일 개봉. 출연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감독 데이비드 프랭크

<내 이름은>

촌스러운 여자 이름을 버리고 싶은 열여덟 살 소년 영욱과 그 이름을 지켜야만 하는 어머니 정순. 이름에 얽힌 사연을 찾기 위해 제주 곳곳을 누비던 정순은 50년 전 잃어버린 기억에 조금씩 다가간다. 시대의 굴곡을 온몸으로 견뎌 온 제주 어머 정순으로 분한 염혜란과 10대의 내면을 세심하게 그려낸 신에 신우빈의 연기 호흡이 기대된다. 4월 개봉. 출연 염혜란, 신우빈 감독 정지영

<침묵의 친구>

독일의 한 대학 식물원에 1832년부터 뿌리내린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1908년대학 최초의 여학생 그레테와 1972년 식물과 교감하는 청년 하네스, 2020년 신경과학자 토니까지 세 인물의 삶이 이어진다. 각 시대를 35밀리미터 흑백 필름, 흐릿한 색감의 16밀리미터 필름, 또렷한 디지털 촬영으로 담아 시간의 층위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4월 15일 개봉. 출연 양조위, 루나 웨들러 감독 일디코 엔에디

<비발디와 나>

18세기 초 베네치아, 엄격한 규율의 피에타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소녀 체칠리아는 새로 부임한 음악 교사 비발디를 만나 바이올린에 천부적인 재능을 꽃피운다. 바로크 시대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발표 30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성장과 혼란을 겪는 체칠리아의 내면을 비발디의 음악으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4월 29일 개봉. 출연 테클라 인솔리아, 미셀리온디노 감독 다미아노 미키엘레토



<퀘도 너머>

예측 불가능한 삶의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지적 안내서. ADHD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과학자 카밀라 팡은 가설, 증명, 관찰, 편향 등 아홉 가지 과학 연구 과정을 통해 과학적 사고가 불확실한 세계를 돌파해 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복잡한 수식 대신 명쾌한 비유와 따뜻한 통찰로 채워진 이 책은, 정해진 퀘도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는 이들에게 지적 용기를 건넨다.

카밀라 팡 지음 푸른숲 펴냄

<자연의 상상력>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문학 교수이자 환경 사상가인 데이비드 패리어의 신작. 저자는 도시의 열섬 현상에 맞춰 겹겹이 색을 바꾸는 달팽이나 도로 위 차량 사이를 날기 위해 날개 형태를 바꾸는 절벽제비 등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들의 사례를 통해 자연이 기후 위기의 실마리를 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유려한 문체와 과학적 통찰을 결합한 이 책은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며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서사를 제안한다.

데이비드 패리어 지음 김영사 펴냄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16회 철도사진공모전 입선 '봄을 달리는 산천' © 황환기



KTX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올해 상반기 1830명 신규 채용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1830명을 신규 채용한다. 신입 사원은 공개 경쟁 채용으로 1286명, 제한 경쟁 채용으로 514명(자격증 제한 333명, 장애인 90명, 보훈 70명, 거주지 제한 21명)을 선발한다. 지역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모집했다. 일부 분야는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 후 별도 평가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

설 기간 승차권 압표 26건 수사 의뢰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승차권 압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중 1건은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코레일톡 앱과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암표제보방'을 통해 19건을 단속하고, 직원이 구매자로 가장해 압표 판매자를 특정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7건을 발견해 바로 회원 탈퇴 조치했다.

'자유석 셀프체크인' 서비스 ITX-청춘으로 확대



KTX와 ITX-새마을 열차만 가능했던 '자유석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ITX-청춘 열차까지 확대 운영한다. 자유석 셀프체크인은 자유석 승객이 좌석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스스로 검표하는 서비스다. 코레일톡 앱의 '승차권 확인' 메뉴에서 소지한 정기 승차권 또는 자유석 승차권을 선택한 뒤 셀프체크인 버튼을 눌러 QR코드를 찍으면 된다.

역·열차 CCTV 영상 'AI 모자이크'로 개인정보 보호



영상 속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비식별화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비식별화는 사진, 동영상 등에서 관련 없는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해 특정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다. 한국철도공사는 민원인이 역이나 열차의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때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했던 과정을 자체 AI 시스템으로 대체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없앴다.

KTX 개통 22주년 기념 이벤트

22글자로 22주년 축하해요

2026.3.30.(월) ~ 4.12.(일)



KTX와 함께한 22년간의 추억을 담은 사연부터,

하나되는 고속철도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까지!

KTX에게 하고 싶은 말을 22글자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참여해 주신 50분께 열차 22% 할인쿠폰,

우수작 선정 22분께 100%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참여 바로가기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p>좌석간격 Seat Space</p>  <p>KTX는 930mm, KTX-산천은 98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960mm입니다.</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p>  <p>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p>  <p>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	---	--	---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p>좌석간격 Seat Space</p>  <p>KTX와 KTX-산천은 112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1060mm입니다.</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식음료 Refreshment</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p>	<p>신문 Newspaper</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p>
---	--	--	--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p>화장실 Restroom</p>  <p>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 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p>  <p>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p>	<p>수유실 Breast-Feeding Room</p>  <p>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p>	<p>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p>  <p>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p>
<p>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p>  <p>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 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p>  <p>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 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의약품 First-Aid Medicine</p>  <p>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p>	<p>금연 No Smoking</p>  <p>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모바일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간,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간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1개월~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까지	60분 경과 후~도착 시간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40%	70%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KORAIL Website(www.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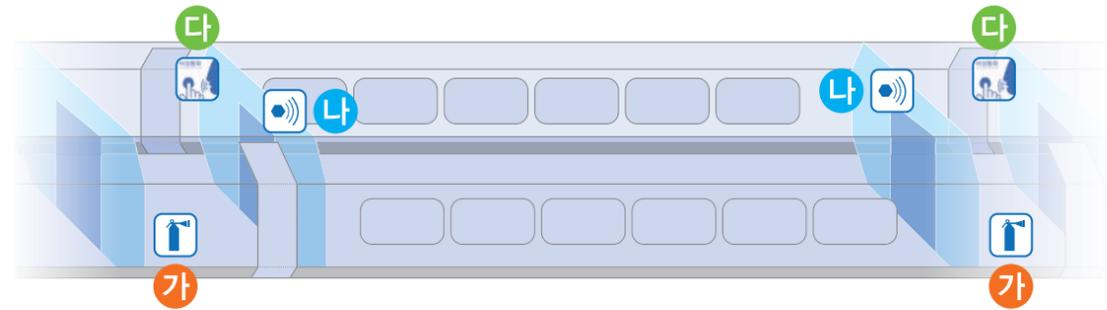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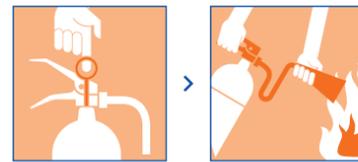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40%	7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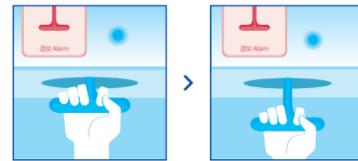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소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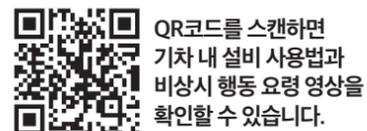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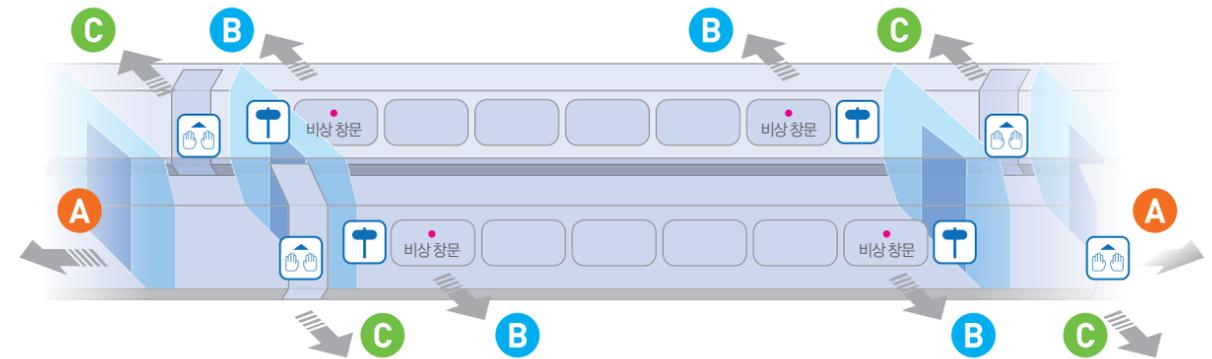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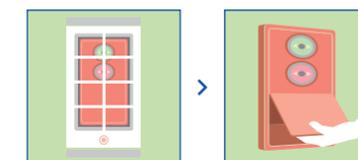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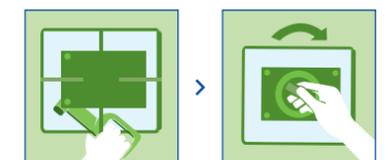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김뜻돌과 떠나는 음악 여행

날개를 단 천사의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치유의 목소리를 전하러 싱어송라이터 김뜻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음악 듣기



낮선 천사가 전하는 플레이리스트

1 풍경 시인과 촌장

저는 기자 여행을 정말 좋아해요. 큼직한차창에 스쳐가는 풍경을 보다 보면 어느새 목격지에 도착한답니다. 옛 기억이 떠오르고, 잠시 슬픔이 찾아올 때 필요한 것은 오래된 친구 같은 음악 아닐까요? 어린 시절 엄마 아빠의 어깨 너머로 들던 시인과 촌장의 '풍경'을 추천해요.

2 봄으로 달려나가는 다니야르 생각의 여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린 적 있나요? 저는 요즘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이 곡에서 "이 길은 운전수의 것"이라는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길을 잃어도 눈앞에 나타난 새로운 길이 제 길이라는 뜻 같아서요. 어디로 흘러가든 지금 그 길이 당신의 길이예요!

3 바람아 멈추어다오 러브홀릭

원곡보다 이 버전이 더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 돌아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좋아하는 음악을 MP3에 담아 감상했어요. 듣고 싶은 음악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 음악을 찾으러 집에 갈 생각만 했죠. 바람과 세월은 멈추지 못하지만, 음악에 얽힌 기억만은 그대로예요.

4 스물 아홉 문득 3호선 버터플라이

스물아홉이 된 지금, 이 노래는 마치 저에게 불러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 혼자 가는 목욕탕을 좋아하게 되었고, 한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싫어진 것도 있으니까요. 현재의 모습은 25년 뒤에 또 다른 형태로 바뀌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좋은 것이 분명 존재하리라고 믿어요.

5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김일두

김일두의 노래를 듣다 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낮이었다가 금방 밤이 되고 말아요. 노랫말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의 몫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처받은 사실을 까먹기라도 한 듯이 신성하고도 어려운 일에 자꾸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정답은 늘 사랑이었죠.

6 다섯 번째 봄 김뜻돌

세상에는 수많은 가능성만큼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 중 하필 왜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커서 그걸 당신이라고, 하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다섯 번째 봄을 기념하며 이 노래를 건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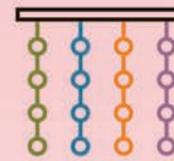


© EMA, 버스



김뜻돌

드림팝, 슈게이즈, 뉴 메탈, 포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싱어송라이터. 음악이 사람을 치유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는다. 2017년 디지털 싱글 '꿈속의 카메라'로 데뷔한 뒤 2020년 첫 정규 앨범 <꿈에서 걸려온 전화>를 발표해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발매한 EP 앨범 <COBALT>에 수록된 '비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와 두 번째 정규 앨범 <천사 인터뷰>로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 록 부문 후보에 올랐다. 영화 <한국이 싫어서>에 배우로도 참여했다. 대표곡으로 '속세탈출' '뽀뽀뽀' '손님별' 등이 있다.



제59회

단조음미곡제

KING DANJONG CULTURE FESTIVAL

2026

4.24(금)

4.26(일)





서강과 육육봉 절벽에 갇힌 섬 같은 땅, 청령포의 울창한 소나무 숲